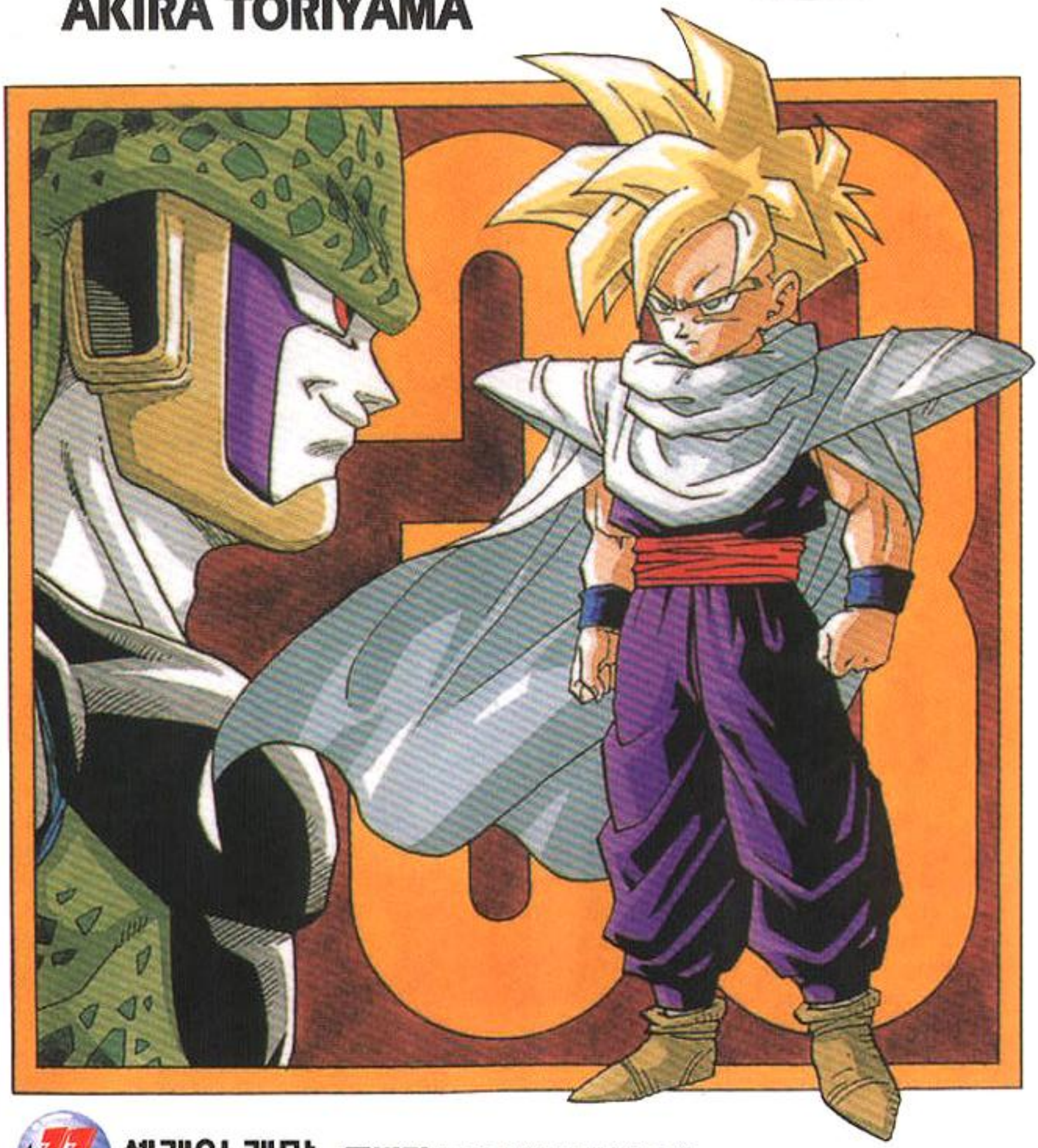
IQ JUMP COMICS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DRAGON BALL
드래곤볼

AKIRA TORIYAMA



35

셀게임 개막 [특별편] TRUNKS THE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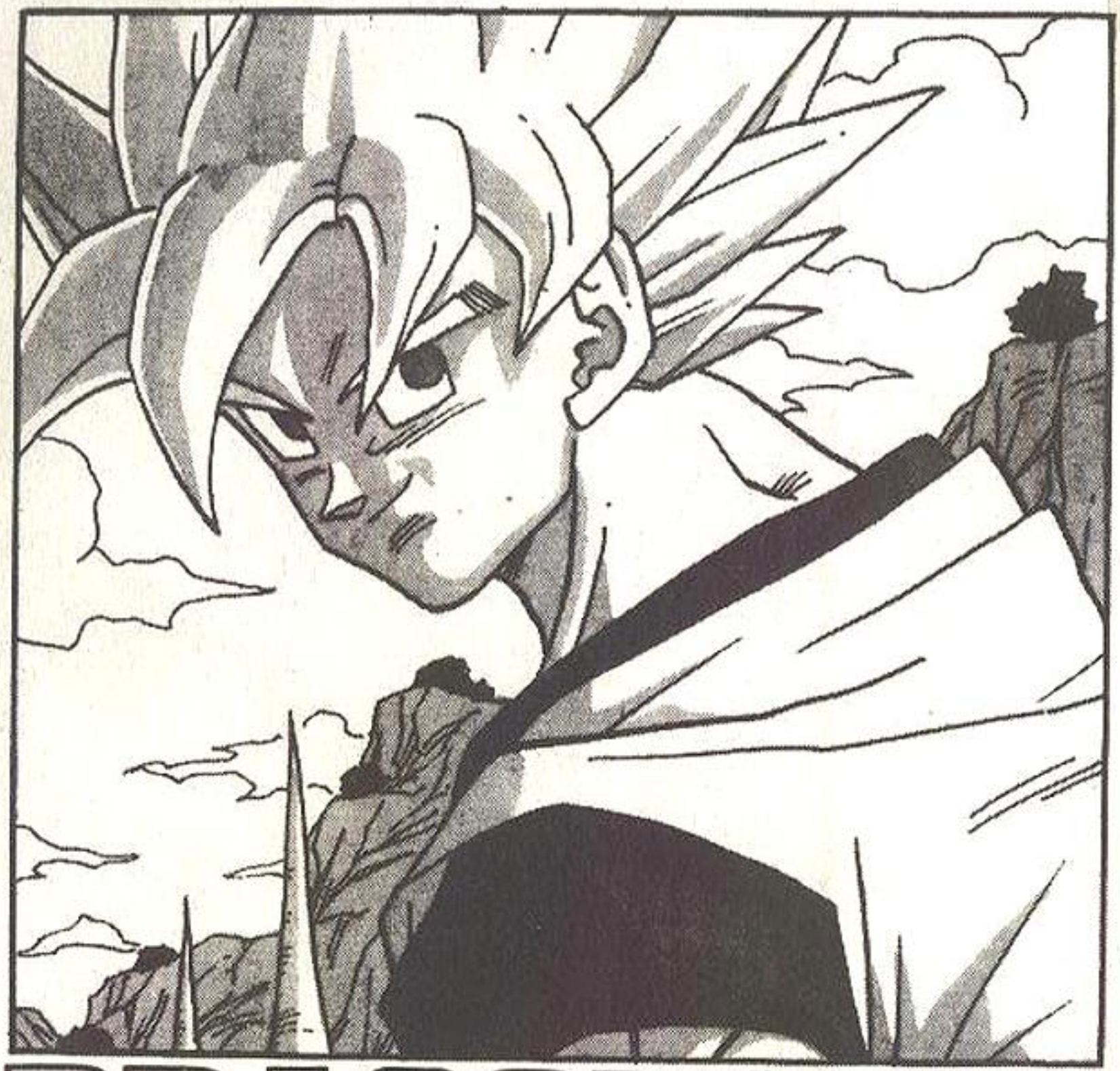
scanned by raprnb



AKIRA TORIYAMA
-토리야마 아키라-

여러분도 상상이 가시겠지만, 주간연재라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닥터 슬럼프』와 이 『드래곤 볼』, 합쳐서 13년간 지속적으로 이 주간연재를 해왔더니,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원래 끈질긴 성격의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슬슬 여유를 가지고 쉬엄쉬엄 일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ned by raprnb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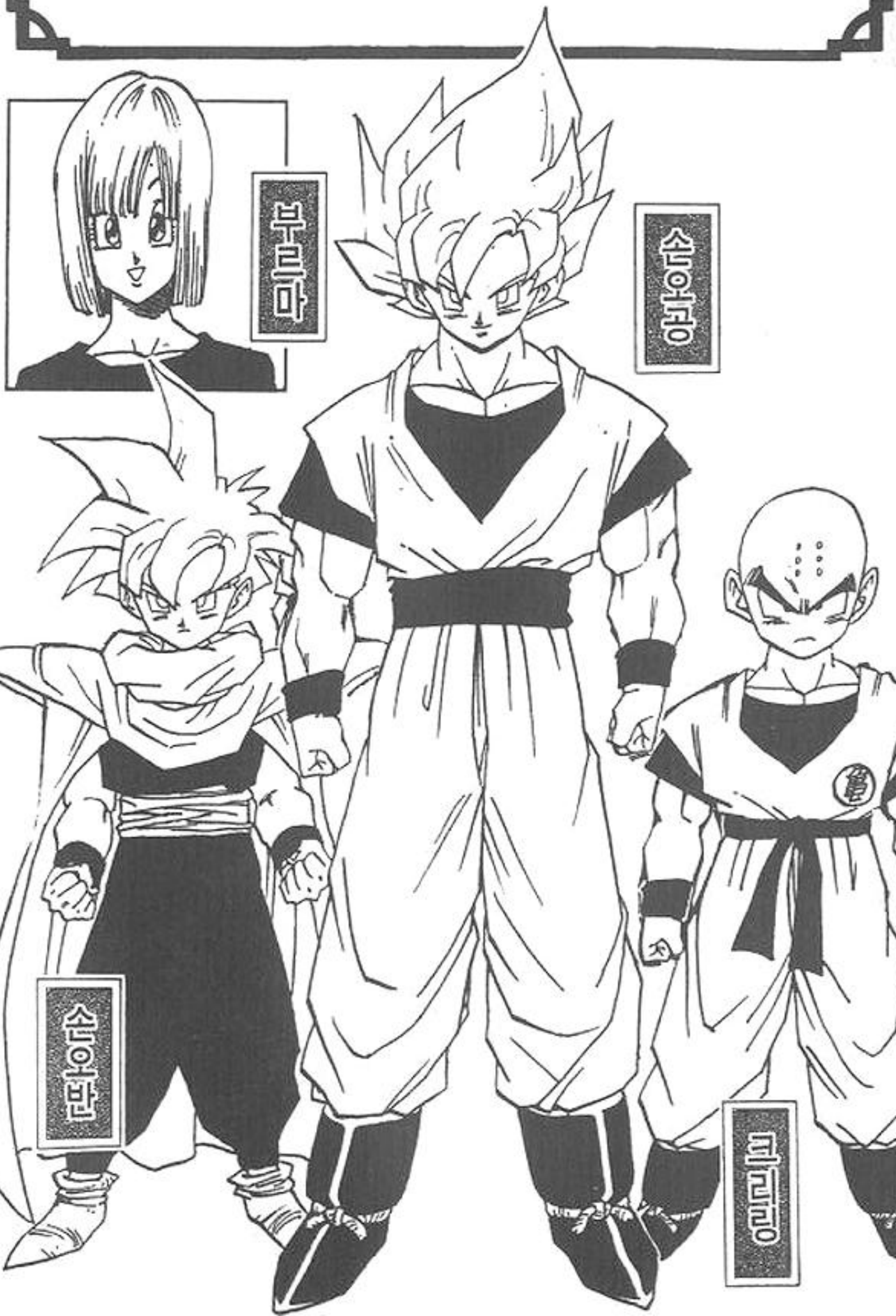
드래곤 볼

제33편 셀게임 개막

AKIRA TORIYAMA

sca

등장인물소개





지난 줄거리

아주 먼 옛날. 7개가 모이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는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하던 손오공은, 대모험 끝에 모든 구슬을 모은다. 그렇지만 나쁜 곳에 쓰일 뻔했기 때문에, 엉터리 소원을 말해버려 소원을 이룬다. 용신은 한 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 동안 거북신선 밑에서 수련을 쌓은 오공은, 다시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우승을 거둔다. 그 후 잃어버린 드래곤 볼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 쟁탈전에서 최강전사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하여 승리를 거둔 오공. 오공의 목숨을 노리는 인조인간 3명과, 최강의 육체 "완전체"를 목표로 한 셀이 등장. 그리고 셀은 마침내 완전체를 완성시킨다. 베지터나 트랭크스가 우선 전투에 도전하는데… !?

DRAGON BALL 33

셀게임 개막



제386화 아버지를 뛰어넘은 트랭크스! ····· 7
제387화 초파워의 균형 ····· 22
제388화 셀의 기억 ····· 36
제389화 전율의 메시지 ····· 51
제390화 오공과 오반 등장 ····· 66
제391화 대결전 전의 휴식 ····· 80
제392화 왕립방위군의 저항 ····· 94
제393화 새로운 신님 ····· 109
제394화 셀게임 개막 ····· 124
제395화 전 멤버 집합!! ····· 138
제396화 셀게임의 훼방꾼!? ····· 152
[번외편] TRUNKS THE STORY
-단 하나의 전사- ····· 166
표지 페이지 대특집 XXXII ····· 185











제386화
아버지를 뛰어넘은 트랭크스!





DRAGON BALL

드래곤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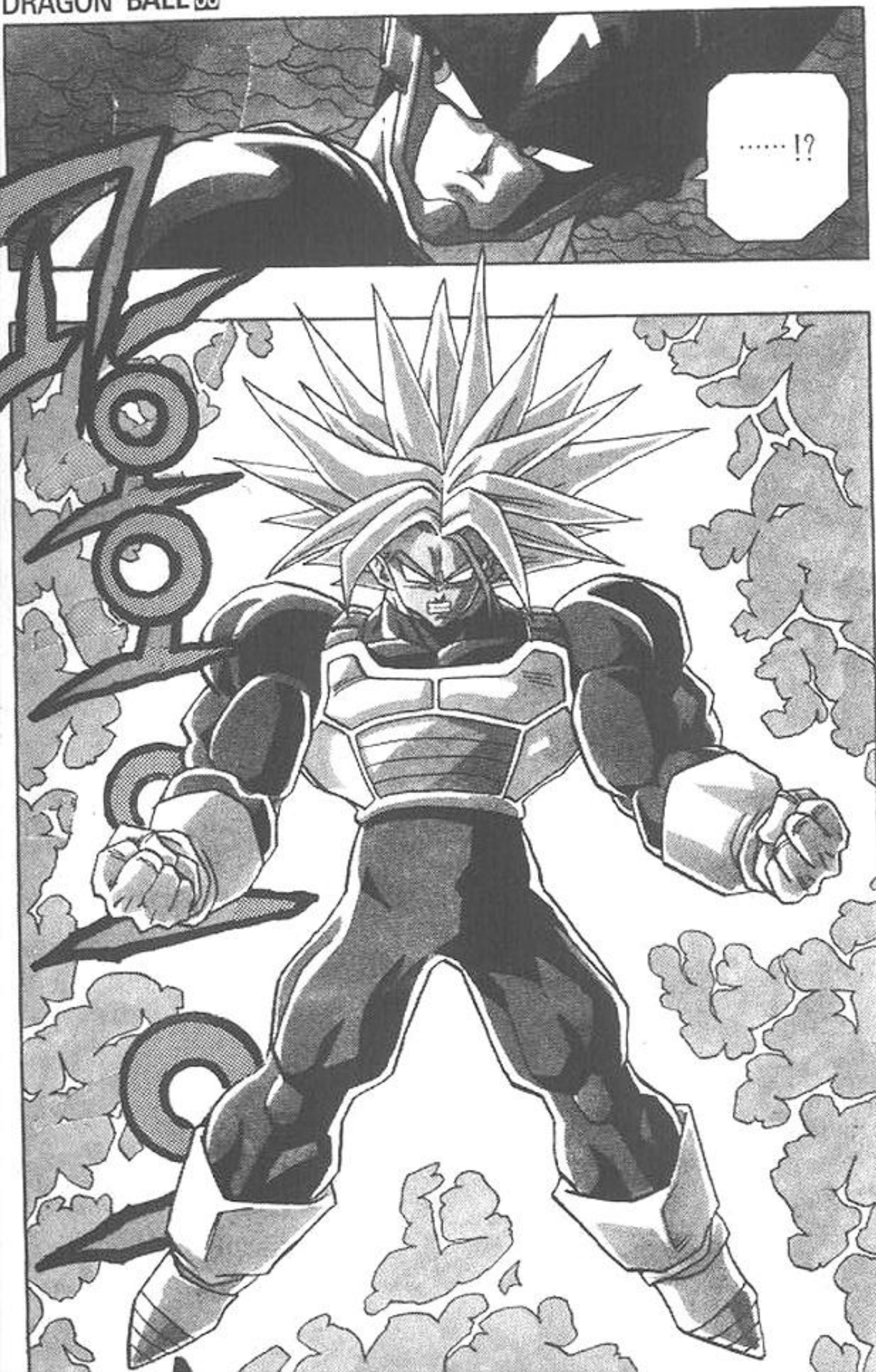









……
아… 아으으…!
크아…으으으…!!
이… 이봐, 트랭크스!
괘…, 괜찮은 거니…!?
지, 이제 마지막이다!
잘 가라, 베지터.






트랭
크스… !?


저건
뭐지… !?


아… 아직
완전한 기가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무시무시한 기가
느껴진다… !
도… 도대체
사이어인들의
정체는 뭐야… !?
龜



하, 하지만 괜찮겠어!? 네 몫의 선두가 없는 건 아니지?

그… 그래…!

크리링 아저씨.

아버지를 무천도사님의 집에라도 데려가주지 않을래? 그리고 시간에 맞춰 이 선두를 먹여줘.

난 선두가 필요 없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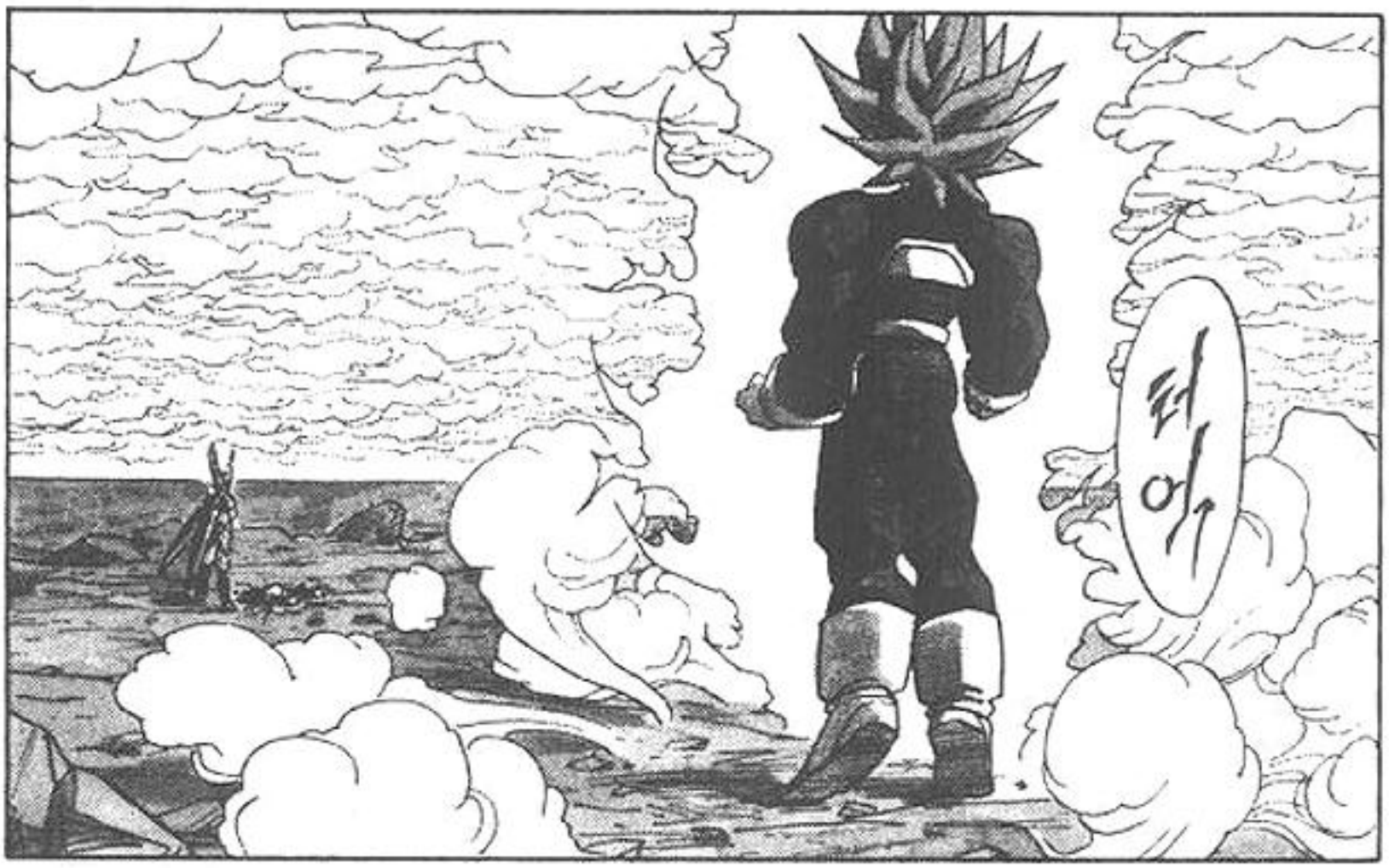
그건 걱정 마.

트… 트렁크스가 저런 얘길 하다니….

대… 대단한 자신감인데.

으!!

난 반드시 이길 거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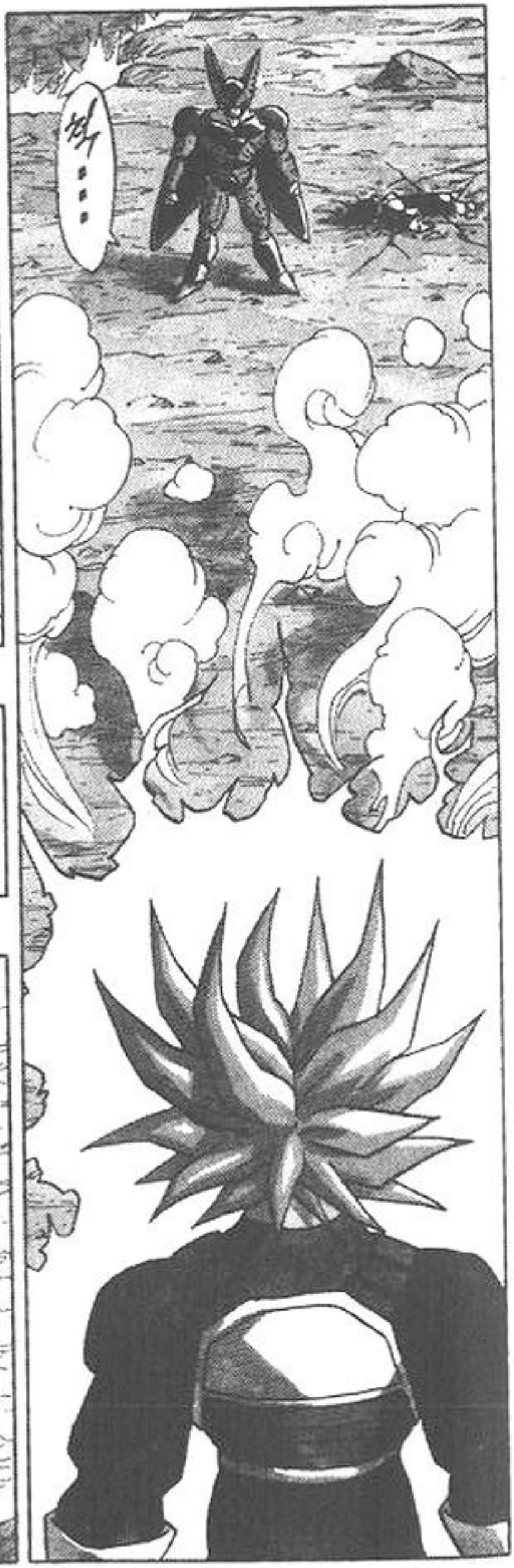

터엉


녀석이 이런
저력을 감추고
있었다니…!
강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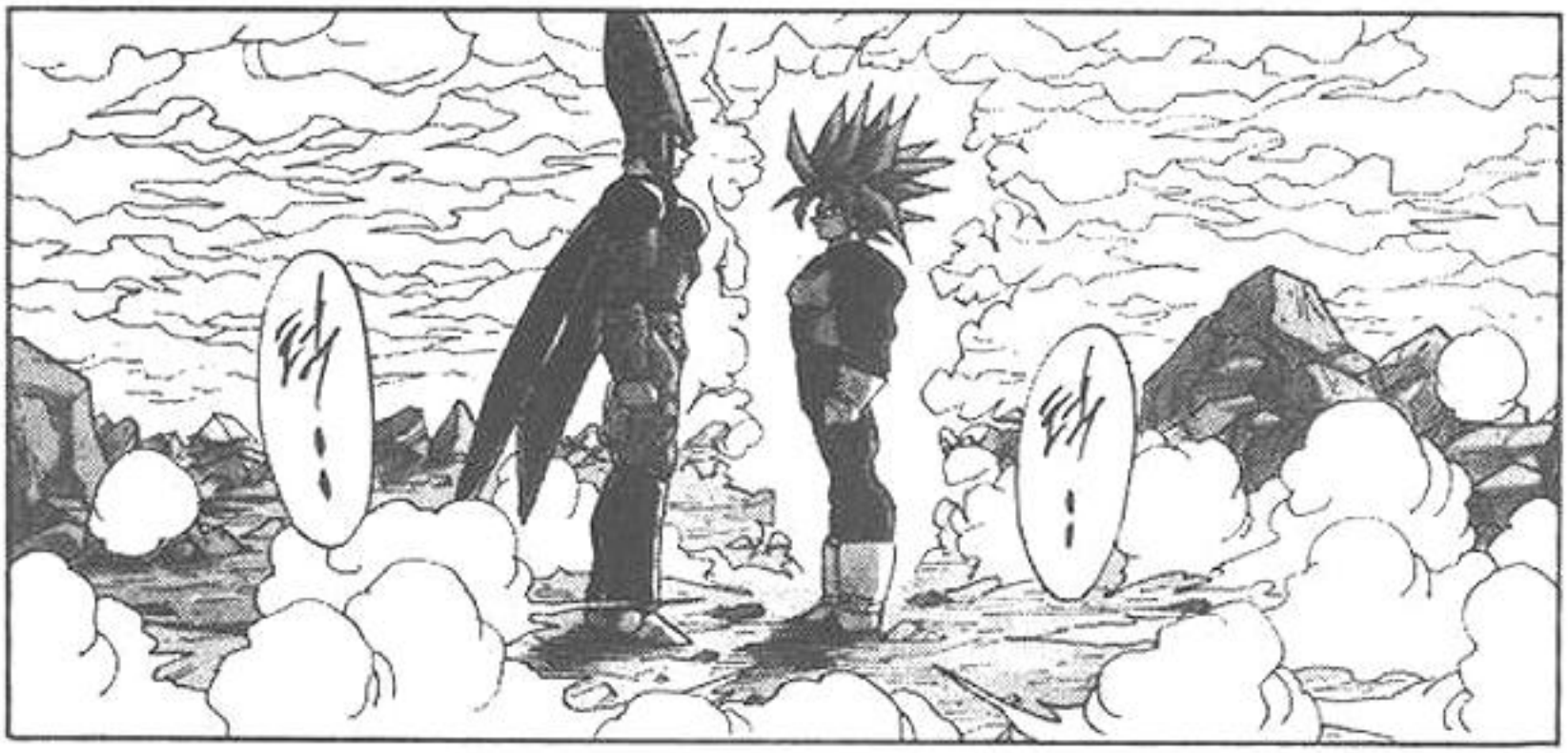

셀…!
널 죽여
버리
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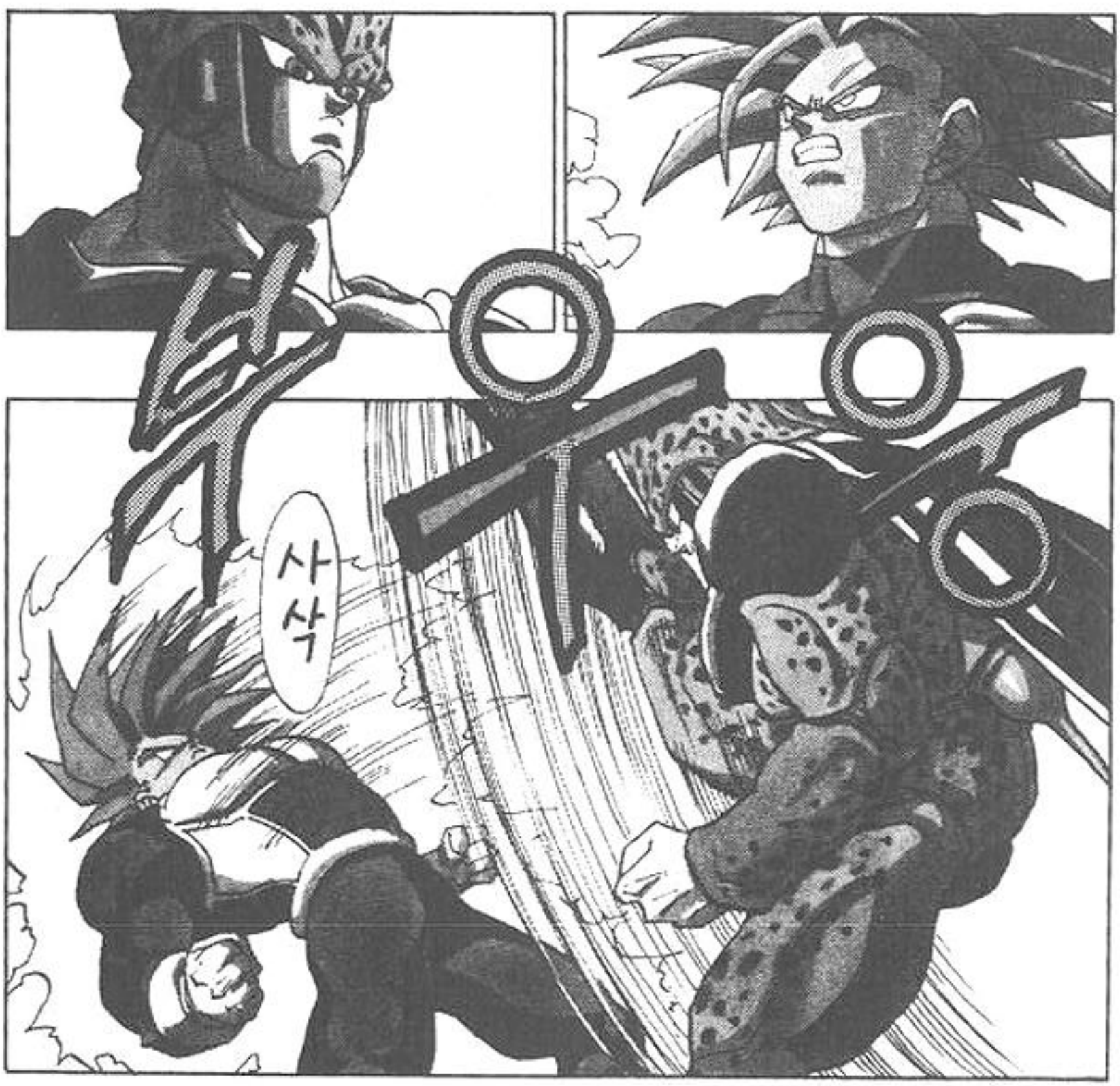

터벅
터벅


헉…


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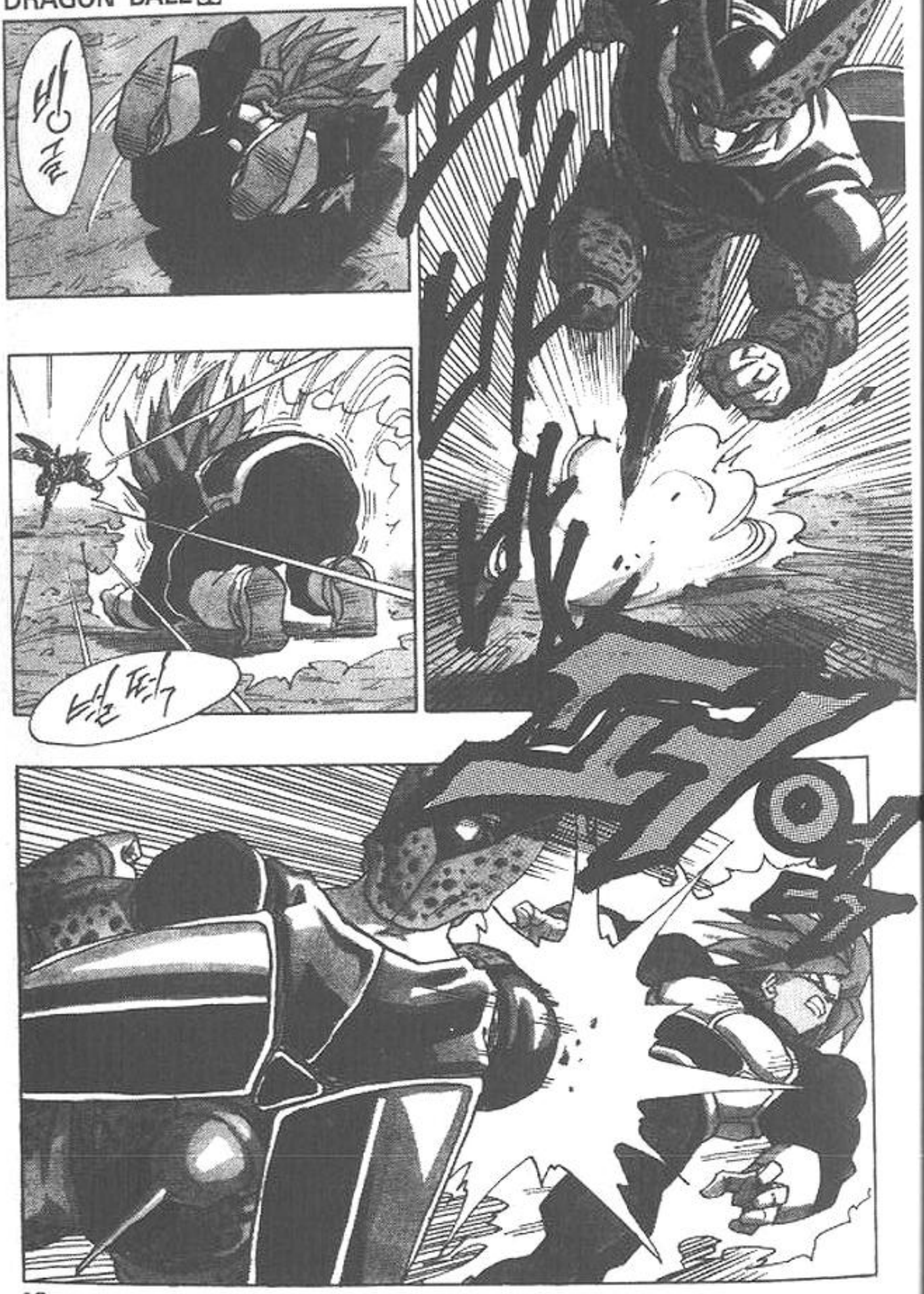

큰소리
땅땅 치는구나.
트랭크스….
터벅
터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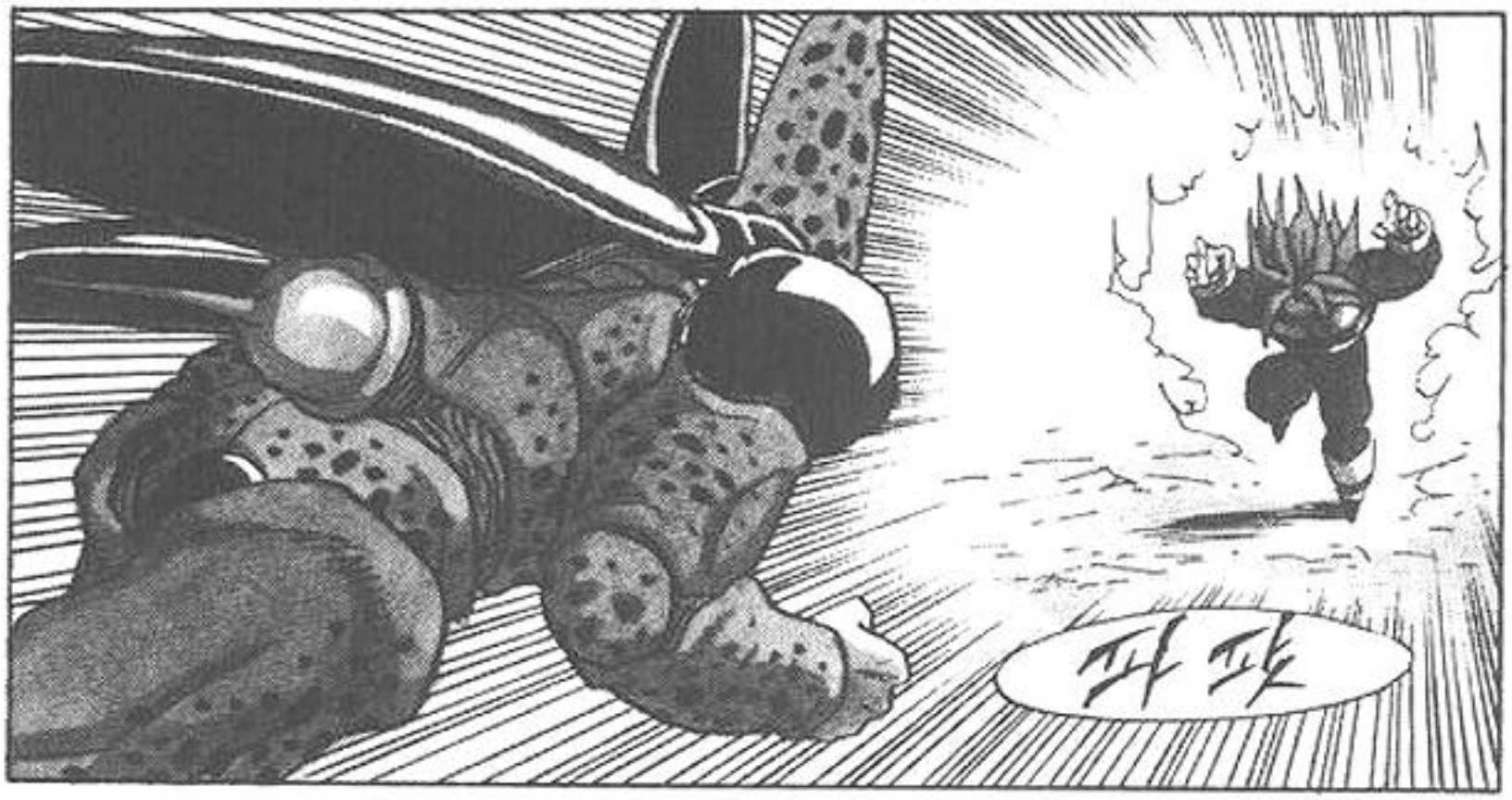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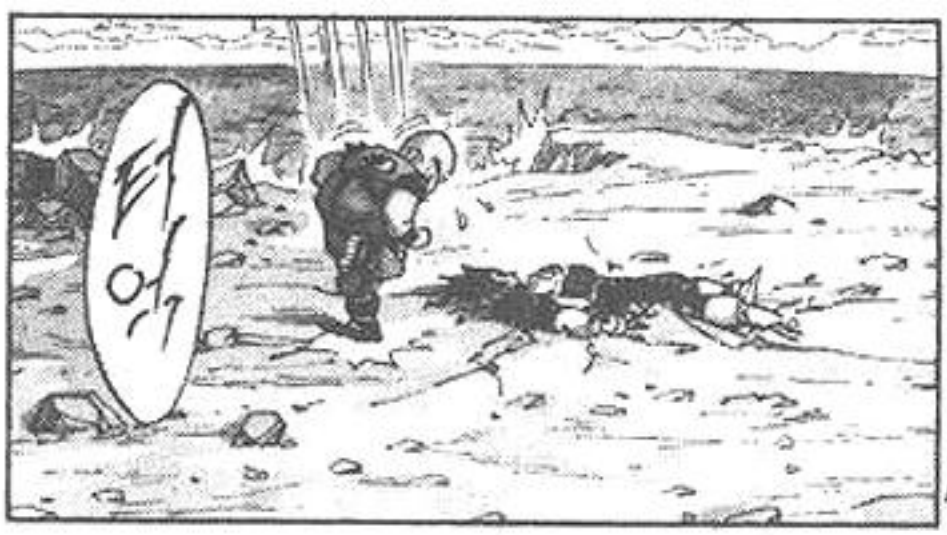

사삭




그, 그랬구나…! 내가 베지터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


빙글
벌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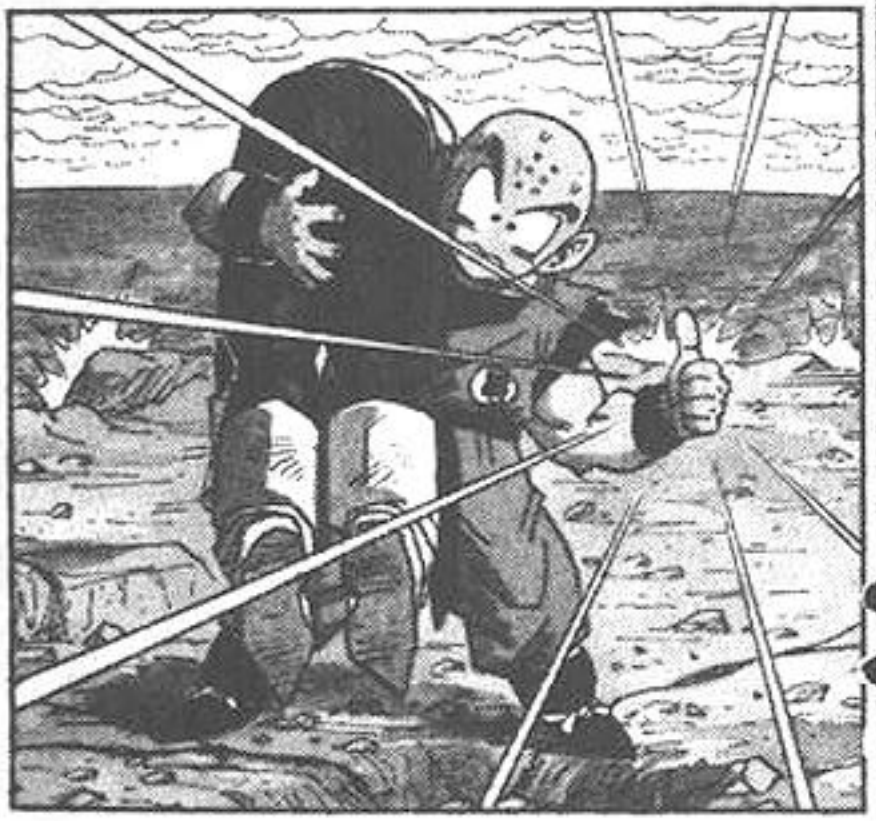

파팟


타아


퍼퍼퍼퍼


타아아아








ドド






타앗


베지터도
데려
갔고….
이제 겨우
마음 놓고
싸울 수
있겠니?


타앗


당근이지.
난 이미
저 녀석에겐
흥미 없어.
뜻밖인데.
알면서도
그냥 보내
주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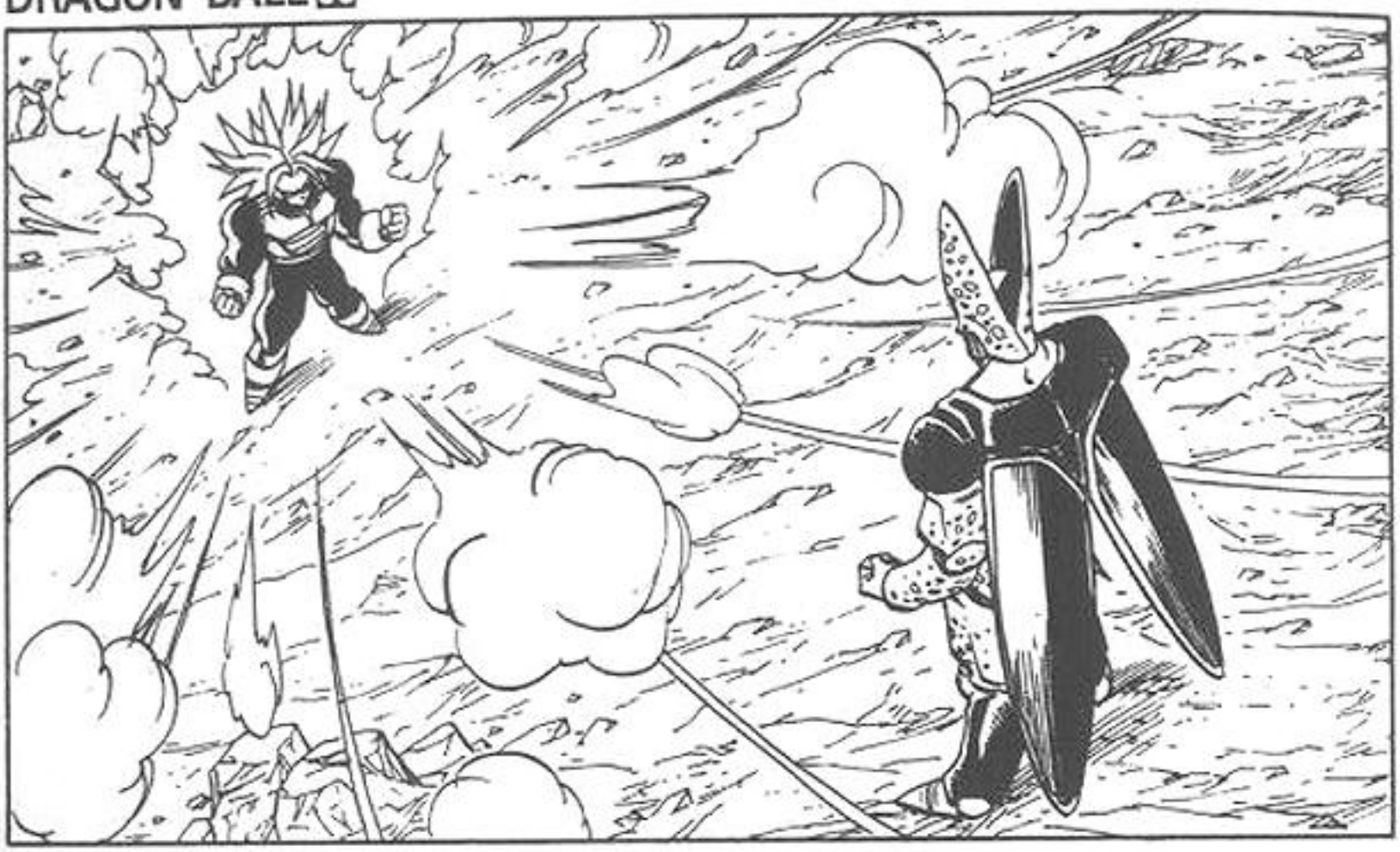

!





다음은, 제387화 초파워의 균형


이제부터 보여주는 게….
바로 진정한 힘이다…!!




절대로
말이지….
하지만
그 정도론
날 이길 수
없다….


과연….
확실히
훌륭한
파워인데….
날 충분히
초월하고
있어….


흥….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나
지껄이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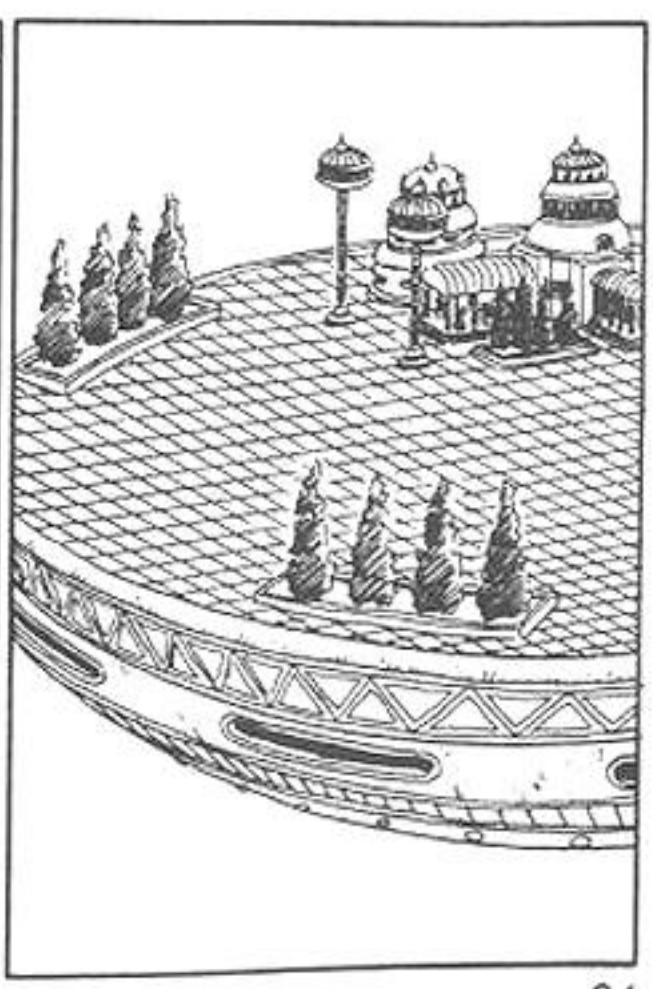

……!?


샤샤




대, 대단한
파워야!
셀을 훨씬
뛰어넘고
있어…!
미…,
믿을 수
없는데…!





트랭크스 아님 누구 얘기겠냐!

뭐!? 누가!?

너 혼자만 몰래 보지 말고, 확실히 설명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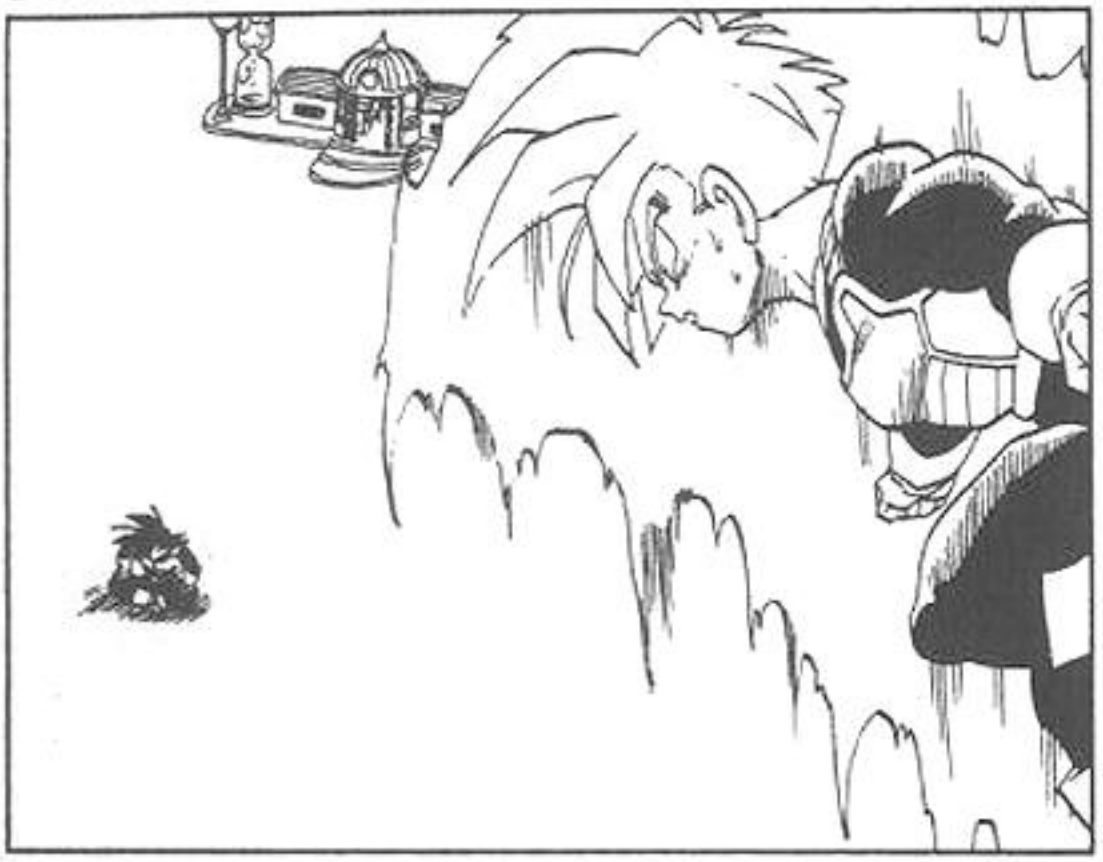
트랭크스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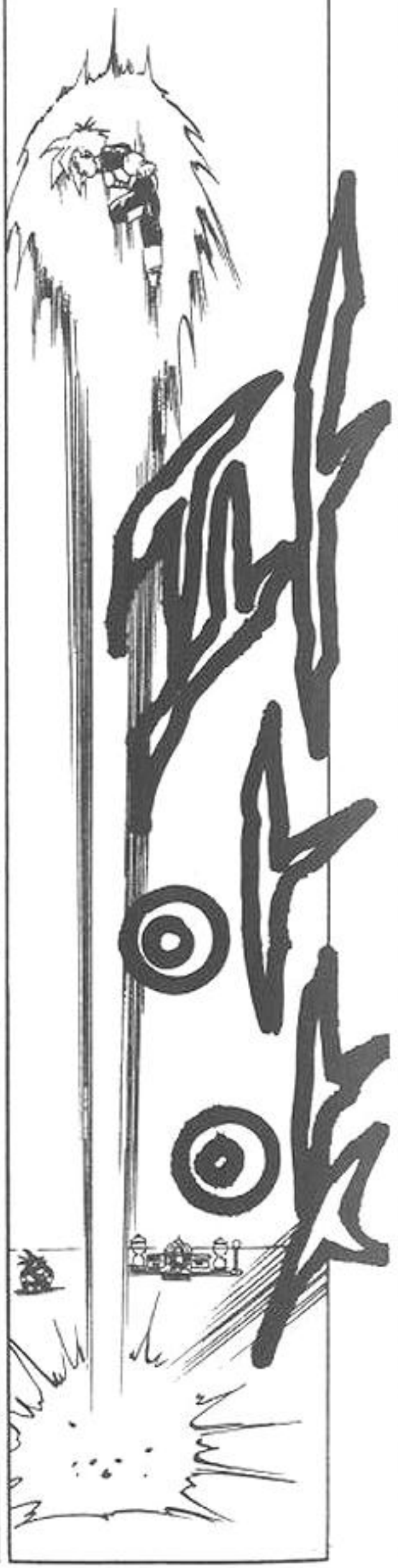
만세!!






휘익
휘익
휘익
파앗
퍼퍼퍽
휘익
휘익
휘익






역시
초사이어인을
더욱 초월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인가보다….
아빠는 요즘
매일, 저렇게
계속 앉아만
있을 뿐이네….

큭!
큭!
파바바바


허억! 헉!
헉! 헉!
슈욱…
터억
부웅
하아아아…!!

아!!

초월하고 있어!
아빠는 벌써
초사이어인을
초월하고
있다구!

아,
아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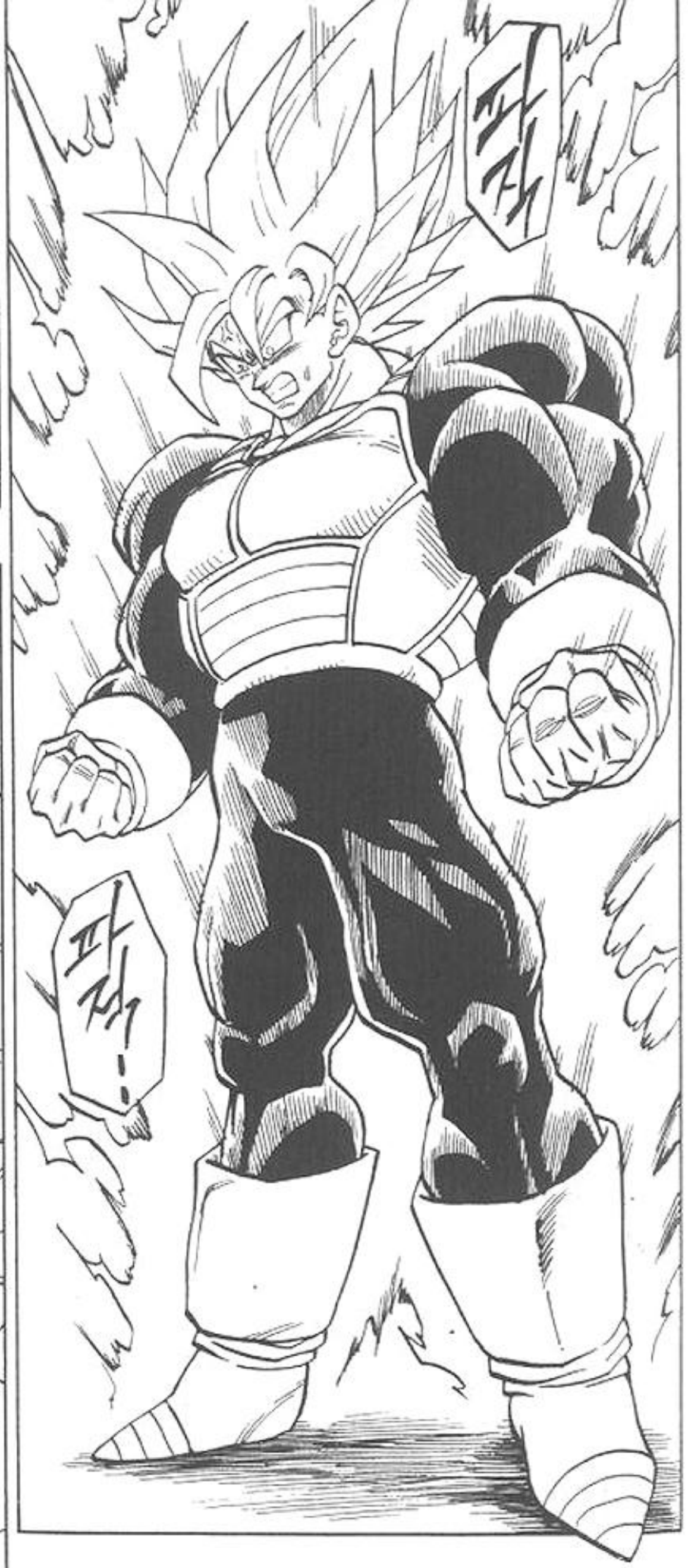
대,
대단해!



엑 !?
여기에서 다시 한단계의 변신이 가능하다….
…….
하아아 아아… !!
파앗
불룩
쿠욱


와…!
해냈다!!


지, 진짜 엄청난 파워야!
이 파워면 반드시 셀을 이길 수 있다구!
……


팍
팍!!


타앗!!
익!
사삭
쿠웅
파밧


파팟 파파팟
제기랄!!
헉!
허헉!
턱

아마….

이 정도로는 이길 수 없어….

아무리 거대한 파워라도 상대를 맞추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렇게 부풀어오른 근육으로는, 파워는 크게 올라가도 스피드가 죽어 버린다구.

뭐!?

게다가 에너지 소모도 너무 많아져.

균형적으로는 보통의 초사이어인이 가장 좋지.

난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어….

이제부터는 잘 때 이외에는 되도록 항상 초사이어인 상태를 유지하여, 평범한 그게 평소의 상태가 되도록 만들 거야.

우선…, 초사이어인이 됐을 때의 흥분된 기분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

그 다음엔 기본적인 수련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

예!

진정한 힘을 보여준다면서 더욱 파워에만 의지한 변신을 하다니….

어리석은 놈…. 그런 것도 몰랐냐….

이… 이럴 수가…!

비…, 빌어 먹을…!

도, 도대체 왜 안 맞지 …!!

그 정도 변신은 이렇게 식은죽 먹기라네….

다음은, 제388화 셀의 기억




너 진짜
띨빵하다….
이처럼 파워업만을
위한 변신가지곤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아….


끄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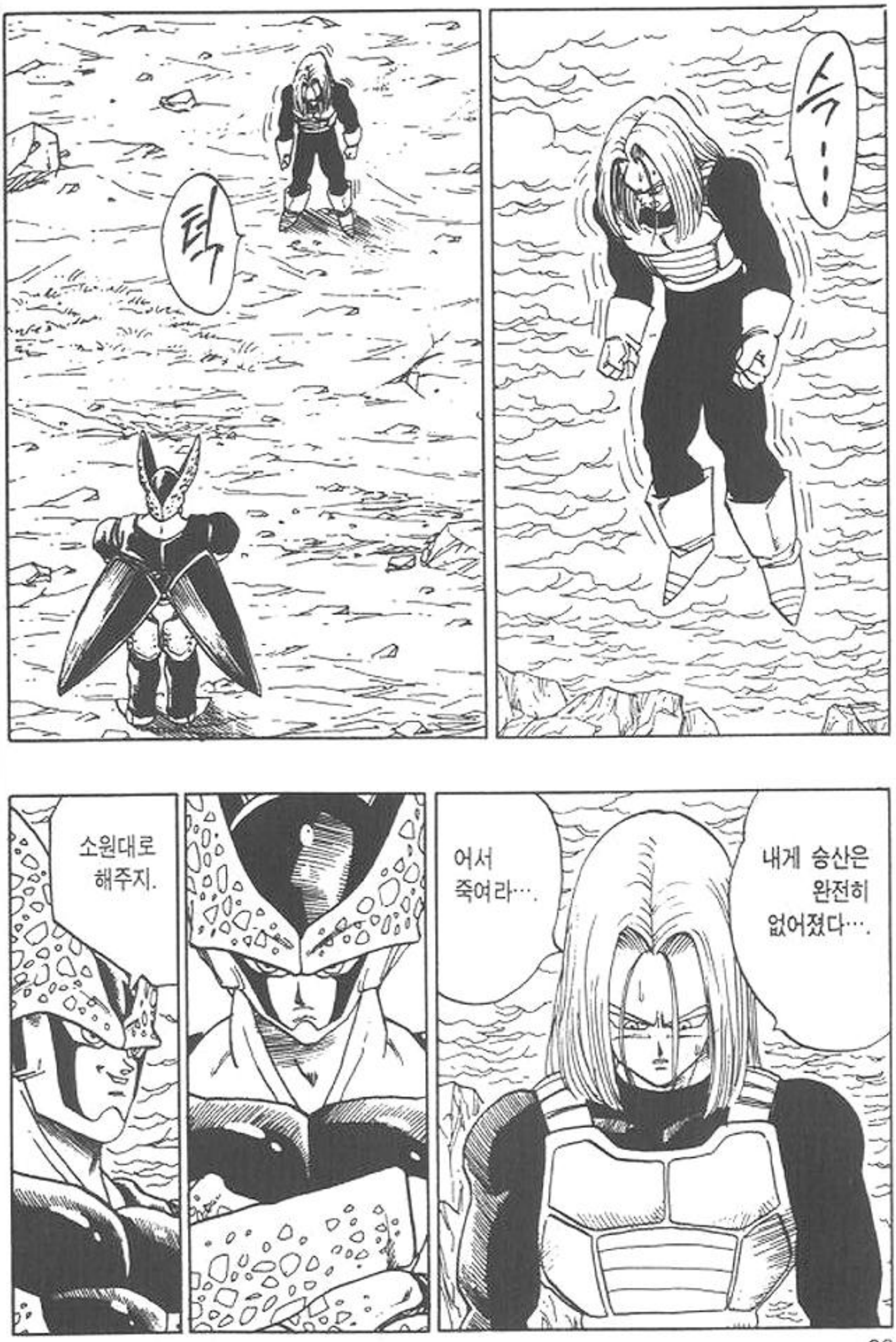
스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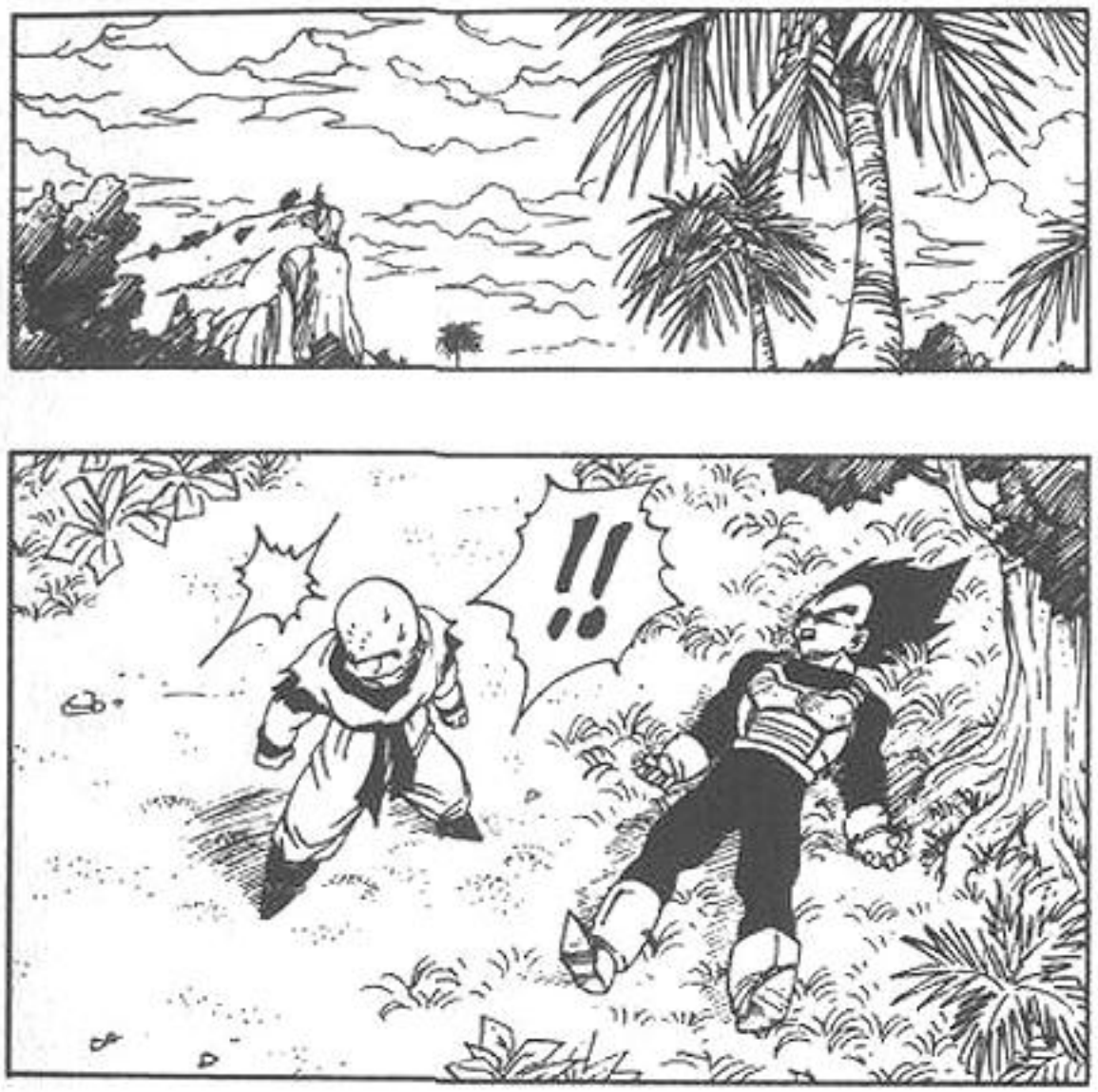



그… 그랬구나. 그… 그래서 아버지는 오히려 이런 변신을 하지 않았던 거야….
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셀 녀석 말이 옳아….
나…, 난 진짜 너무 어리석었어.



스ㅋ…
턱
내게 승산은 완전히 없어졌다….
어서 죽여라….
소원대로 해주지.


!!




호…, 혹시
셀 녀석한테
당한 건가…!?
세…,
셀의 기는
아직 거대한
상태인데….


도…
도대체
무슨
일이지…!?
트…
트랭크스의
기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 그 녀석!
분명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크…,
큰일
났네…!
일어나, 베지터!
이 선두 좀 먹고
정신차리라구!


너한테도,
베지터에게도
너무나
실망이 크다….
좀 더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




와…,
완전체인
셀은….
무…
무식하게
강한 녀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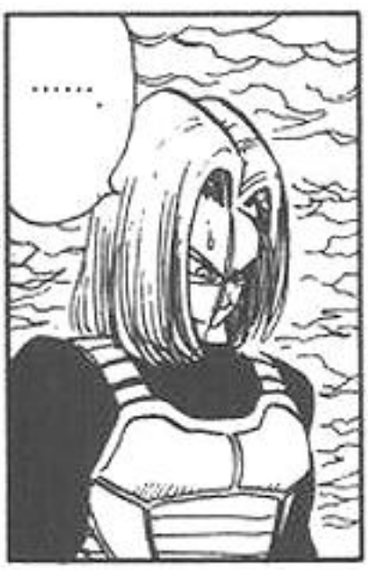

뭐!?


트랭크스가
위험해…!


……
트랭크스가
이겨버린 거
아냐!?


비록 나에겐 완패했지만, 너와 베지터는 짧은 시간에 급격히 파워를 상승시켰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다….


대답하기 싫냐…? 그럼 질문을 바꾸지….


……


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지…?


그런데 왜 그런 얘길 묻는 거야…?
나도 몰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구….


어때?


!?


시간이 있다면 더욱 파워업하는 것도 가능한가?

흐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군….

다음 질문이다…. 손오공은 뭐 하고 있지?

왜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거냐?

오공 아저씨는 지금 너를 처치하기 위해 수련하고 있어. 내일이면 전투에 나타날 거다!

오공 아저씨라면 반드시 우리의 기대를 채워줄 거야! 난 그렇게 믿고 있어…!

씨익…

재미있는 대답이군….

무술 대회…?

뭐…?

무술 대회를 열어 주마….

그렇다면….

내가 선물하는 서비스야. 더욱 강해져서 날 즐겁게 해다오.

10일 후로 하자.

예전에 천하제일 무술대회라는 대회가 있었다.

넌 잘 모르겠지만….

대… 대체 무슨 소리야…!?

그것을 다시 열려는 거야.

몇명이 오든 트럭으로 덤벼도 좋다. 사람 수가 많으면 너희들이 유리해진다…. 되도록 많은 전사들을 모아와라….

단, 너희들의 상대는 나 혼자로 충분하지. 1대1로 싸워, 내가 이기면 다음 상대가 다시 나랑 싸우는 방식이거든….

장소랑 다른 자세한 것들은 곧 알려주겠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라도 말야.

뭐… 뭐야!?

따분한데 마침 잘 됐군, 후후후….

그럼 나중에 봐. 선두를 많이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거야.

자…, 잠깐! 셀…! 무술대회의 목적은 뭐지!? 그리고 너의 최종 목표는…!?

나, 난 전혀 모르겠어! 지구…. 아니, 우주를 정복하겠단 거냐!?

무술대회의 목적은 내 강력한 파워의 확인과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는 것….

또한 내 파워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연습이 된다….

최종 목표는 특별히 없어…. 정복이니 뭐니 시시한 건 흥미도 안 생기고….

내가 만들어진 원래 목적인 손오공을 죽이는 것도, 지금처럼 강한 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지….

공포에 떠는 인간놈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즐기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나 할까? 물론 가장 큰 목적은….

쳐억

하하하 하하….

그래, 맞아. 그런 얼굴이지.

뭐… 뭐…!?

……

꺄악


다…
다행이다!
아무 일 없이
무사해!
그, 그런데
셀은 어떻게
된 거지!?
앗!!


도대체
어떻게
그런….
어….
……
안심해라…,
죽지 않고
끝났으니까….
정말!?
여러분,
멍청히
서있지 말고
구하러 가야지!
트랭크스가
죽는단
말야…!!

그… 그런 소릴 했단 말야…!?

다음번엔 나도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야만 될 것 같군….

무…. 무술대회라….

우… 우리를 장난감 취급하며 놀고 있다니….

비…. 빌어먹을 자식…!

하, 하지만 누가 그딴 대회에 참가나 하겠냐?

너… 너희들조차 전혀 상대할 수 없었던 녀석인데…!

난…, 오공 아저씨들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행해 볼 생각이야….

그 녀석이 감히
주제도 모르고
내게 수련 시간을
준 것이 제 꾀에
넘어가는 일이
될 거다….

너나 오공은 필요 없어….
내가 그 방에서
앞으로 하루만 수련하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일이라구….

부탁한다….
날 캡슐
코퍼레이션으로
데려가서
고쳐다오….

바…,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거야….

……

……

아…!?

나…
나도….

대회에…,
나가겠어….


알았어!
내가 데려가서
부탁해 볼게.
크…
크리링
아저씨…!


……


너도
닥터 게로가
만든 인조인간
이잖아…!
허…
헛소리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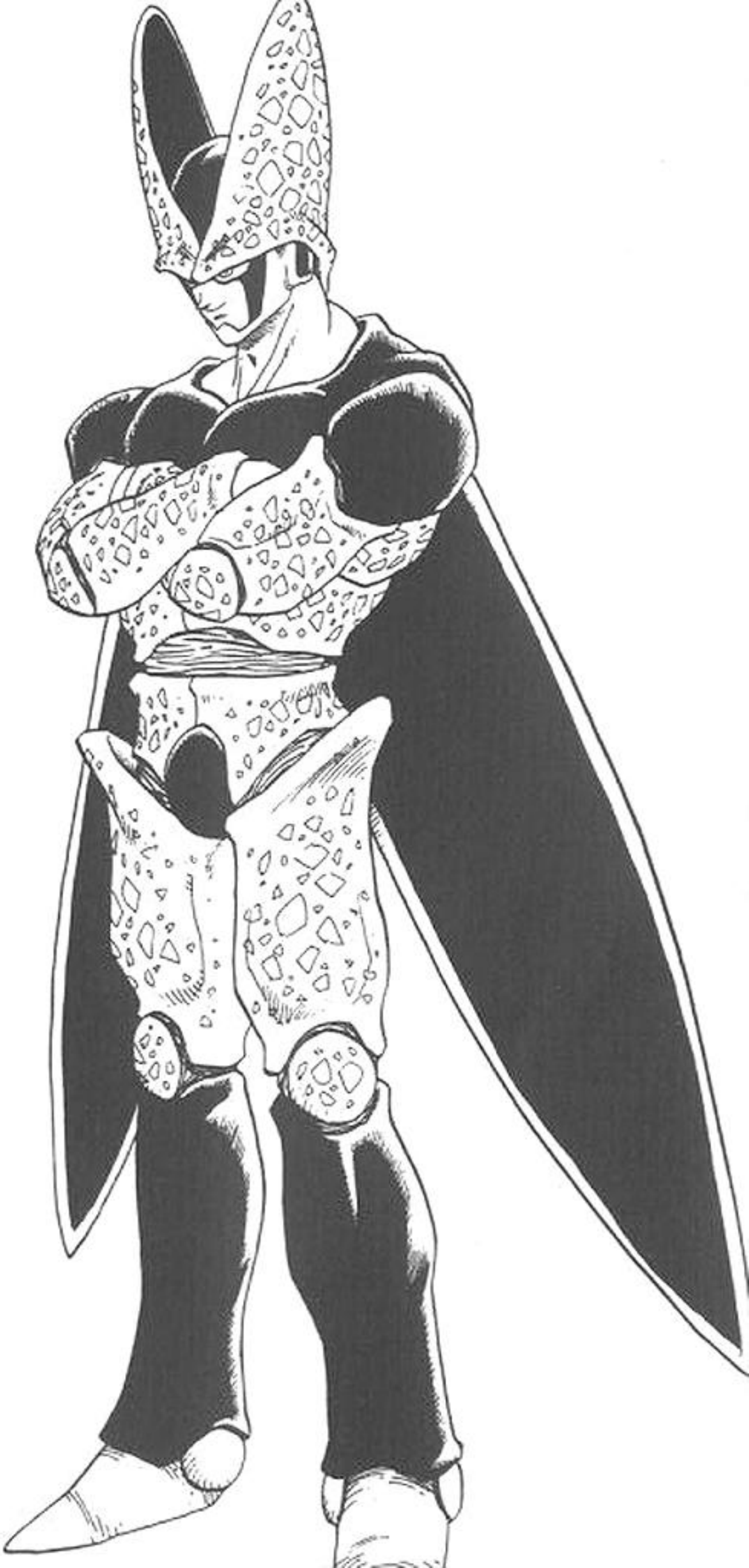

……
영차!
미안해
….


지금은
한 명이라도
강한 친구가
필요한
때잖아?


네가 있었던
미래의 나쁜
인조인간들과는
역시 차원이
틀리다구….
걱정 마
트랭크스…
이 녀석도 분명
그렇게 나쁜 녀석은
아닐 거야…
셀에게 흡수된
그 두 애들도
별로 나쁜 애들이
아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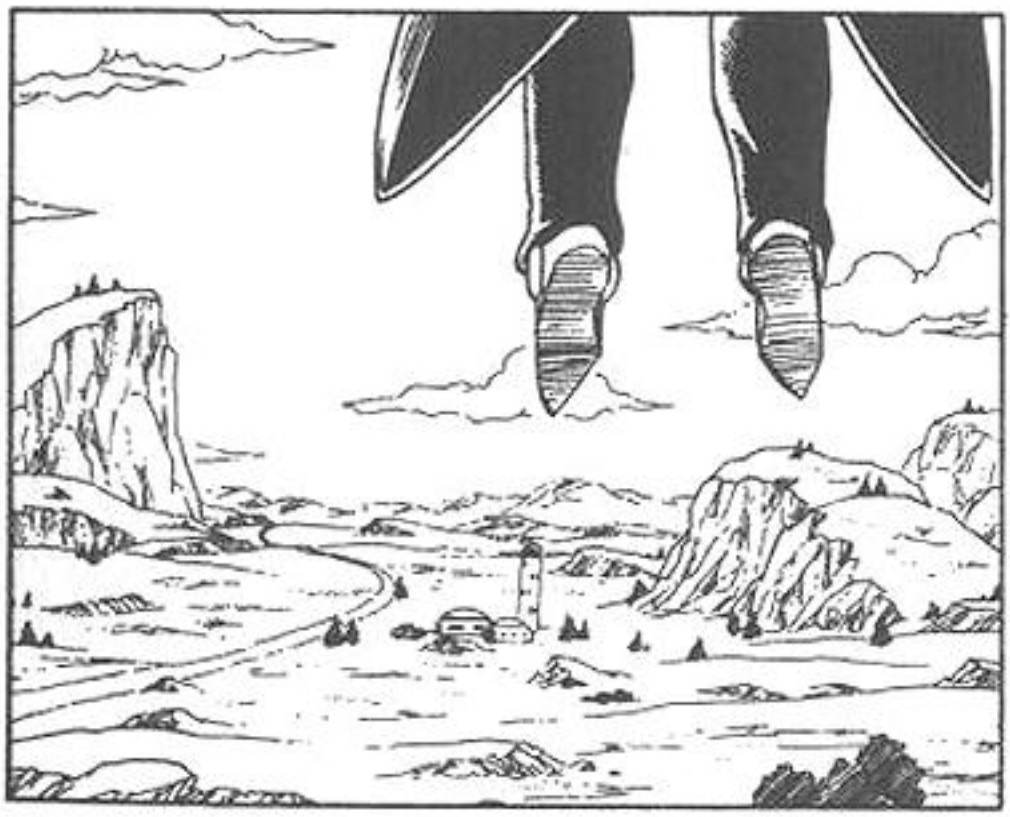

다음날, 전세계에 방영된
텔레비전 방송은
지구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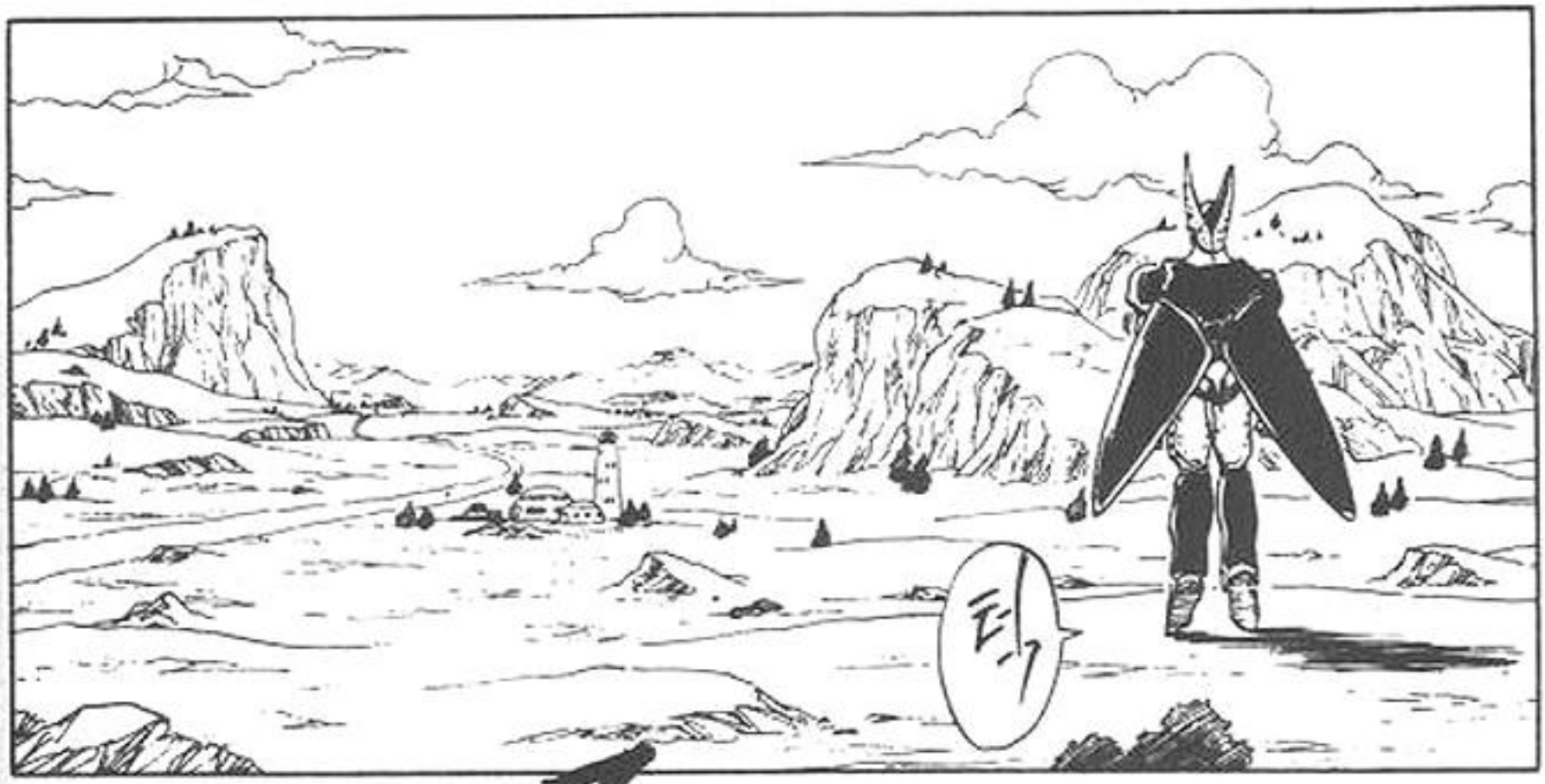
제389화

전율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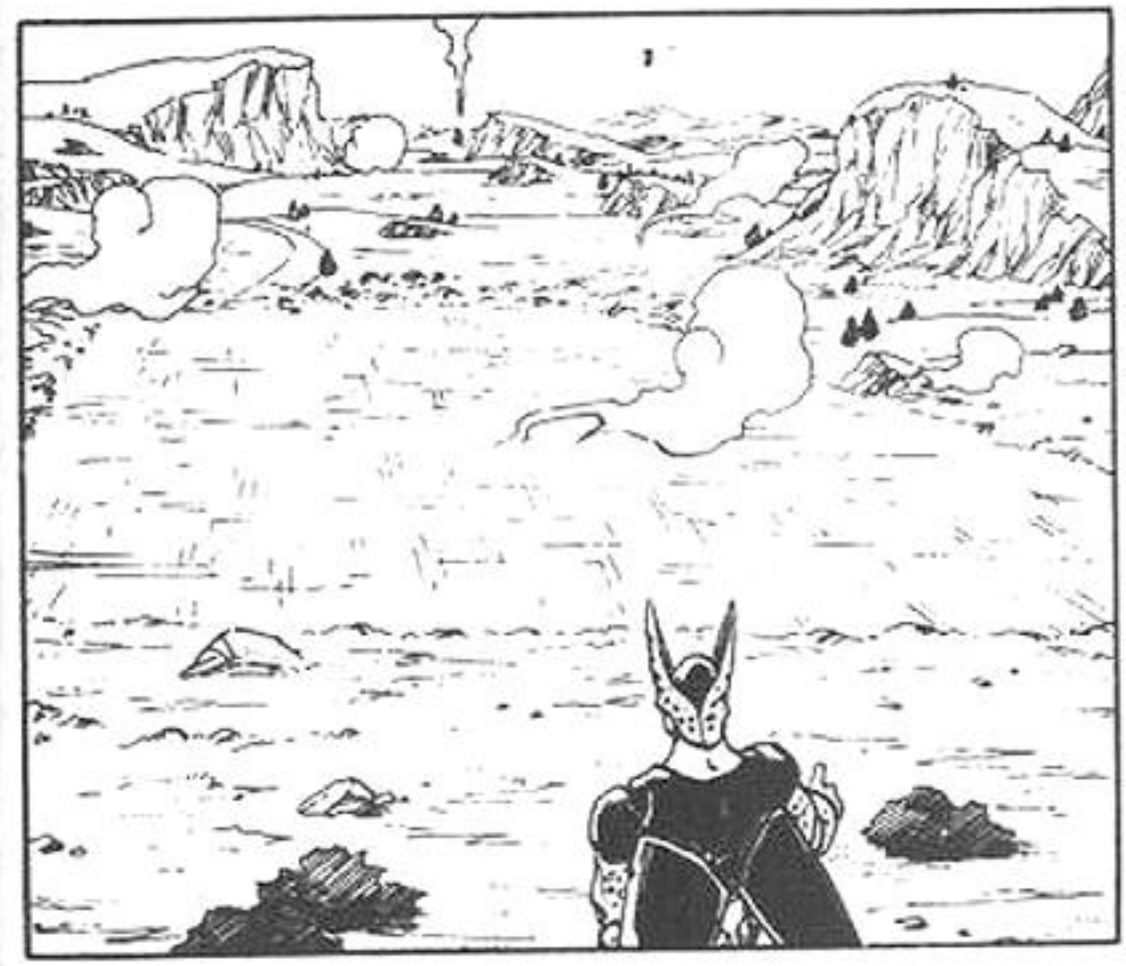







두기






천하제일
무술대회보다
좀 더 크게
할까….
링은….

휘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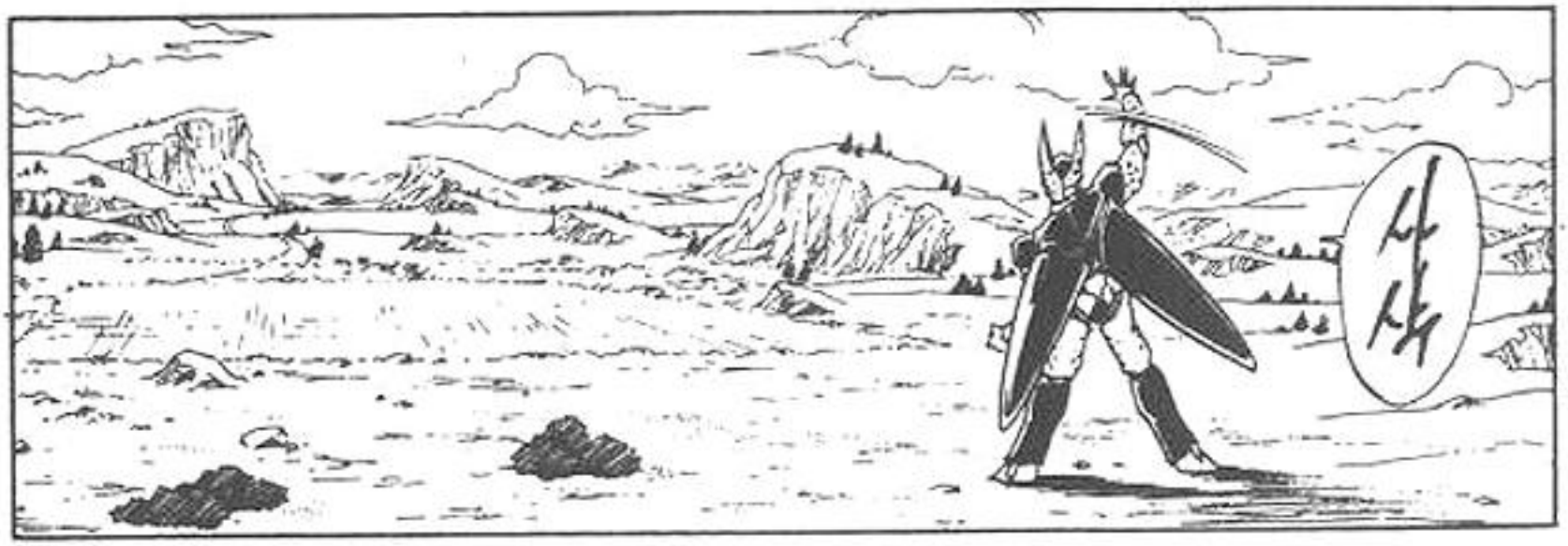
다음은….

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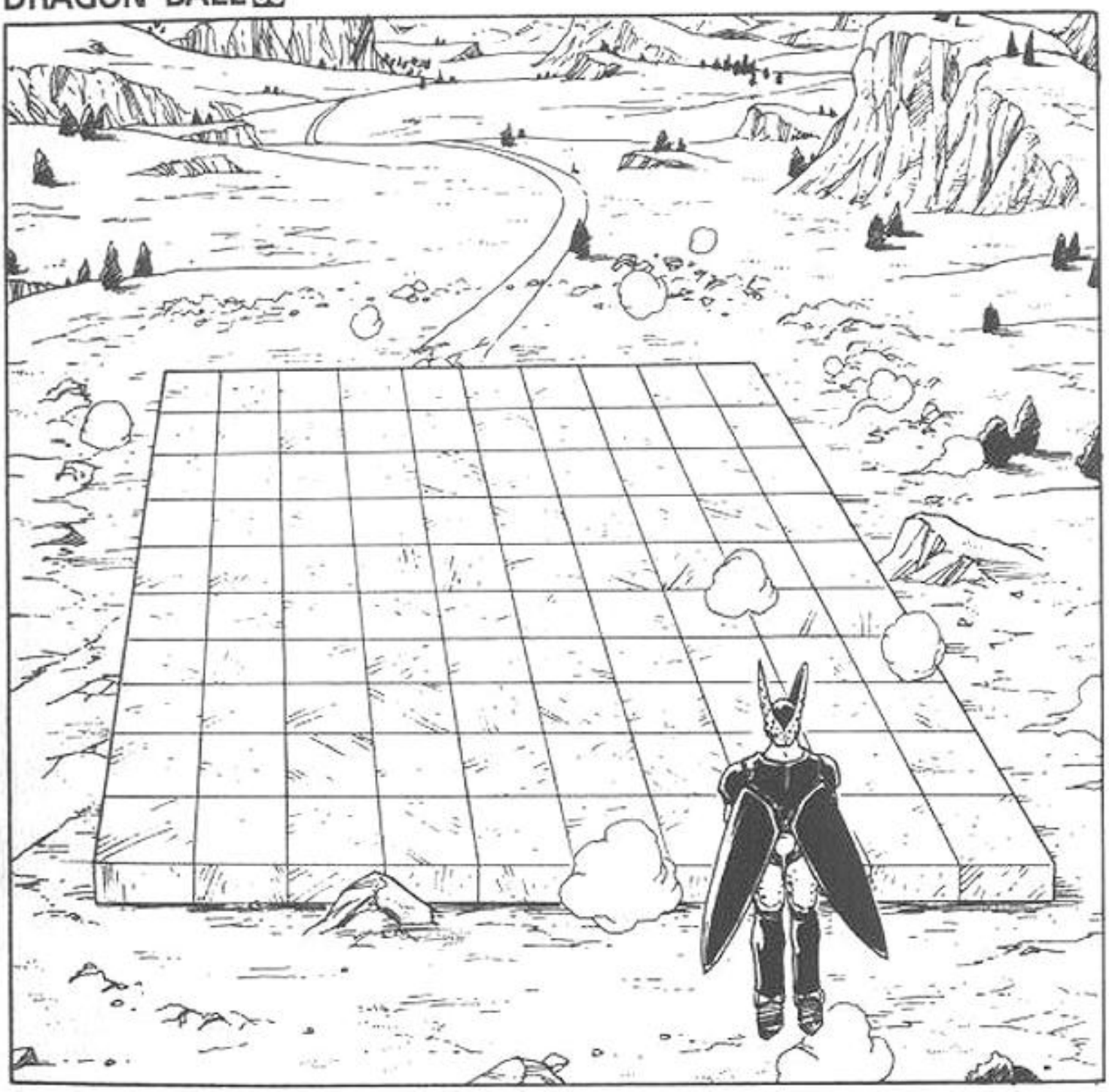
휘릭

생각대로
여긴 질 좋은
돌이 많군.


휘휘
휘리리릭


샤샤


츠아아앗




그럼…, 이제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갈까….


그다지 볼품은
없지만, 그딴 건
나중에
생각하자….
됐다….

피융

으앗!!

뭐…
뭐야, 넌?
이 녀석이
무슨 짓을…!

나타
났다!!

나….

그럼
계속해서
세계의
날씨입니다….

이…
이 녀석이
셀인가…?

뭐…
뭐야?

셀이
나왔어요!

무천
도사님!

KAME HOUSE

지, 진짜 셀이
텔레비전에
나왔단
말입니다!

와…
와악…!!

자…,
잔인한
놈….

저…
저 녀석이….

빨리
경찰에도
연락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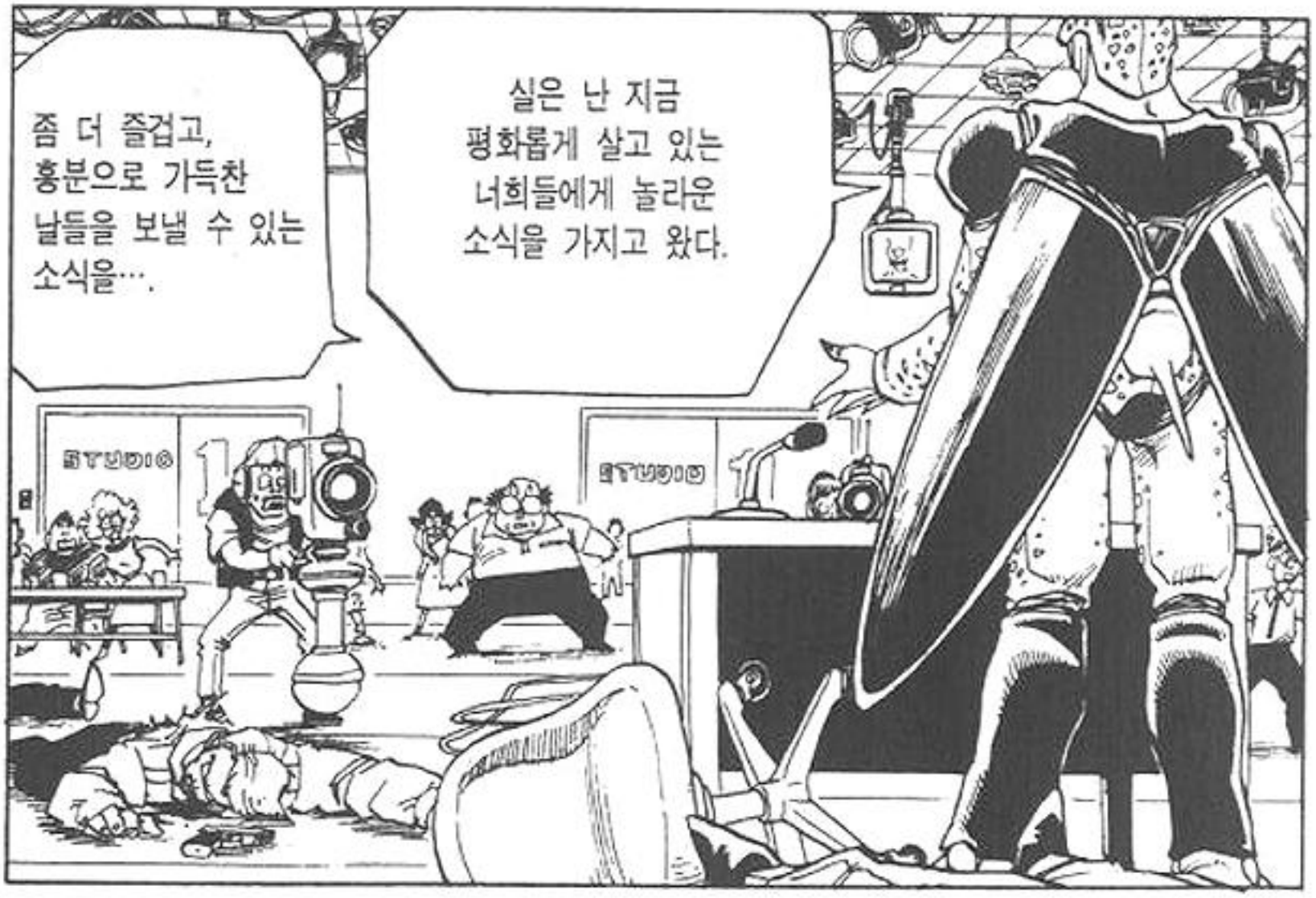
WANTED

겨,
경호원을
불러라!

지금부터
아주 잠시만
텔레비전 방송을
실례하겠다….

WANTED

안녕하신가,
세계의
여러분….


좀 더 즐겁고,
흥분으로 가득찬
날들을 보낼 수 있는
소식을….
실은 난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다.
STUDIO
STUDIO


ZZTV
99
뭐라고
…!?


내
이름은
셀이라고
한다….
너희들은
며칠 전에
많은 인간이
어떤 괴물에 의해
사라진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괴물이
진화해서
변신한 것이
바로 나다.


그때…, 나에게
많은 생체 에너지를
제공해 준
인간들에게
감사한다….
이젠 나에게
생체 에너지가
필요 없게
됐으니
안심해도
좋아….
ZZTV

오늘부터
9일 후인
M17일
정오부터….

와글

와글!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란….

장소는 중부 도시의
북서쪽 28KS
5지점이다.
이미 거기에 링을
준비해 두었다.

「셀게임」
이라는
무술대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선수 수가
많을수록
너희 인간들이
유리해진다.

이우리 내가
강해도 많은
사람을 하면
파괴해질지도
모르니까….

천하제일
무술대회와는 달리
너희 인간들의 상대는
나 혼자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몇명이라도 좋아.

나와는 한 사람씩
대결하는데, 너희들의
대표 선수가 지면
그 다음 선수와
교체하는 것이
경기 방법이다….

그리고 나는 되도록
파워의 강도를
줄이겠지만,
상대가 죽는다 해도
그건 패배가 된다.

규칙은 천하제일
무술대회와
거의 같다.
항복하든가,
링 밖에 몸의
일부가 닿으면
패한다….

만약…,
대표 선수 전원이
나에게 진다면….

뭐,
뭐라고!?

공포에 떠는
얼굴을 구경하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말야…!!

나는
온 세상의
모든 인간을
죽여버리겠다!


저…
저 녀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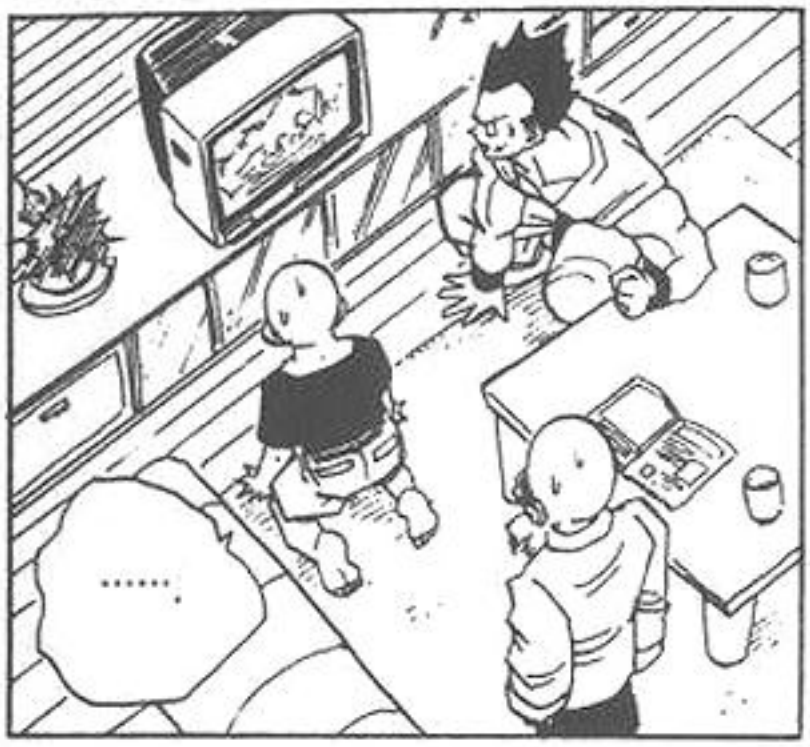

!!


…!


따라서 자기가
강하다고 자신하는
놈들은 전부
참가해 주길
바란다!


휴웃!


쿠아아앙
ZZ
히…
히익…!
이런 꼴이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지.
ZZT
그럼
기다리고
있겠다!


……


파밧


누… 누가
저런 놈과
싸우려 하겠어?
베지터나
트랭크스조차도
힘을 못썼는데….
손오공 역시….
저…,
전 세계의
모든 인간들을
죽이겠다고….


진짜
무서운
녀석
이네….
저런….


당근이지.
한 번 더
그 이상한 방에
들어갈 거야….
지구인이야 아무리
죽어도 상관없지만,
그 자식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섭해서 그런다.


이런,
빌어먹을….
베지터…,
어딜 가는 거지?
혹시 특별 훈련…?

첫….

넌 가기 전에 그 긴 머리나 잘라줄게.

고… 고마워….

머리가 길면 귀찮으니까….

나… 나도 갈 테야…!

또한, 평화로운 세상속에서 허약해진 군대와 경찰로서는 셀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적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한 것이었다….

이 셀의 얘기는 즉시 전세계를 엄청난 공포로 덮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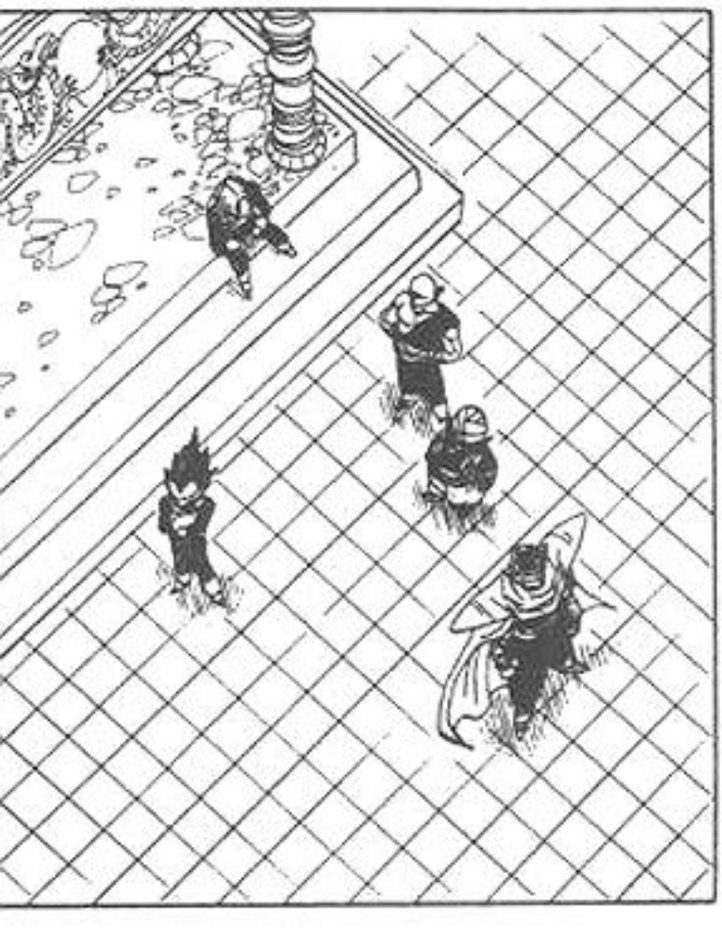
사람들은 잊고 있었다…. 그 옛날, 피콜로 대마왕과 싸웠던 작은 소년이 있었다는 사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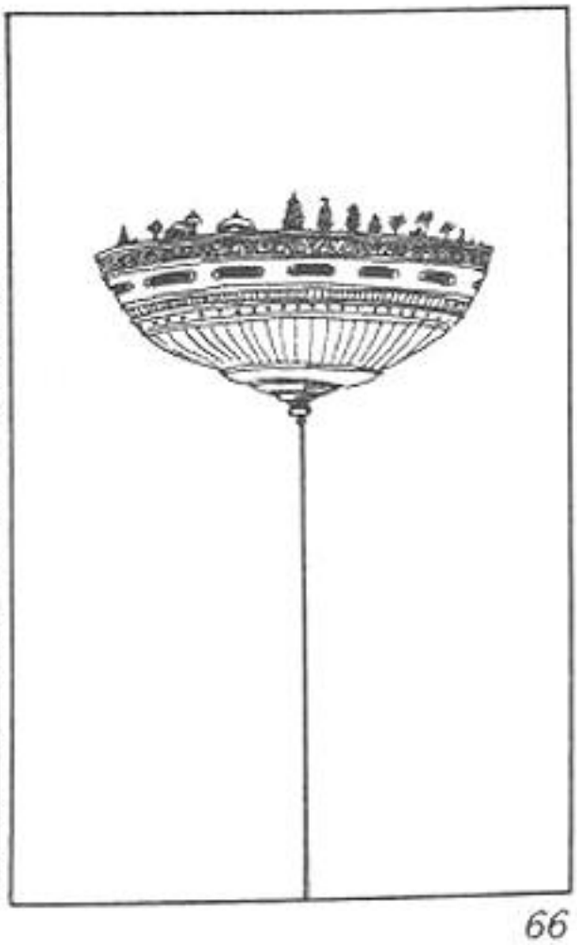




다음은, 제390화 오공과 오반 등장

셀의 텔레비전 방송에
전 세계는 놀랐다.
그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벽지로 몸을 숨기려는 헛된 노력을
시작하고 있었다….
실로 엄청난 공포가 지구에 몰려온 것이다.






흠…. 꼭 하루를 다 채우고 나온다고는 볼 수 없지….
좀더 욕심을 부려 시간을 넘길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공 아저씨와 오반은 앞으로 얼마나 지나야 저곳에서 나올 수 있을까…?
꼬박 하루가 될려면 아직 3시간 정도 남아 있어.


너희들은 방에서 나온 지 아직 하루도 안 지났으니까 좀 쉬라구…. 우선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아직 승부의 날까지는 9일이나 남아 있으니까 서두를 건 없다!


이거 미안하게 됐군. 안 됐지만 저 정신과 시간의 방은 평생 동안 2일간…, 즉 48시간밖에 들어가 있을 수 없어!


뭐, 니 맘대로 해도 좋지만, 남은 8일 동안은 전부 내가 들어가서 수행하겠다!
그거야 말로 진짜 쓸데 없는 시간 낭비야. 이제부터는 초사이어인밖에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라구….

빌어먹을….

하지만…,
우린 아직
20시간 이상은
쓸 수 있잖아.

아니!?

뭐라고
…!?

왜…
왜 이렇게
빨리….

뭐라고!?
그럼 48시간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방의 출구가
사라져서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돼.

그 녀석들,
드디어
방에서
나오는
건가!?

오공들의
기다!


어라!?
역시 베지터와
트랭크스가
있는데….
셀의 기도
느껴지니까
살아있는 것이
분명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재… 재가
오반인가… ?

사…
사실은….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줘.

매우 자연스럽게 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니….

저건 초사이어인인가…!? 아니야. 분위기가 약간 다른데….

저 녀석들 대체 뭐야…!?

그렇게 됐구나….

미스터 포포,
내 도복은
버리지
않았지?

재…
재미있다고…?

무,
물론,
여기
있어.

무술대회
라고….

녀석,
재미있는
생각을 해냈군….

아니야,
난 역시
이게 맘에
들어.

지구인으로
싸우고 싶기도
하고….

나도 새옷이
필요해.
피콜로 아저씨의
옷을 좀….

피콜로
아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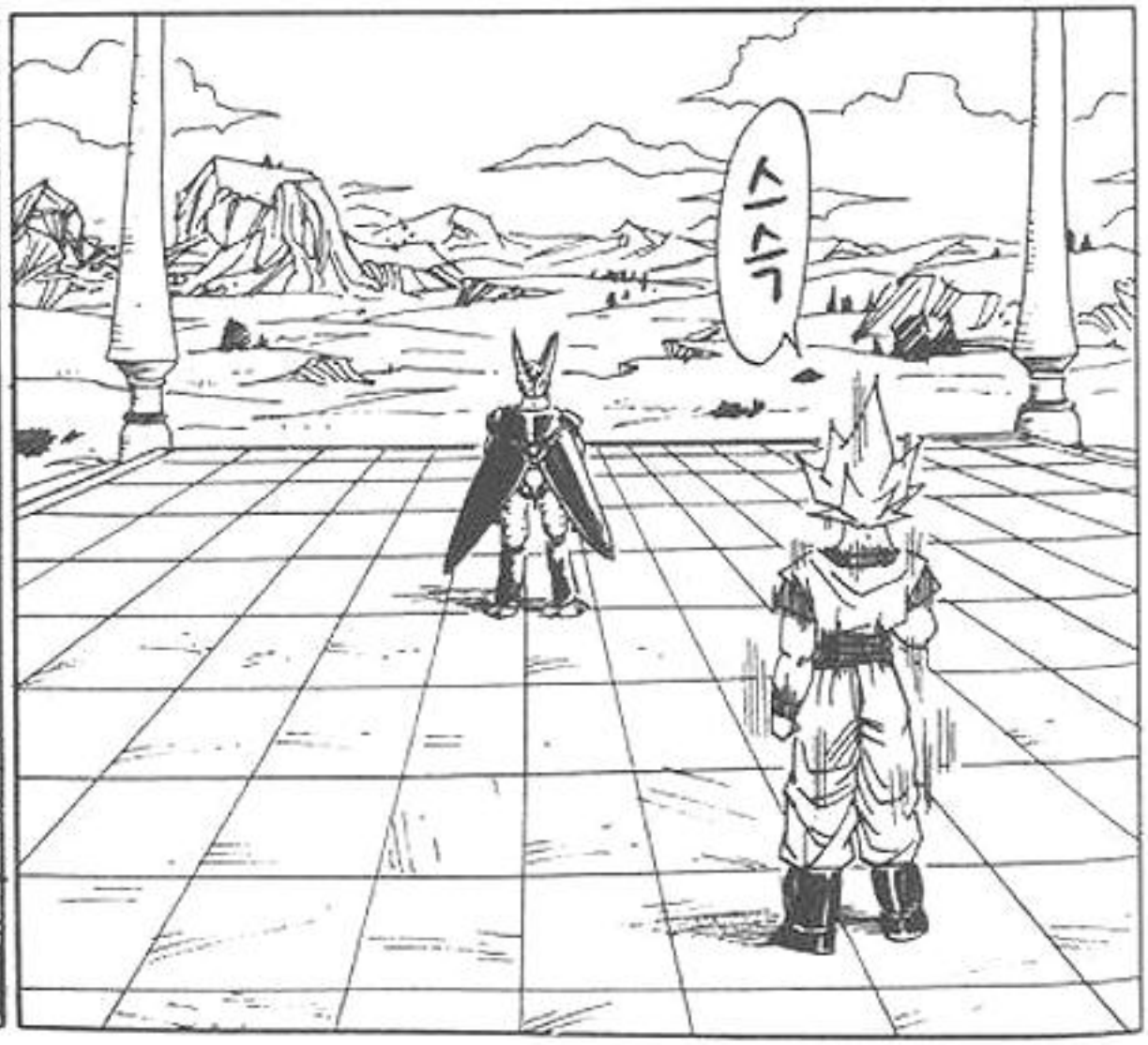
그걸 안 입어도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새 전투복은
얼마든지 만들어
줄 텐데….


알았다…. 죽이게 멋진 옷을 선물하마.
야아!
고마워, 피콜로 아저씨!


그래…, 어때?
셀을 해치울 자신은 있냐?
완전체란 걸로 변신한 셀과 만나보질 못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이제부터 만나보고 올게.
이…얍!
……!
푸스푸


후후,
뭐 장식은
이 정도로 해도
되겠지….




스스

손오공
이나… ?

음,
그렇다.

후후후….

……

어때 ?
여기가 9일 후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설게임의
링이다.

마음에
드냐 ?

운명을
결정하기엔
너무 초라한
경기장인걸 !

그것이 완전체란 거냐…?

드디어 변신 하셨군….

그렇다….

……

씨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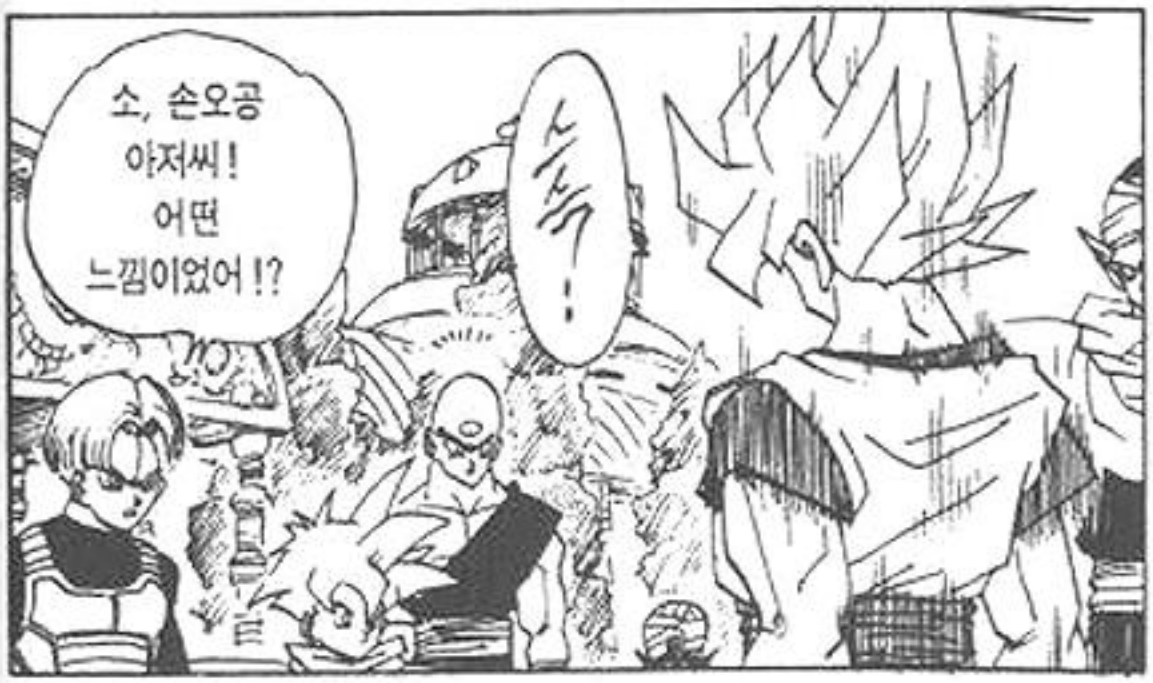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더이상 누구 한 사람도 죽여선 안 돼…. 알겠냐…?

난 분명히 시합에 나갈 거야.




끄느끄


멋진
시합이
될 것 같군.


소, 손오공
아저씨!
어떤
느낌이었어!?
느끄끄!


손오공
이라….
확실히
생각보다
즐거운 게임이
될 것 같네….


진짜 작심을
했을 때 녀석이
어느 정도까지
강해질 수 있는지
짐작도
못하겠는걸….
솔직히…,
저 정도까지
강해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다음은, 제391화 대결전 전의 휴식

그래,
물론이지.

이젠 됐다고!?
그럼 정신과 시간의
방에는 다시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충분히
쉬는 게
좋겠거든.

저 안은
가만히 있어도
상당히 괴로워.

이유가 뭐니…?
아직 꼬박
하루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저 방의 괴로움은
참기 어렵다고
말하는 거냐….

이런, 이런….
그 잘난
카카로트도
드디어….

하지만 너희들이
다시 저 방에 들어가는 게
불만이란 얘긴 아니야.
아직 단련할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더 이상 몸을
무리하게 단련해봐야
그건 고통밖에 안 돼.
그런 짓은 수련이
아니라구….

물론!
상당히
위라고
생각해.

이거 열받는데….
지금 한 얘기는
네가 나보다 실력이
한 수 위라는
얘기처럼
들리네….

뭐라고…?

자, 우리 서로
열심히 수련하자!
그리고 무술대회에서
다시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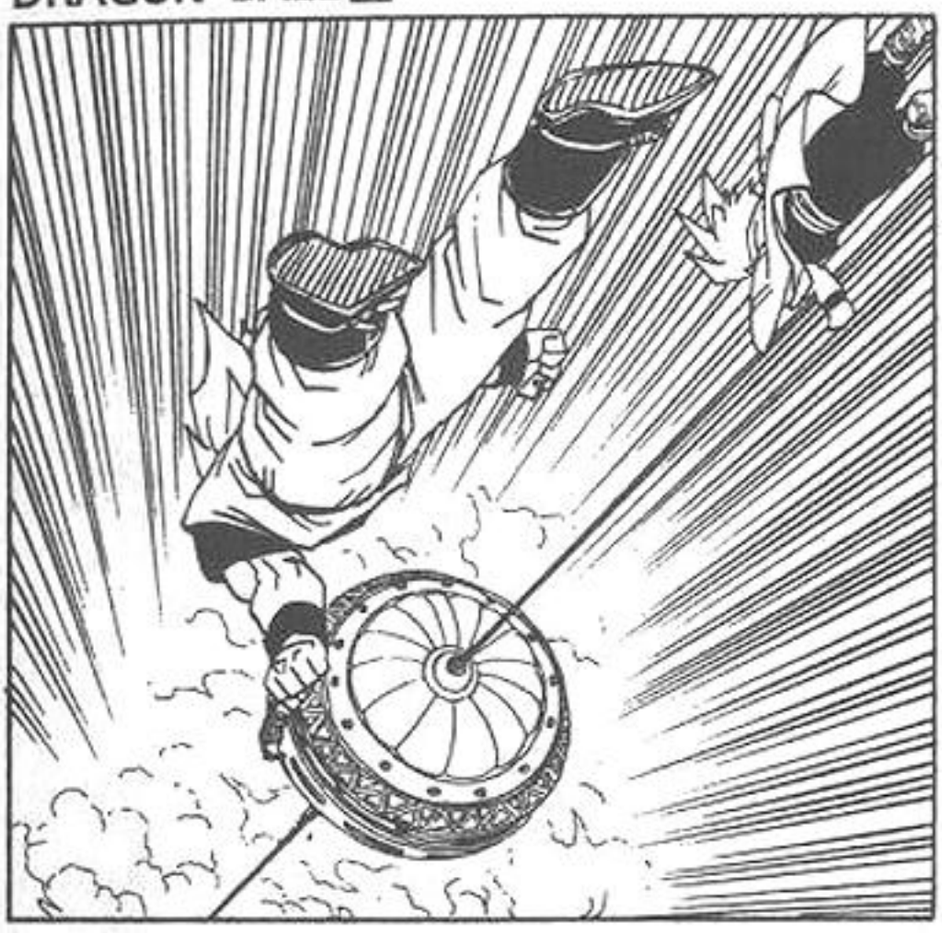
뭐야…!?

파!

파!

오반,
가자!

아,
예!




잠깐
들렀다 가도
될까?


터덕


헉!
헉!

안녕, 카린 님!

아, 안녕하세요. 손오반 입니다.

으음, 많이 컸구나.

안녕, 야지로베! 돌아와 있었구나.

손오공, 뭐 하러 왔니?

미리 말해 두지만,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무술대회에는 안 나갈 거야!

걱정 마. 난 그런 부탁을 하러 온 게 아니야.

그,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하지만…, 워라 해도 난 워큽할 때는 큰 도움을 주니까….

이 지구도 진짜 힘들게 됐구나.

하계는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

셀은 대단한 놈이야.

완전체가 되면서 더욱 완벽하게 변해 버렸다구.

혹시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뭔가 멋진 대발견이라도 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오공의 태도는 상당히 침착한걸….

나…, 난 계속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엑…? 저…, 정말 인가….

글쎄.

아하하하.

그럼 잠시 비교를 해줘.

이제부터 내가 기를 넣어 볼 테니까.

으, 으음….

카린 님, 여기서 봐도 셀의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 대강 알겠지?

진짜 힘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순 없지만,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그래…, 방금 전의 오공과 오반은 초사이어인이었군. 그런데 어쩌지…, 상당히 자연스러운 느낌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련했던 거야….

초사이어인 상태로 있었던 건 분명해….

……

녀석은 그걸 발견한 거라구….

녀석은 그 상태가 최고라고 판단한 거야! 평소부터 그 상태로 익숙해져 놓으면 전투력을 증가시켜도 신체의 부담은 매우 적어진단 말야.

너, 바보 아냐…? 아무 반성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그렇다면….

전투시에는 더욱 엄청난 변신을 한다는…!


핫!!

으앗!!

!!

히익!!

이, 이제
그만 해!
여기가
부서지겠어!

뭐,
뭐지!?

이,
이 기는…!!


큭…!


오…
오공
이다…!!


지금의
기는 대충
반 정도야.
어떻게
생각해?


허억!
허억!
휴~우!


그렇구나
….
아버지는
그렇게 엄청날
정도로
강해진
거야….




바…,
반밖에
안 되는
거라고…!?
지…, 진짜
굉장한
녀석이다….
너, 넌
어디까지
강해져야
만족할 수
있나…!

그…,
글쎄….

곤란한
질문을
하는군….

셀과
비교해선
어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아직은
셀 쪽이 약간
앞선다고
생각해.

역시
그렇군!

내 예상이
맞았어!

고마워,
카린 님!

그…
그 셀이란
녀석이 그렇게
엄청난 놈이란
말야…!?

뭐…!


아, 예… 예!
오반, 가자!
응?


끄응
아니!?


실례 했습니다.
팍


아… 아무리 생각해도 오공에겐 승산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자신감은 도대체…! 단순한 자만심은 아닐 텐데….


저… 저 녀석은 이미 인간이 아니야….
사… 사라졌다….

진짜 사람 속 뒤집히게 만드는 놈이다…. 따라잡았다고 생각하면 다시 멀리 도망가 버리고….

피콜로, 방에 들어갈 거면 빨리 서둘러! 뒷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비…, 빌어먹을 카카로트 자식….

어…, 언제나 똑같아….

언제나 나보다 한발 앞서 가고 있단 말야…!

그곳이 훨씬 편하고 안심되니까.

엄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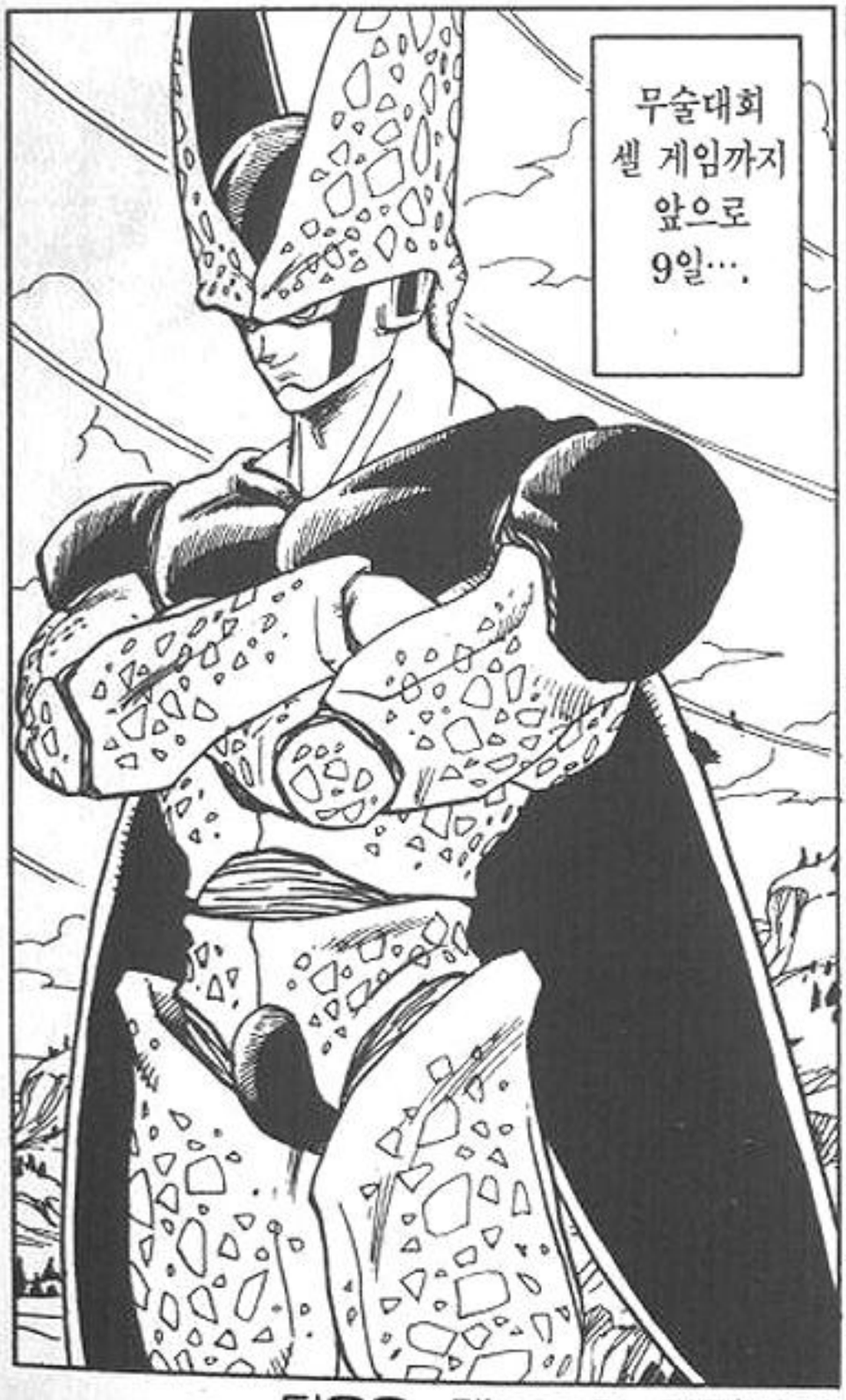
그 다음에 무술대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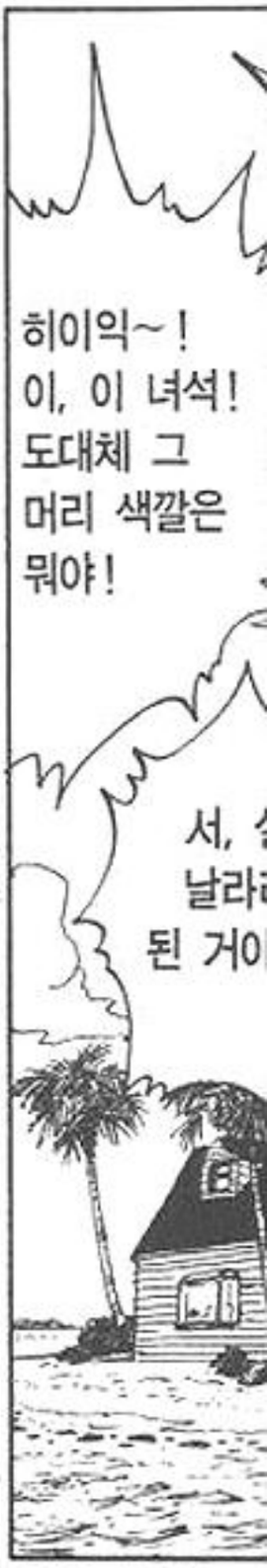
3일 쉬고 3일 특별훈련. 그리고 다시 3일을 쉰다….

팟


뭐,
걱정 말고
엄마한테
가자.




무술대회
셀 게임까지
앞으로
9일….


히이익~!
이, 이 녀석!
도대체 그
머리 색깔은
뭐야!




저걸 봐라!
이 호수엔
큰 물고기가
많겠는걸!




……

아마 어떻게든 될 거야!

걱정 말라니까.

저, 저기. 아버지…. 정말 이렇게 맘 편히 지내도 괜찮은 거야?

내가 말했잖아. 우린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당일치기로 이 이상 수련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

괜찮다니까. 이길 수 있어!

아… 아마라니 …,

……

얘, 오반! 아무 걱정 말고 즐겁게 놀다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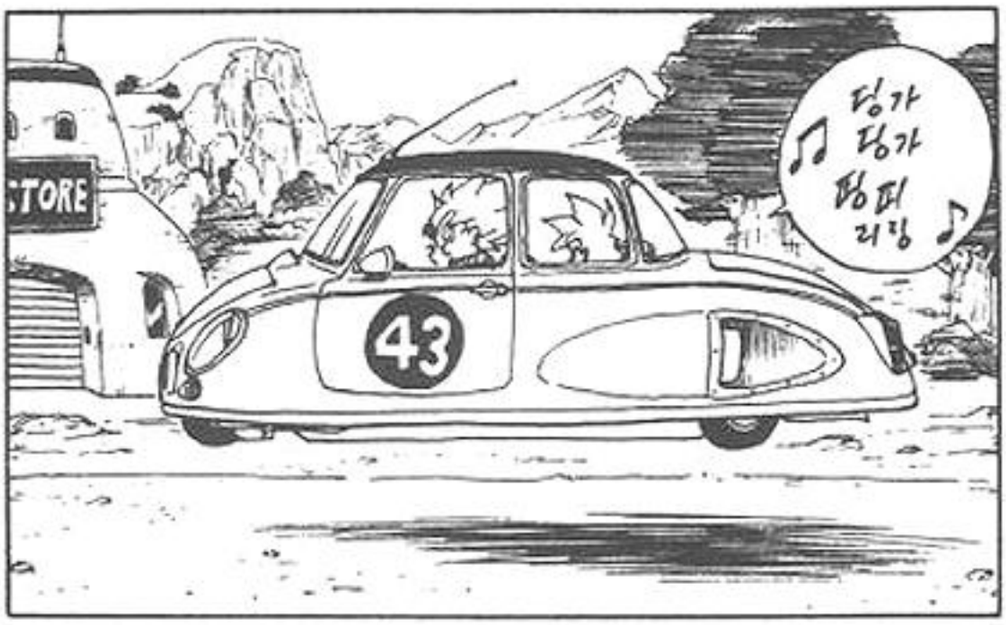
자! 점심 준비 다 됐어-!

식사할 때 정도는 제발 그 초사이어인에서 벗어나줘!

우와~! 맛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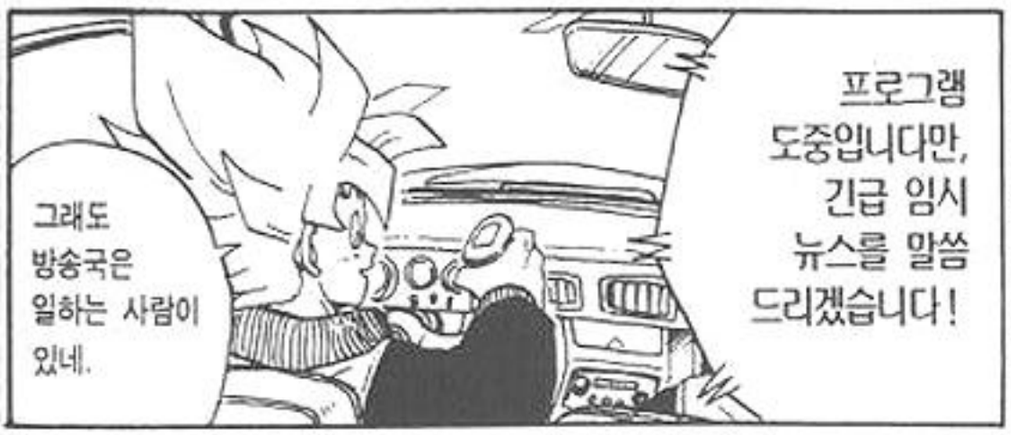
아, 땡큐!

……


STORE
43
딩가 딩가 펑퍼 러빙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어. 모두 휴가인가봐.
그야 앞으로 7일 후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일할 기분이 나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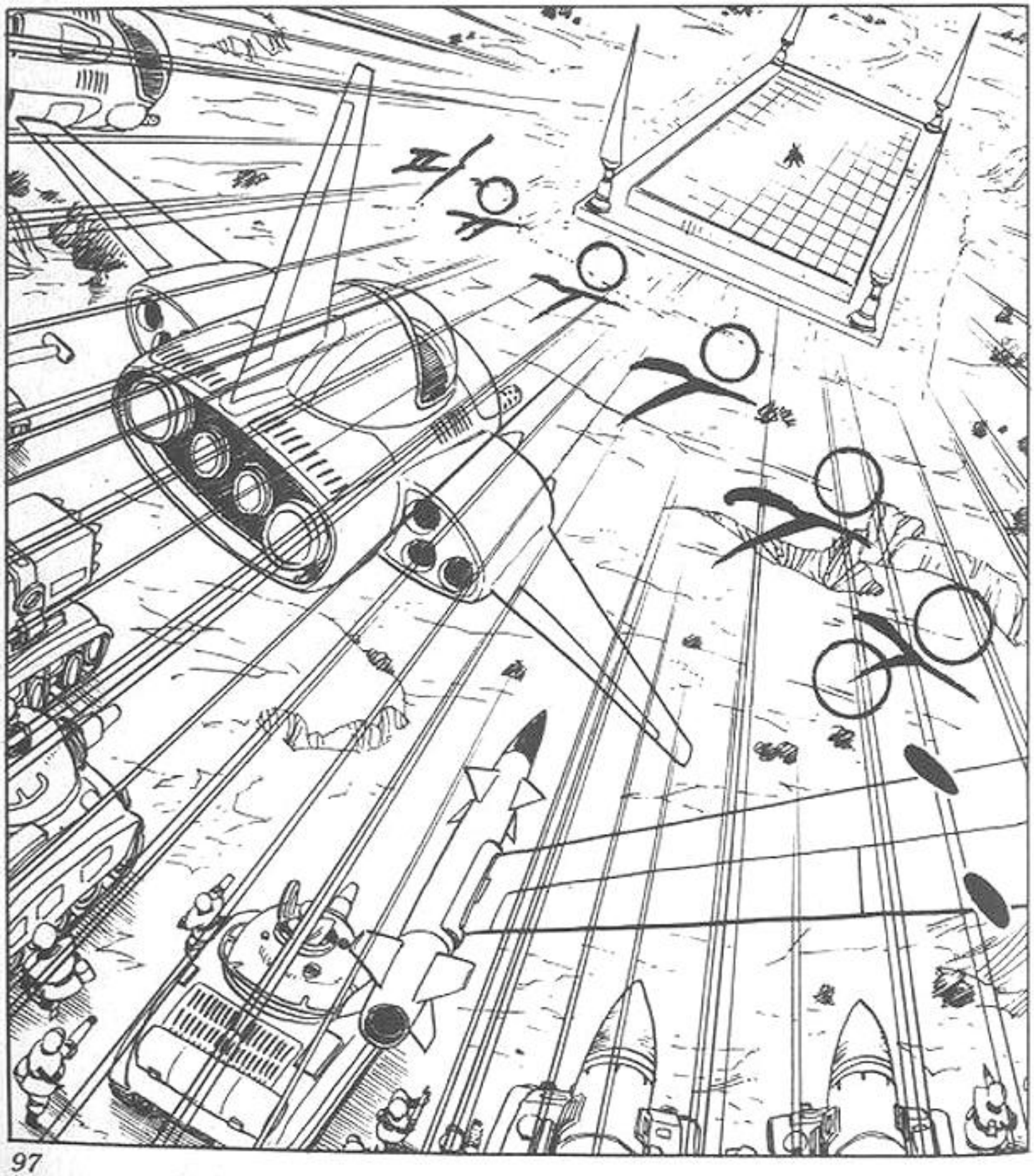

프로그램 도중입니다만, 긴급 임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방송국은 일하는 사람이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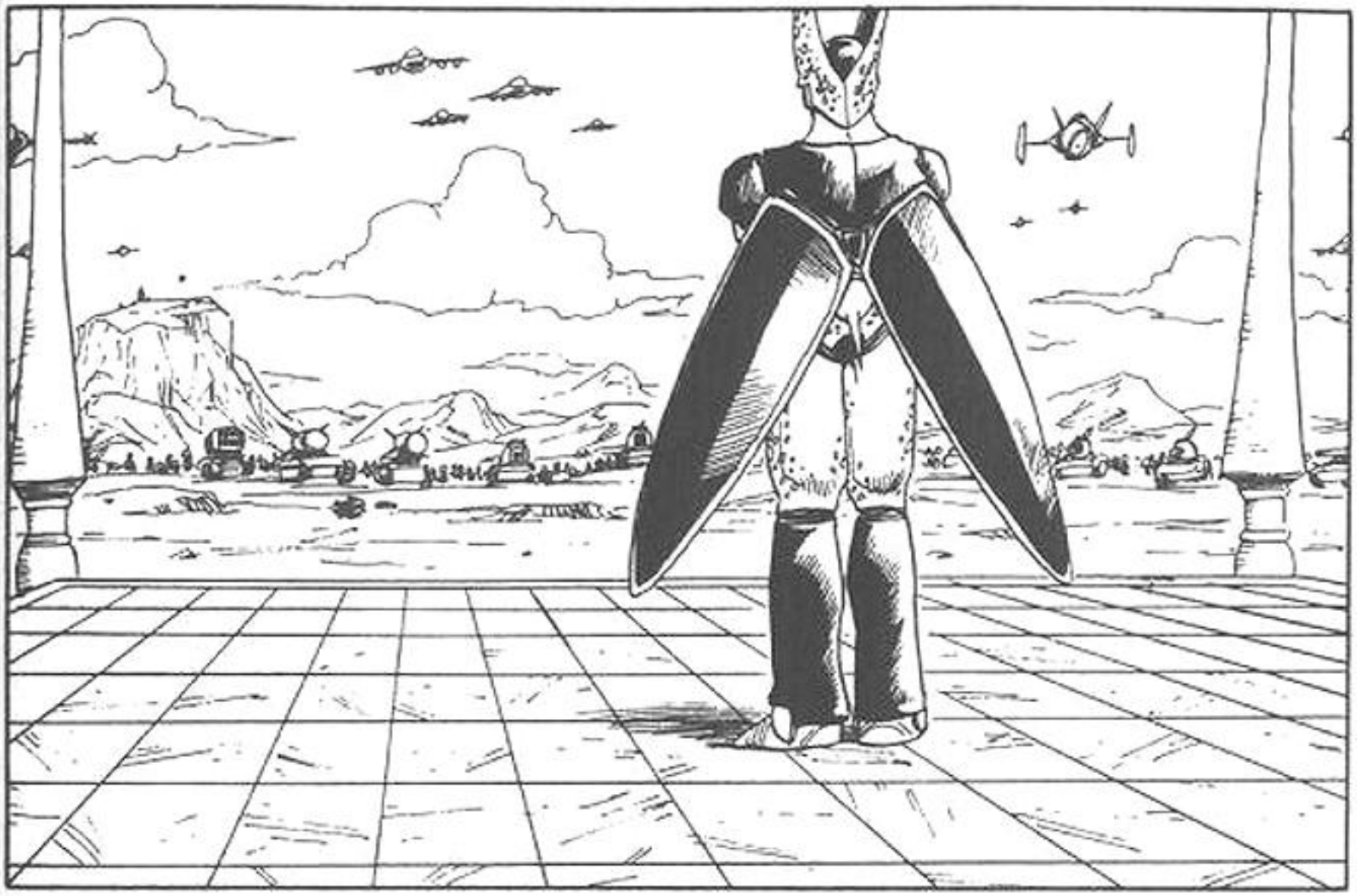

셀이라 자칭하는 괴물을 해치우기 위해 28KS 5지점으로 출동한 왕립 방위군이 곧 공격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뭐야!?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개죽음만 당할
뿐이란 걸 모르냐!?



이, 이런
바보들!
그만두지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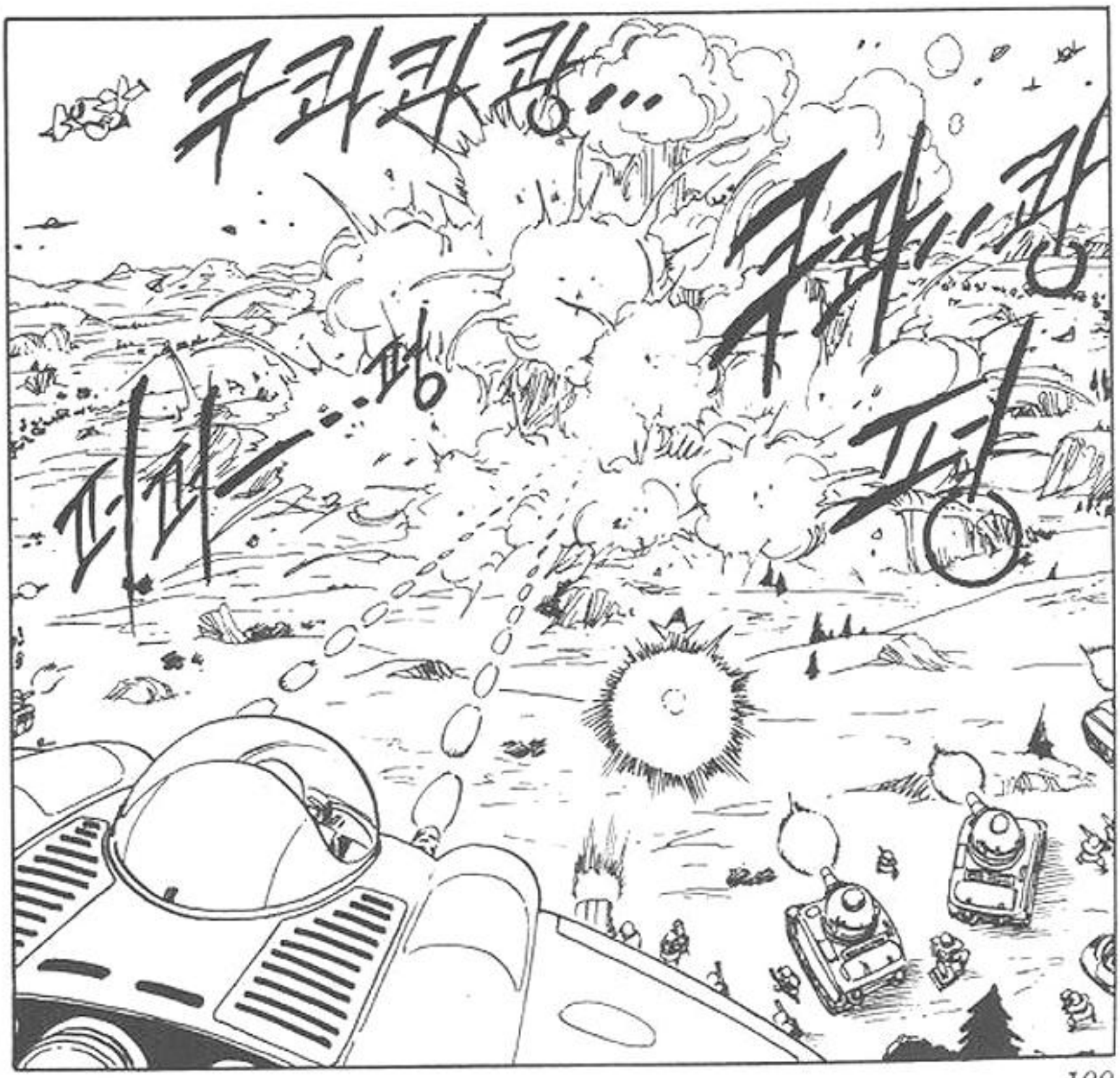

도,
도망친다!

끼
응


잡동사니
군대를 출동
시키다니….
어쩔
씨구리….


놓치지 말고 쏴라! 총공격 개시-!!
띨띨한 놈들! 난 정성들여 만든 경기장을 흠집내고 싶지 않을 뿐이라구.
퍽






엄청난 총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 이 폭발음을 들어보세요!
저, 정말 대단한 공격입니다! 아직…, 아직도 공격이 계속됩니다! 이 정도의 공격이 제대로 먹힌다면 셀이란 괴물은 뼈도 못추릴 겁니다!
후… 후퇴해…, 빨리….
됐다! 사격 중지-!!
그만 해! 이제 놈은 끝장났어!
허억, 허억…. 우… 우하하 하하….
셀이란 자식! 까불다가 꼴 좋게 됐군!!
휘이이잉…
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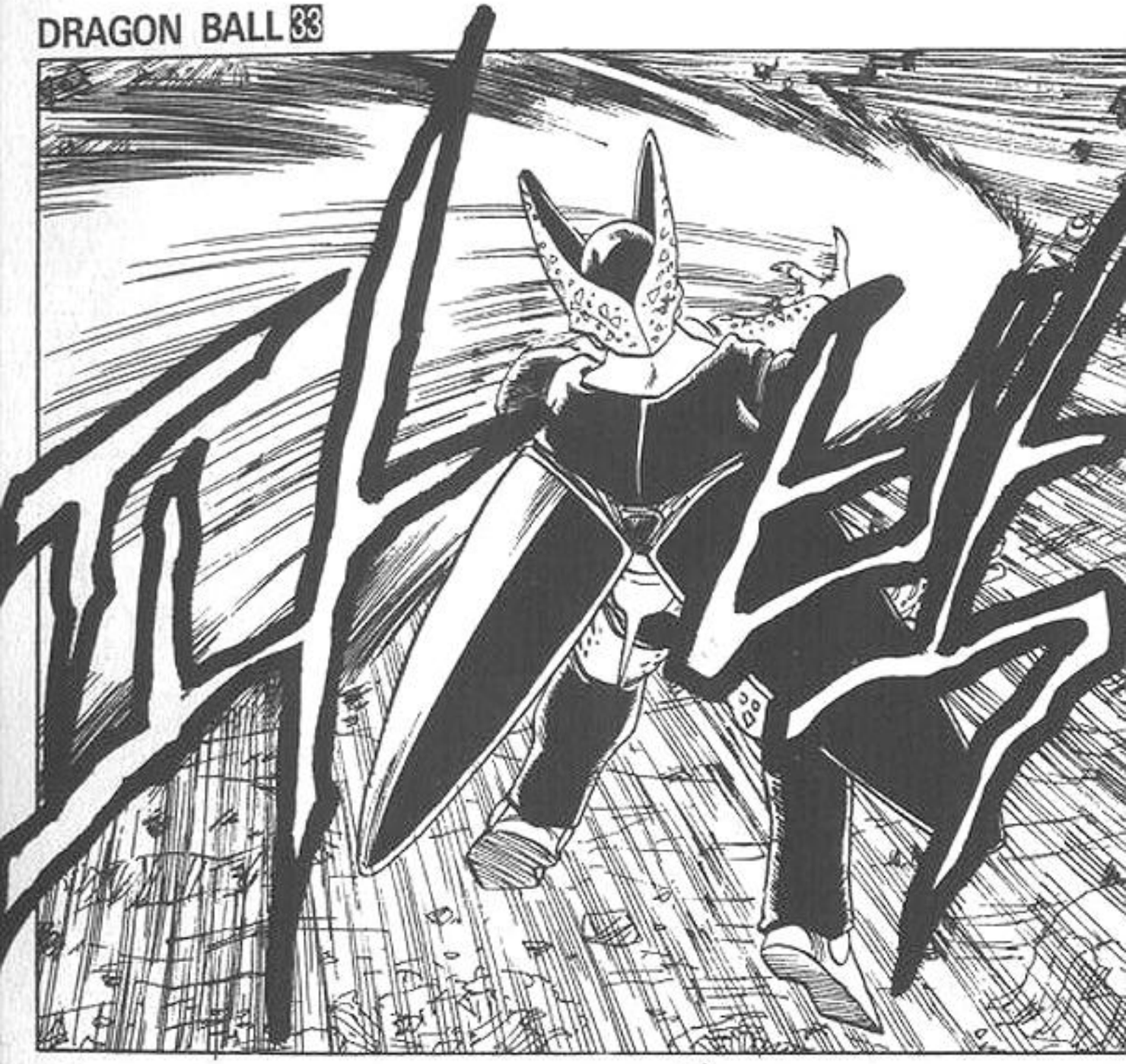

저…
저럴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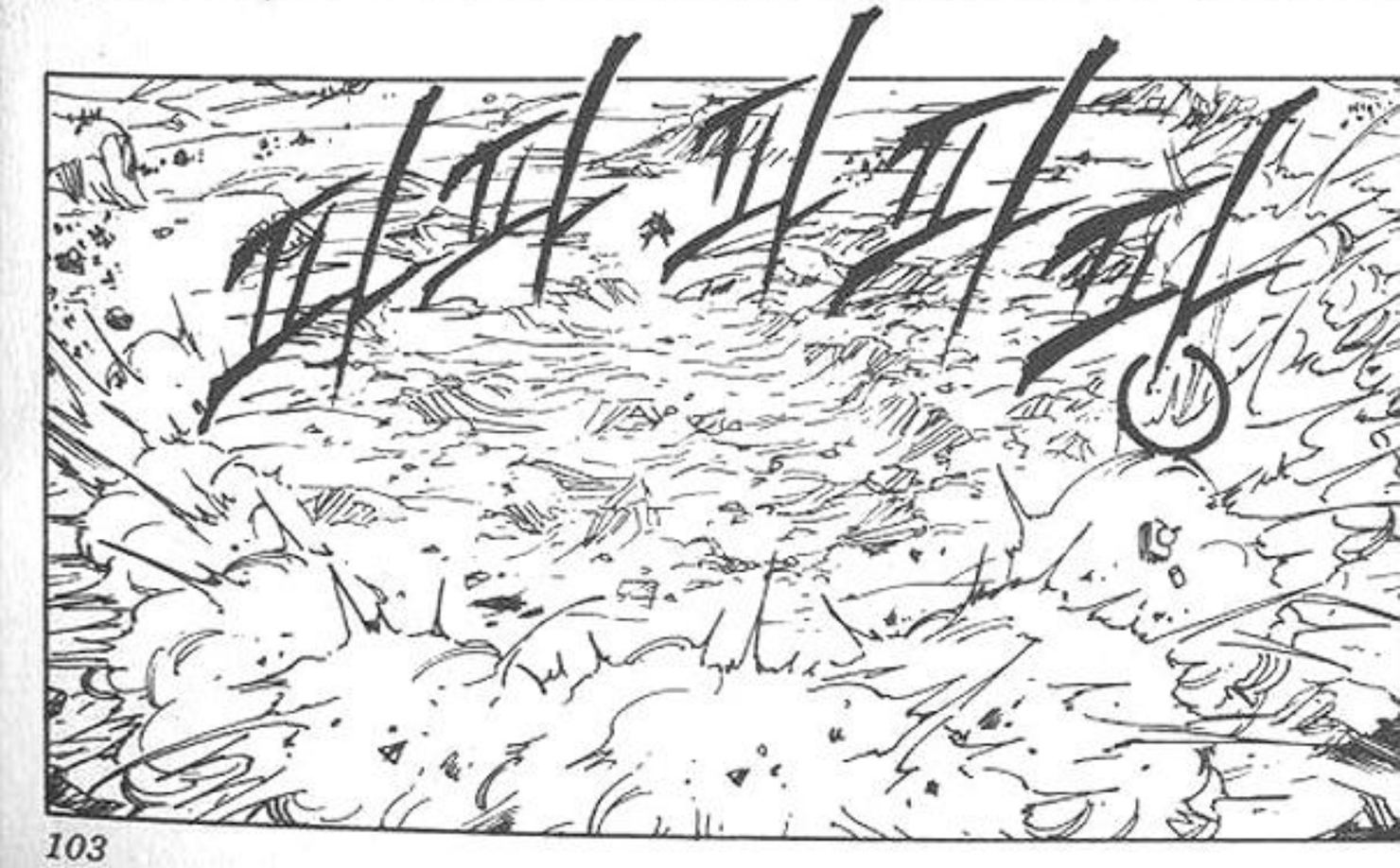

리석은 놈들한테
이젠 내가
벌을 내릴
차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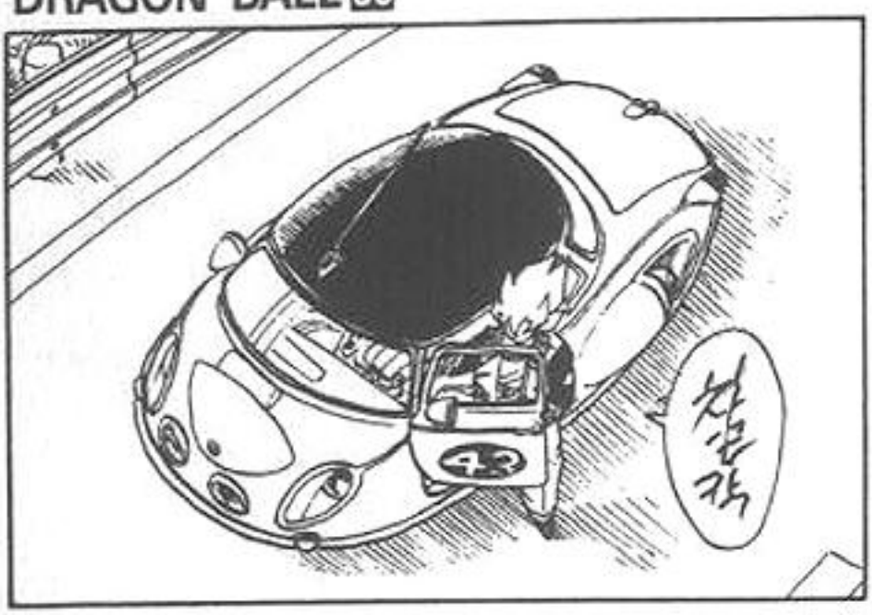

미…, 믿기
어렵습니다!
세…, 셀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으…
으앗-!!






이런…,
빌어먹을….
……
싸악
콰콰콰
콰광….
삐익—.
후후후….
마침
따분했는데,
심심풀이
땅콩은 됐군.


43
찰칵


난 잠시 피콜로를
만나러 갈 테니까,
미안하지만 둘이서
먼저 집으로 돌아가.


피콜로에게
간다니…,
무슨
일이지?
이…
이런….
그…,
글쎄….


43
푸슈슈




아니!
손오공!
안녕!


팟

기가 황상된 걸 느낄 수 있는데!

역시 그랬구나!

그래….

어라?

59

피콜로, 혹시 정신과 시간의 방에 너도 들어갔었니?

오공, 솔직히 얘기하는 게 어때.

응…, 그건 맞는 얘기야.

쳇…. 넌 너무 솔직해서 탈이라니까….

그런데 여기 뭐 하러 왔지…?

강해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셀한테는 새발의 피라고 말이지….

저기…, 피콜로. 너, 신과 합체하기 전처럼 다시 두 사람으로 분리될 수 있어?

뭐라고!?

저기, 신님과 피콜로가 합체했기 때문에 드래곤 볼이 사라져 버렸잖아.

어떻게든 반드시 드래곤 볼을 부활시켜서 셀이 죽인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해…. 아마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게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과의 합체를 굉장히 망설였던 것이고….

그… 그렇군…. 하지만 아쉽게도 그건 무리야…. 한 번 합체해 버리면 다시는 둘로 분리될 수 없단 말야.

내가 어떻게든 찾아 볼까?

저기, 내가 오반에게 듣기로는 생존한 나메크성의 사람들이 어딘가의 별로 갔다던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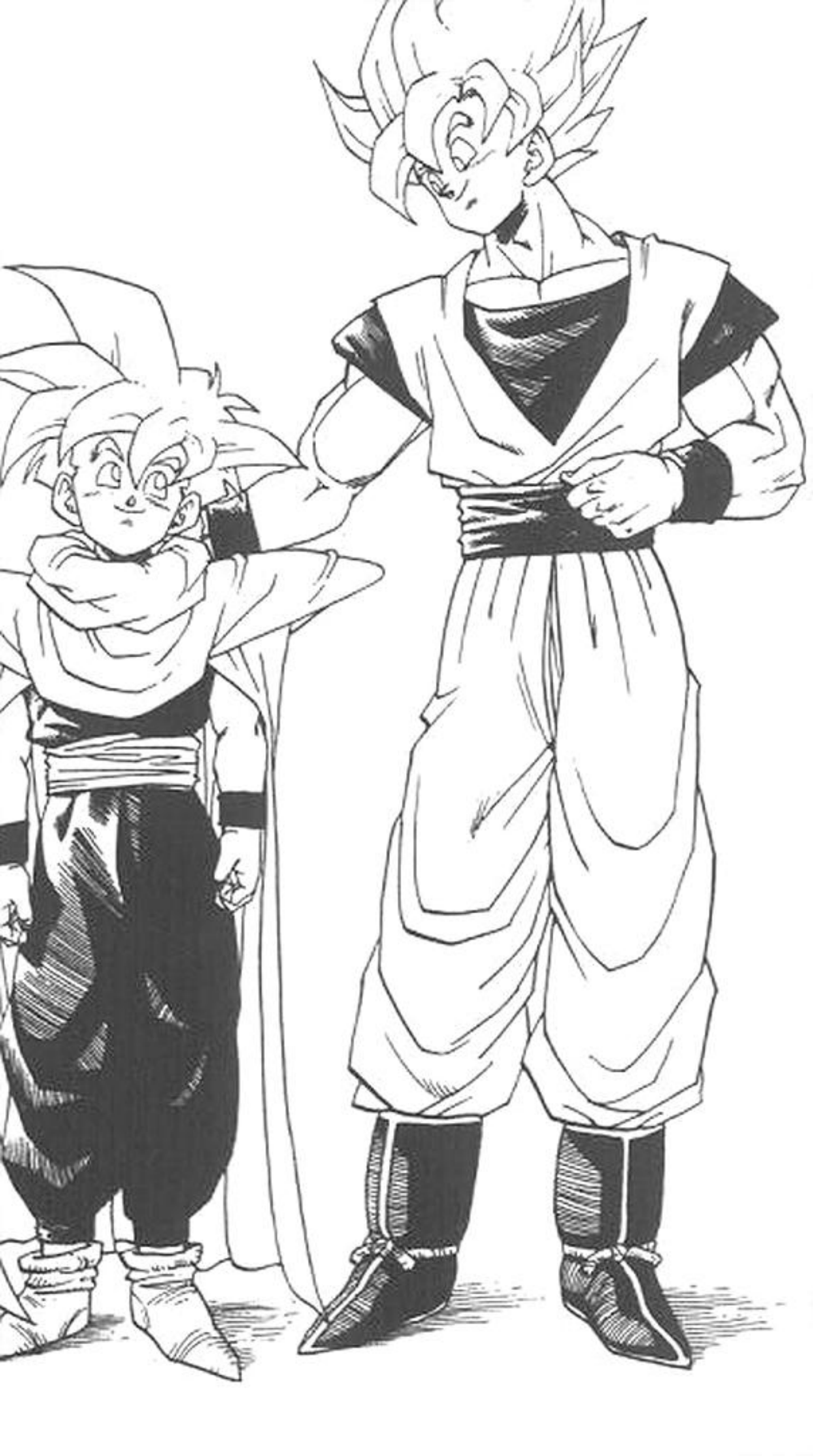
그렇구나….

그래…, 역시 불가능한가….

그렇게 되면 신님도 부활하고, 드래곤 볼도 부활하게 되는 거야!! 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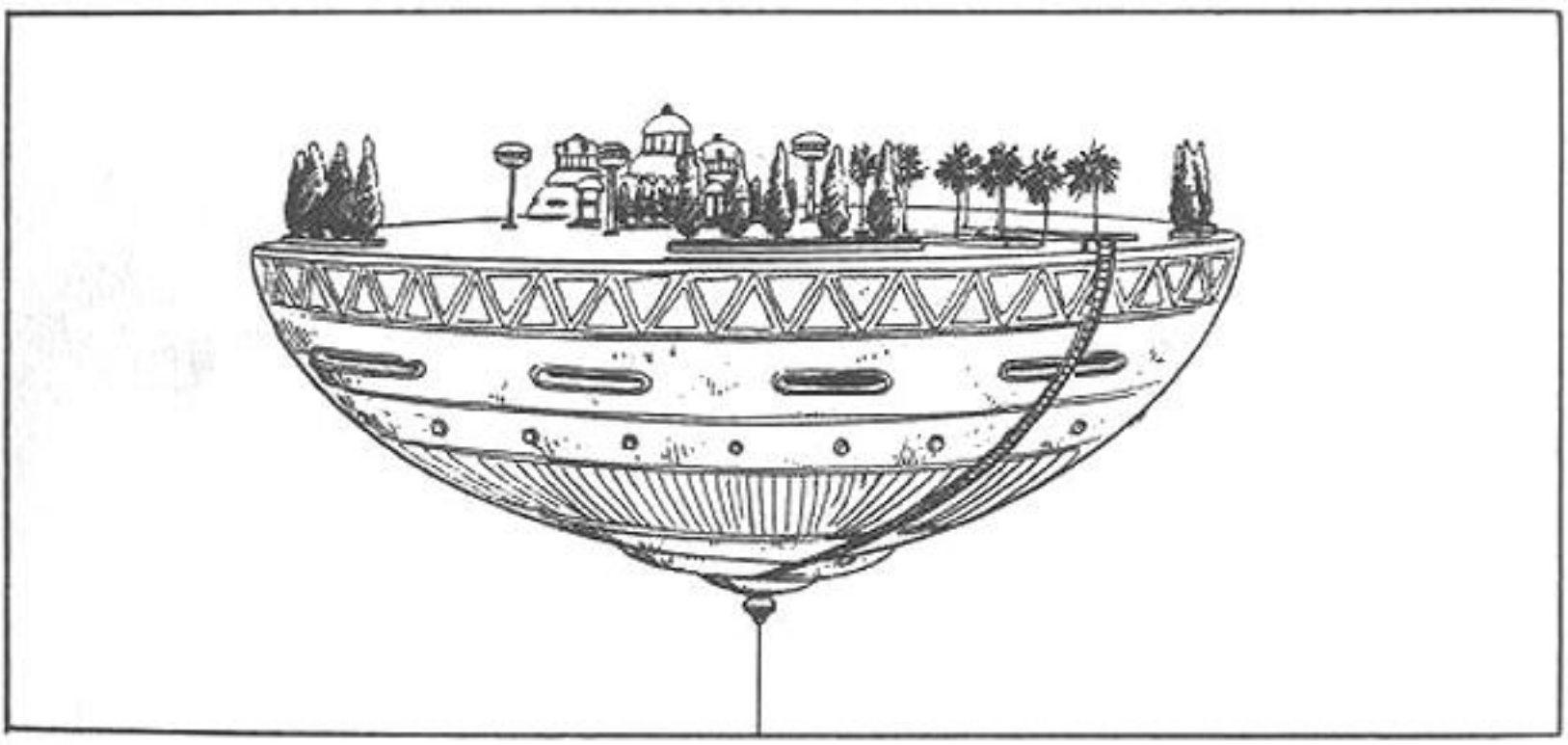
가능하면 그 중 누군가가 계속 지구에 머물러 주는 걸 허락해준다면 좋겠는데!

그렇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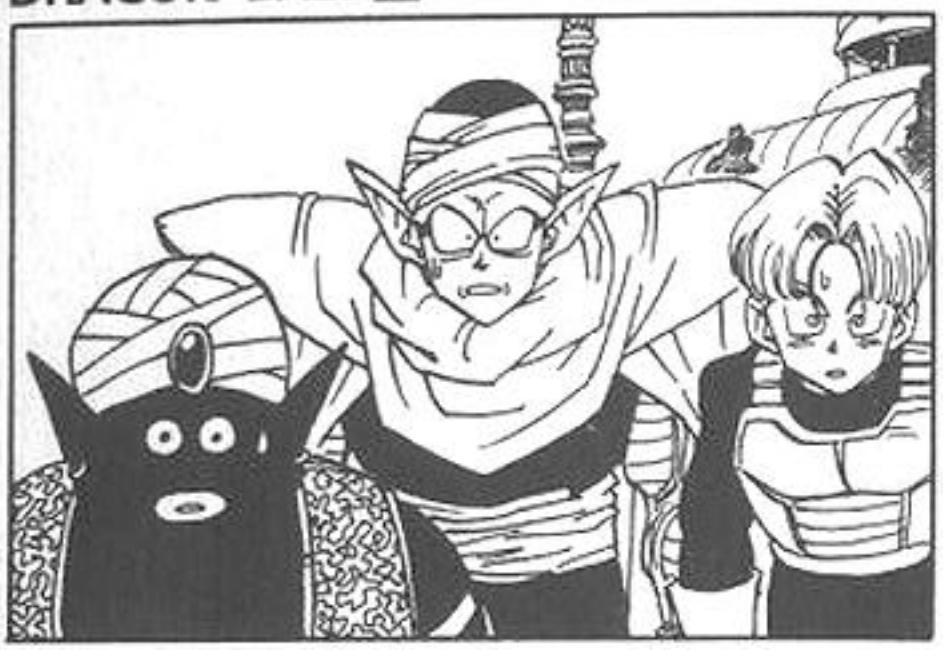
제393화

새로운 신님




하지만 손오공, 어떻게 데리고 올 거야?
어느 성으로 갔는지도 모르고,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새로운 신님이 태어난다면 포포도 너무 기쁜데!
난 지금부터 나메크 성인을 찾으러 갔다 올게!


아마 가능할 거야! 너무 먼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 그렇게 먼 곳의 기까지 찾을 수 있어!?
나에겐 순간 이동 능력이 있잖아!
지금 뭔소리하는 거야!
피콜로와 비슷한 기가 느껴지는 별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나메크 성인이 있는 곳이라구!
잠깐 조용히 해봐….
빨리 해봐야지.
꿀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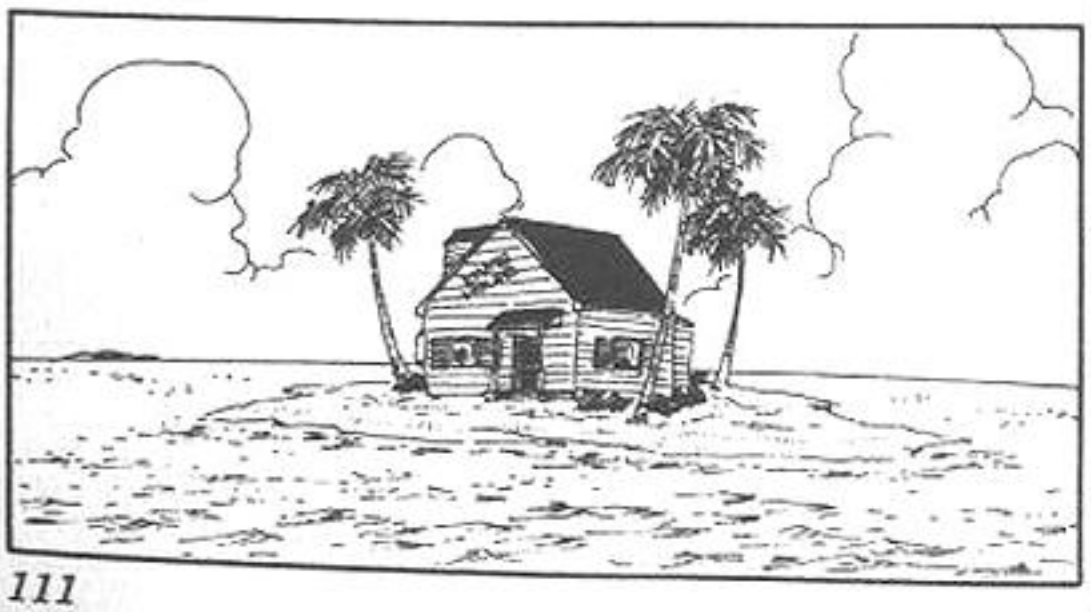



어떡
하지?
미안,
잘
안 되는데….


계왕님…,
계왕님….
자,
그럼….


계왕님이
있는 곳이라면
가능할 거야!
그,
그렇지!


저…
저 녀석은
도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잘 해낼 수
있을까….




찾았다!

scanned by raprnb

바…, 방금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총동원된 우리 군대가 셀에 의해 거의 전멸하다시피 파괴 당했습니다….

아… 이건 모두 저의 책임 입니다….

저…, 전 국민 여러분…. 국왕입니다….

그… 그러나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 이젠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었던 조치는 그 방법 하나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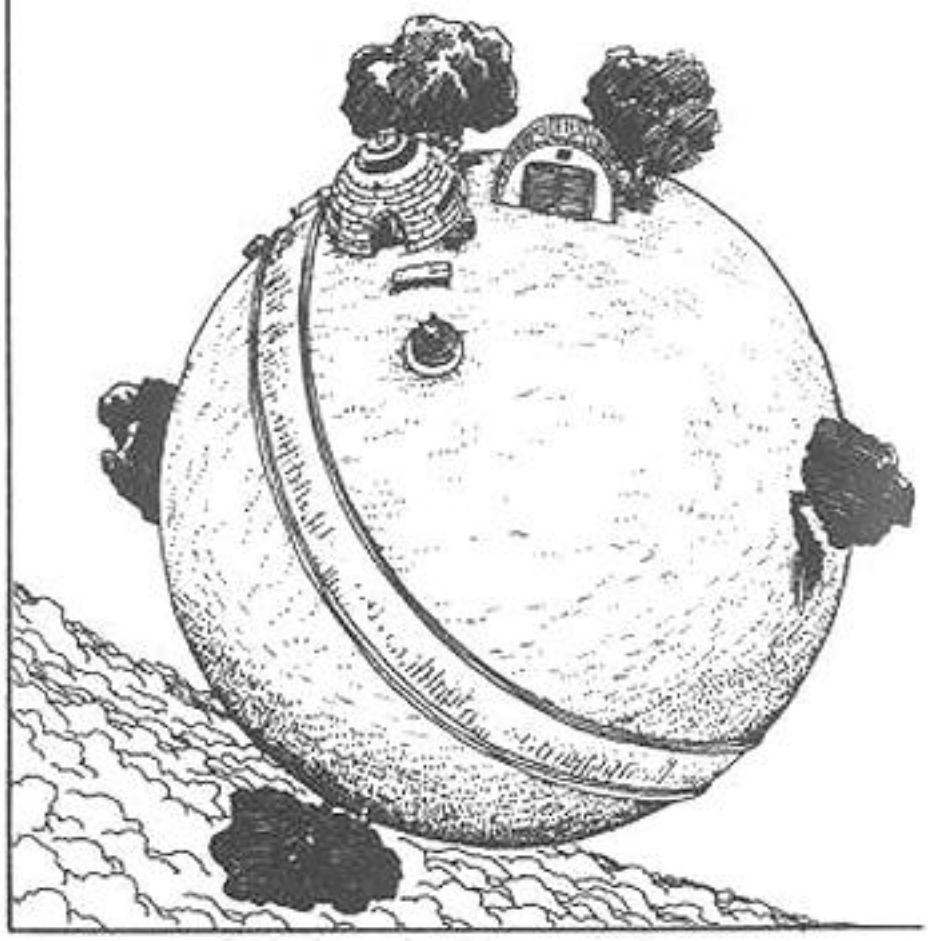
정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런 신은 이제 없어….

우리 모두 신에게 기원 합시다…!

그 옛날…, 피콜로 대마왕을 쓰러뜨린 소년이 있던 것처럼 다시 구세주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파ㅅ






계왕님은
어디
있지…?
어디
보자…




나야, 나.
오공!
계왕님,
잠깐 일어나
볼래?


끼끼끼!
야,
바브루스!
오랜만이다!
잘 있었니?

혼자
팔자
늘어졌군….

챗!
뭐야!

근데 갑자기
뭔 일이야.
놀러 왔냐?

어, 어이!
그건
초사이어인
이냐!

오공!?

어!?

지구만
지켜보고
있을 순
없어!

무슨
멍청한 소리야!
내 담당 구역은
너무 넓어서
무척 바쁘단
말야!

뭐!?

지금 지구에선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
나는 걸 알기나
하는 거야?

59

툴툴…

실은
말야….

시,
시끄러워!
무슨
일인지나
빨리 말해!

낮잠이나
자고 있는
주제에….

59

그, 그렇니?
빨리 얘기해….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뭐,
뭐라고~!!

그래서 혹시 계왕님이 나메크성인이 있는 별을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된 거야….

흠, 흐음….

쑥덕! 쑥덕!

으~음. 그… 그랬었군…. 인조인간 셀이라…. 그놈은 확실히 대단한 놈이로군….

하지만 이상하게도 네 주변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데….

나메크성인이 있는 별의 방향만이라도 알아내면 좋겠는데….

알았어, 해 보지.

움찔

꼭 찾아내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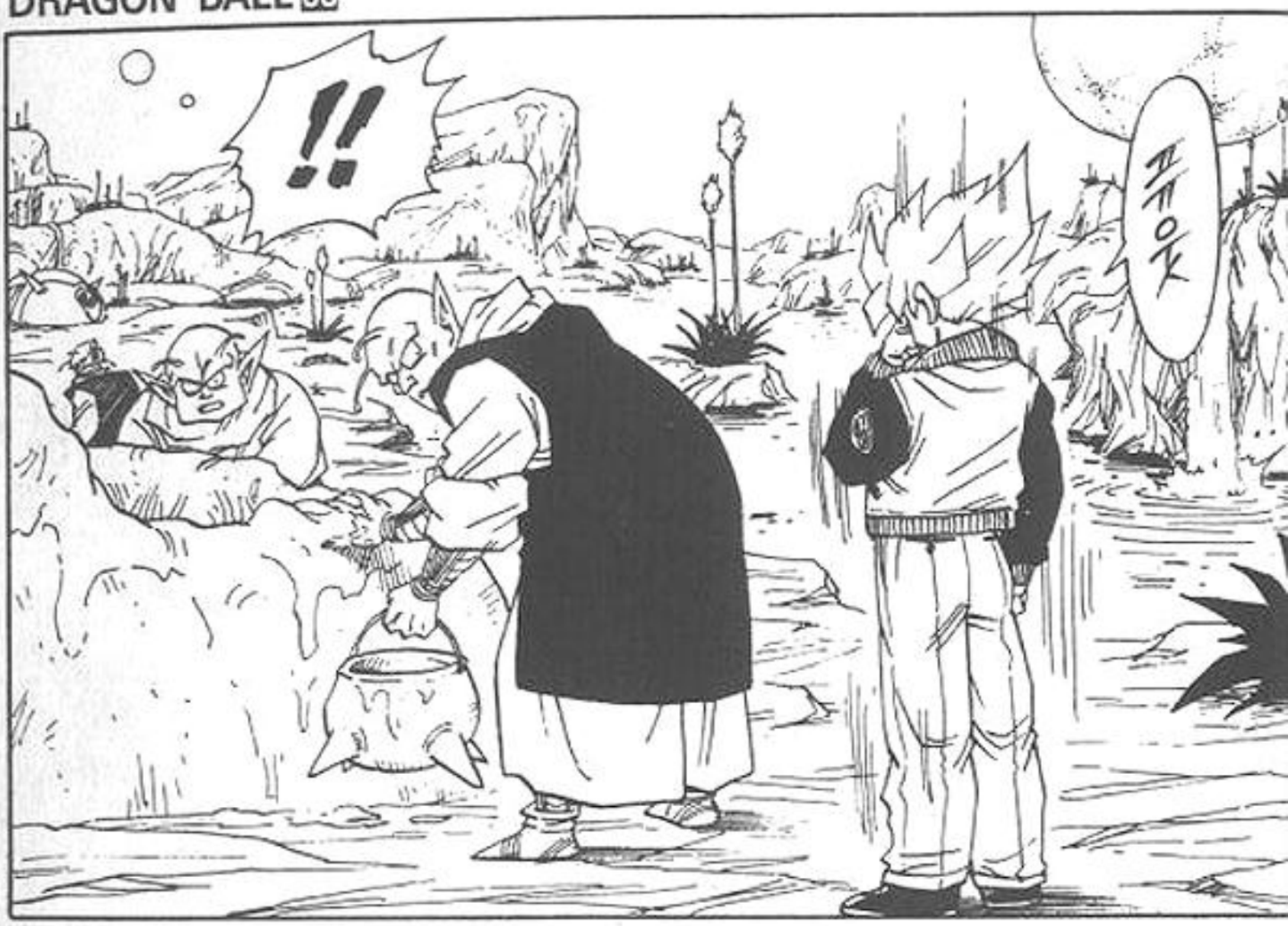
미스터 포포도 말야, 신님이 없으니까 쓸쓸한 것 같고,

내가 봐도 당연해. 그런 외진 곳에서….

입 좀 닥쳐! 조용히 하라구! 시끄러워서 기가 떨어지잖아!



찾아냈다, 찾아냈어! 바로 이쪽이야!
정말 이야!? 땡큐-!
앗!
아무리 멀어도 방향만 알면 어떻게든 기를 잡아낼 수 있을 거야.
순간이동 이라고 했지. 정말 대단한데! 대체 언제 그렇게까지….
그래, 맞다! 야드라트성인한테 배운 거구나! 역시나~.
근데 진짜 편하겠다.
……
조용히 좀 해!
흥! 아까의 복수지롱.
!
됐다! 이 기야! 찾아냈어!
앗!


!!
끄응


뭐지…?
뭐….


대…
대체
넌….
누…
누구야…?


피콜로가
굉장히
많네….
와아….

아하하…. 나메크성은 폭발했지만, 그렇기는 한데….

우리를 구해 주었던 그 손오공…!

와우! 그럼 당신이 나메크성에서 프리더와 싸워….

저기…, 난 지구에서 온 오공이라고 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지구에 와서 신님이 되어 달라고 찾아온 건데….

이런 일 때문에….

와글와글

시끌시끌

덴데, 이리 오너라!

그렇다면 꼭 알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지… 지구라고….

드래곤 볼을 사용할 줄 모르면….

그야 좋지만, 글쎄….

그때 이후로 완전히 지구에 홀딱 반해서 오반과 크리링을 꼭 만나고 싶다고 잠꼬대까지 하던 아이입니다.

예… 예.

잘 좀 부탁한다, 덴데!

그래? 잘 됐다!

걱정 마십시오. 덴데는 이래봬도 우수한 용족입니다.

반드시 훌륭한 신님이 될 수 있다구요!

지구에 평화가 오기를 빌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

모두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 덴데는 우리가 책임지고 잘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계왕님,
일이 잘 됐어!
얘가 지구의
새로운 신님이야.

그럼
다음에!

푸슛

데,
덴데!

팟

잠깐 기다려!
곧 크리링과
오반을 데려
올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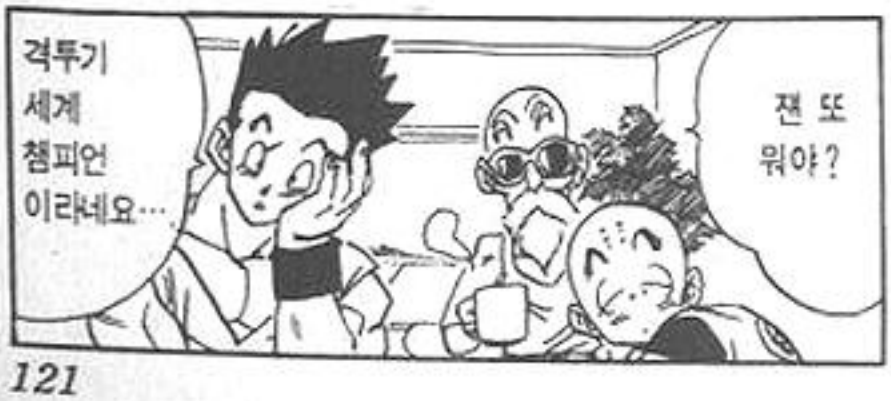

국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 유명한 격투기
초천재, '사탄'도
저 혐오스런 셀게임에
나가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사탄!
사탄
만세!!
우와와-!!


슈퍼
히어로
사탄
입니다!


격투기
세계
챔피언
이라네요…
쟨 또
뭐야?


그건 아주 단순한 속임수야! 사전에 미리 폭약을 장치했을 뿐이라구!


자신 있습니까, 미스터 사탄?
상대인 셀은 군대까지도 전멸시킬 정도로 엄청난 놈인데요!


그런 미친 뺑쟁이 자식은 나 사탄이 반드시 박살을 내주겠다!




얼씨구 …
못말리는 망나니군….


사탄 만세!
와-! 와-!
으윽…

















다음은, 제394화 셀게임 개막

걱정 말라니까!

나메크성에 있던 아저씨가 덴데는 뛰어난 애라고 말했단 말야.

덴데…, 정말 네가….

드래곤 볼을 사용할 줄 아니?

100일 정도 있으면 드래곤 볼은 완성될 겁니다.

100일 !?

그, 그렇게 오래 걸린단 말야…!?

잘 됐다! 그럼 아무 문제 없겠는데!

그런데, 이루어지는 소원은 나메크성 때처럼 세 가지니?

예.

아참! 지구에서 사용되다 지금은 돌이 돼버린 드래곤 볼을 이용하면 금방이라도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처럼 한 가지 소원만으로는 많은 사람을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예를 들어 「셀에게 죽은 사람들을 전부 소생시켜줘.」 라든가….


아니!?
그 정도로
가능한
거야…?


그렇게 되면
이루어지는
소원이
두 가지로
줄어버립니다.
예…?
글쎄요…,
그런 일은 처음
소원을 조정할 때
할 수 있긴
하지만…


미스터 포포!
모형 좀
가져와.
그런데
용의 모형은
있습니까?
알았어요.
예.


그걸로
충분해.
그럼 그렇게
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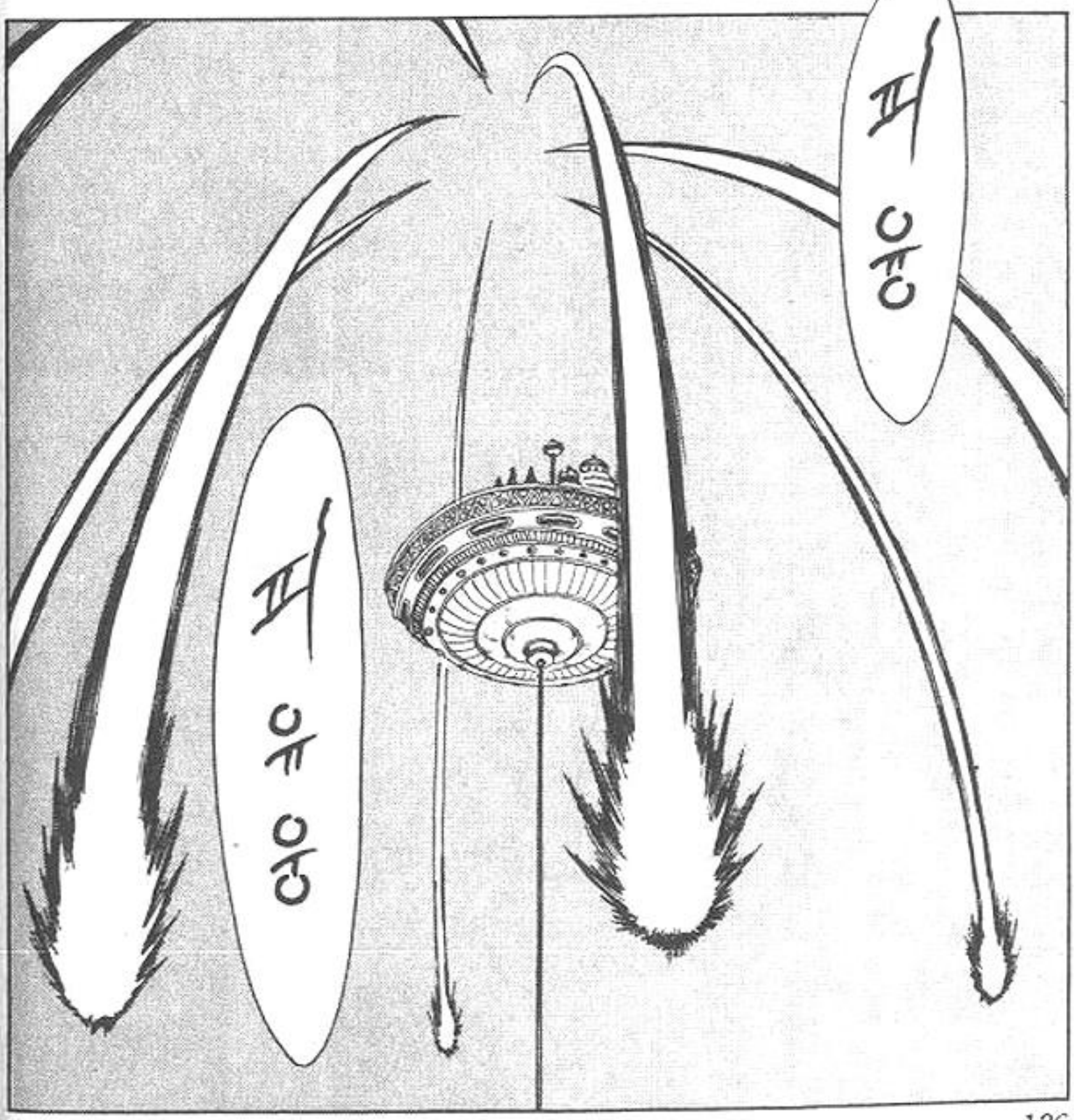

……
중얼
중얼….


달칵…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재밌는
모습을 한
용인데요.






파

후후! 대단하군….
덴데란 너석은 확실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아니,
벌써!?

뭐!?

이제
드래곤 볼은
부활했을
겁니다.

오반아!
넌 이제 특별훈련이
필요 없으니까
셀게임 때까지
여기서 덴데와
놀고 있어.

뭐!?

좋아! 그럼
내가 부르마에게
드래곤 볼
레이더를 빌려서
전부 모아올게!

휴슉

걱정할
필요
없다구.

됐어,
괜찮아.

그럼
난!

그치만….

그….

그런데 왜 저렇게 천하태평이지….

오반…, 넌 혹시 뭔 얘기 못들었어? 오공 아저씨는 확실히 셀이 자기보다 강하다고 말하면서, 약점도 찾지 못했다던데….

이런…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라던데….

나한테도 아무 얘기 안 했어….

완전히 포기한 건지도 모르지…

……

문명 뭔가 승산이 있기 때문일 거야.

그렇지만 저 녀석이 안심하고 있으라는 얘길 하는 건…

기다려…

……

……

그래….

이 인조인간 정말 대단한 구조야. 닥터 게로는 정신이 맛이 갔어도 천재였던 건 확실한데!

그리고 ….

저마다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정말 드래곤 볼로 돌아왔구나!

찾았다!

10일이란 시간이 너무 길었나….

따분한데….

시간은 지나고 있었다….

세상에서는
격투기 챔피언
사탄이 셀과
대결하는
영웅으로서
인류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

NEWS
SATAN

이제
7개 전부
모였어!

됐다!

마침내
지구는 운명의 날
M의 17일을
맞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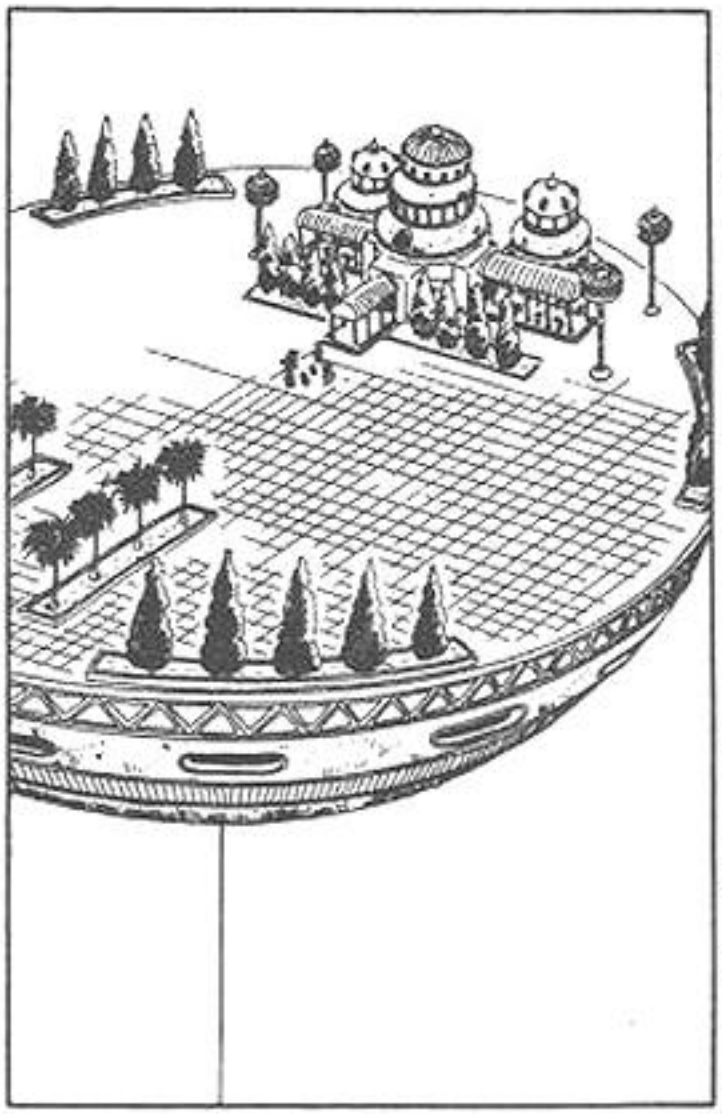

좋아!
이제 가볼까나!
스윽
쑤욱
꾹


설마 오반은
싸우지
않겠지?
뭐!?


죽지 않게
조심해 싸워,
손오공!
알았어,
걱정 마.


오공!
그럼
갔다 올게!


오반은
싸우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거…,
저…,




싹…
싸울 지도
오르잖아…
오반
까지도…


휙슈슈


어라, 베지터는?
이제 가자!
드디어 왔구나!
팟


기운이 넘치네.
그래?
실력이 좀 늘었나봐.
한 발 먼저 갔어….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드래곤 볼 말야…. 원래는 한 번의 소원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났었잖아….
오… 오공! 큰일났어….
그렇게 하면 옛날처럼 이미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대….
왜 그래, 모두들…? 왜 그렇게 시무룩하지? 긴장하는 거야?

12시가 지나겠다!

걱정 말라니까! 빨리 가자!

사, 상대는 완전체 셀이란 말야…!

주…, 죽지 않는다고…?

우리들은 죽지 않으면 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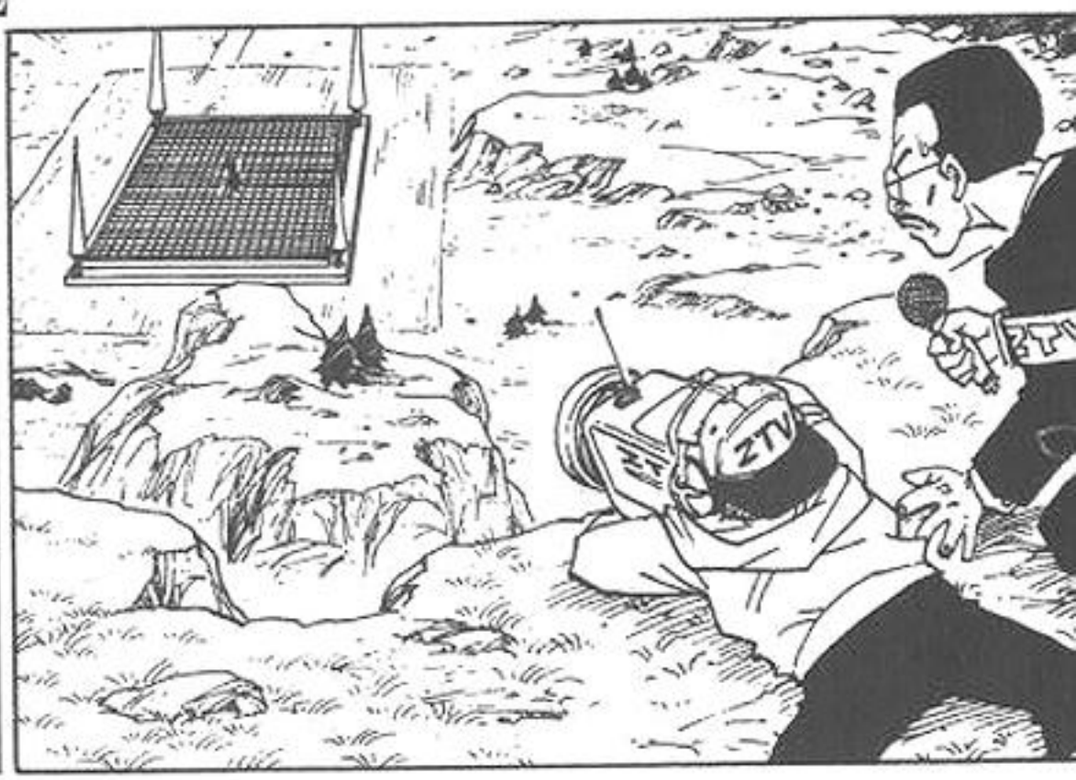
그거였어 – !? 걱정 마, 덴데!

헤이이이잉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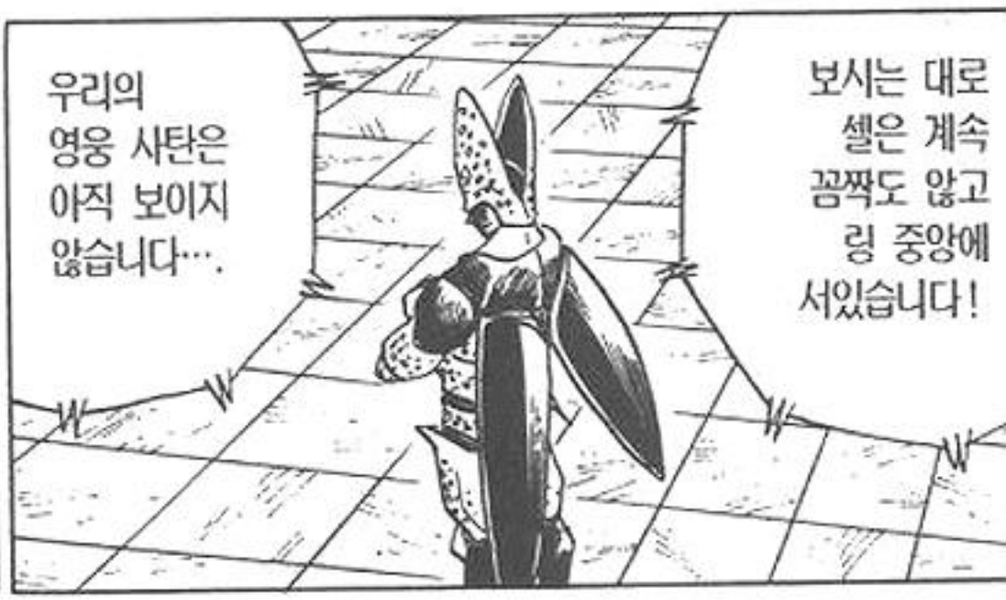
빨리 와라, 손오공….

드디어 오늘이군…!

지구의 운명을 건 셀게임까지 앞으로 20분 남짓 남았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자칫 싸움에 말려들까 두려워하는지, 근처에는 관중이 한 명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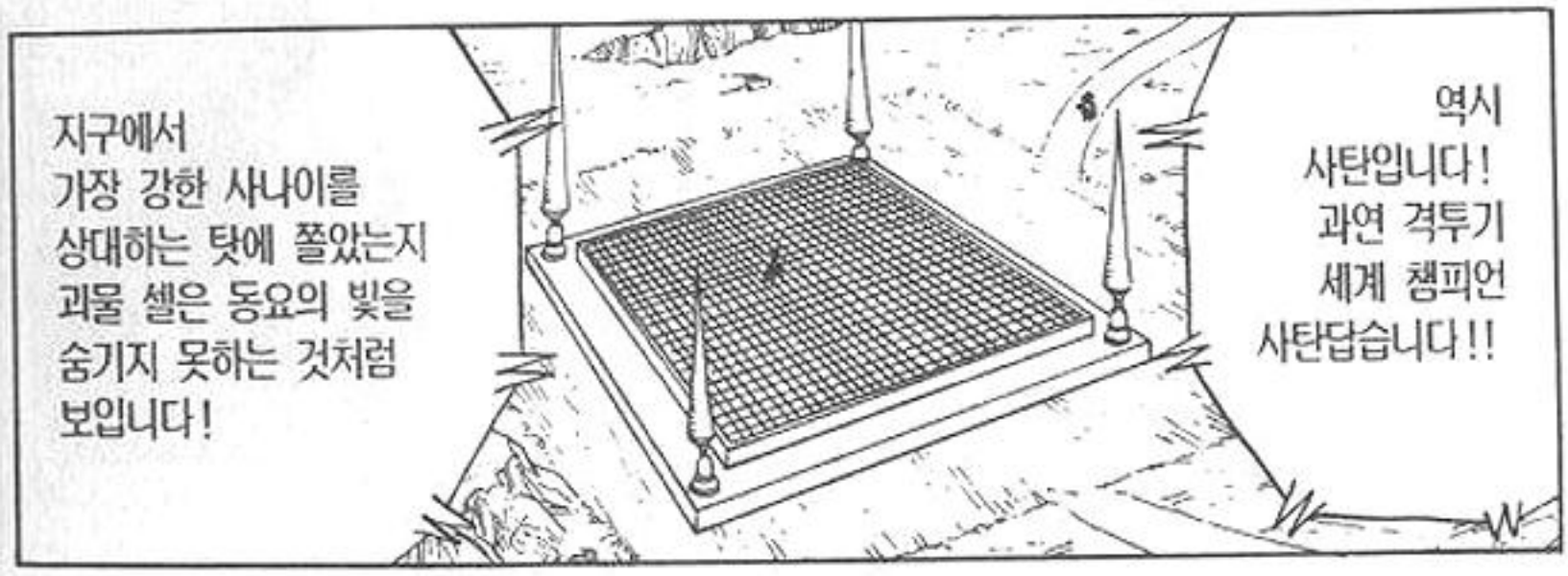
사탄-!
사탄-!

와-!! 카메라를 향해
번쩍 주먹을 들고
전 세계 인류의 뜨거운
응원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부우웅…

후후후!
녀석….







다음은, 제395화 전 멤버 집합!!

미스터 사탄은
너무도 빨리 링에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앗-!
미스터 사탄,
아직 셀게임 시작까지
12분 정도
남아 있는데….

ZTV

ZTV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과연 지구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나이!!


아니!?
스스윽윽
이… 이거 정말 난처한 일인데….
쓰덕쓰덕
내… 내려 오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한테…!
지… 지금 실로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경기장에 세상에서 가장 용기있는 아나운서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이 긴박감이 넘치는 화면을 보십시오.
더, 더구나 미스터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니 겁낼 것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내려갑시다! 우리도 프로들이니까 용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벌떡
내가 곁에 있으니까 안심해라.
저… 저기…, 저도 링 위로 올라갈까요…?

녀석!
너무 허풍을
떨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꼬리를 내리고
취소할 수도
없을 거라구!

계획에 차질이 생긴
셀에게 동정을 보내겠다!
저 녀석도 설마 나 같은
강자가 세상에 존재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야!

미, 미스터 사탄!
지, 지금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와
와
STV
하하하!!
잘한다,
사탄!
멋지다!


팡
팡
와하하-!
저 녀석은
내 엉덩이에도
못따라온다구!


저…
저건…!?
응?
무슨
일인데?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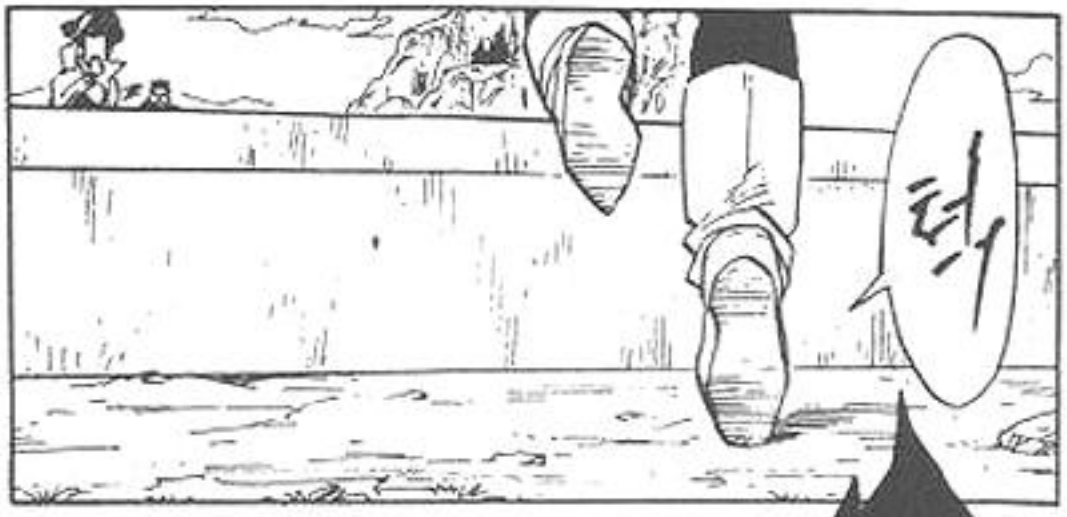

……
저놈은
까불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베지터 녀석!
역시 분수를
모르고
다시 오다니.
파워는 좀
올라간 것
같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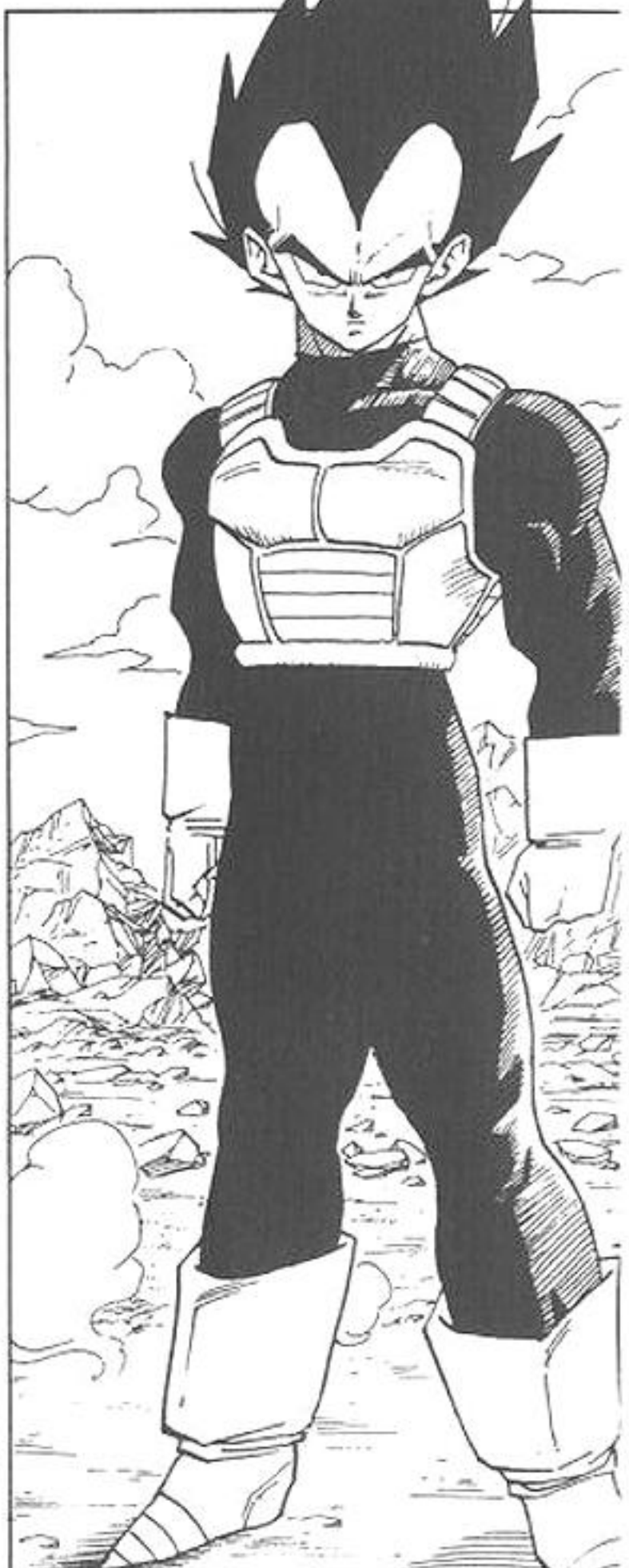

휘
잉
저…
저게
도대체
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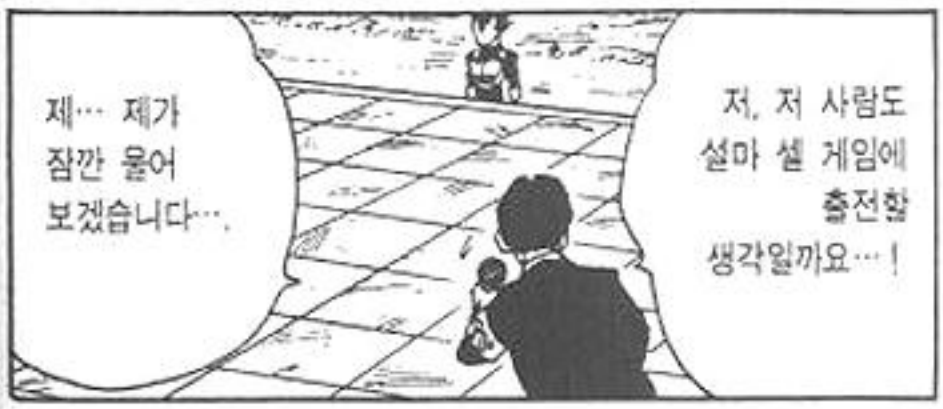



턱


저… 저기…,
지금 갑자기
이상한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하… 하늘을
날아온 것
같습니다….
저건
사기야….


제… 제가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저, 저 사람도
설마 셀 게임에
출전할
생각일까요…!

저리 꺼져!

다시는 나한테 말 걸지 말라구.

저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죠…? 구경꾼이라면 위험하니까 떨어져서 구경해요.

헤어스타일도 이상하고….

저 사람은 단지 약간 맛이 간 사람인데요.

후우…. 저런 너석이 제일 문제야. 방해만 되고 말야.

……

예상대로 셀과 싸우려 하는 사람은 미스터 사탄,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미스터 사탄은 격투기에서 세계 최강의 챔피언입니다! 미스터 사탄만 있으면 충분할 거라구요!

여러분-! 드디어 5분 남았습니다! 앞으로 5분 후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구의 운명을 건 셀게임이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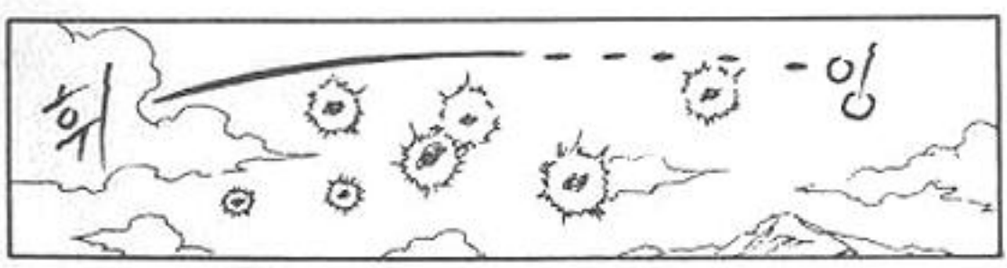

타!
아니!?
또… 또
한 사람이
날아왔어….
저…
저 녀석도
사기야….
이거
놀라운데.
16호잖아….
……


힐끗


흥! 어쨌든
둘 다
별볼일 없는
녀석들
같군….
세…. 셀이
저 사람에게
아는 척을 하는데
서로 잘 아는
사이일까요…


워?
아니,
저…
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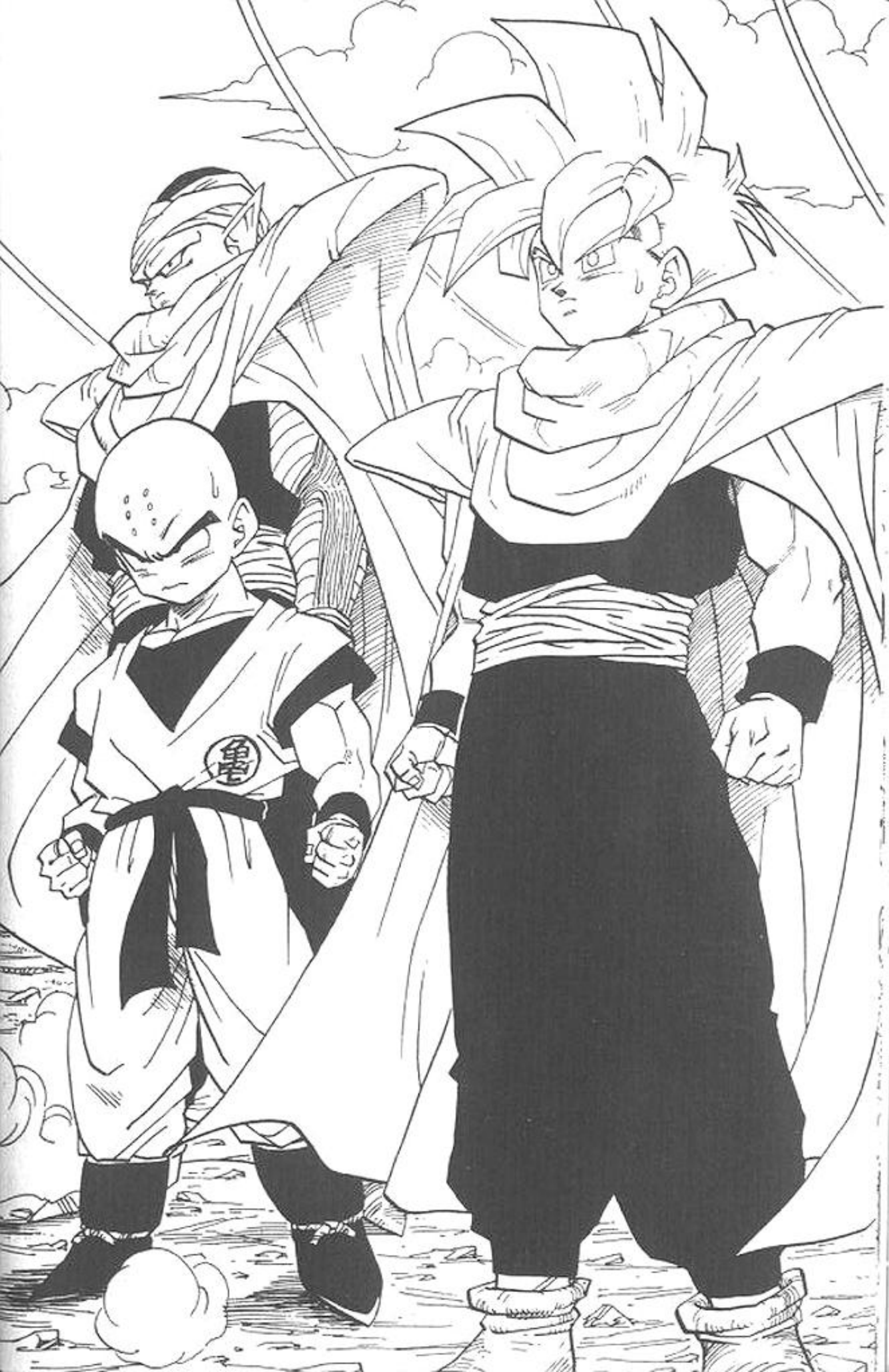

어서 와라,
손오공!
기다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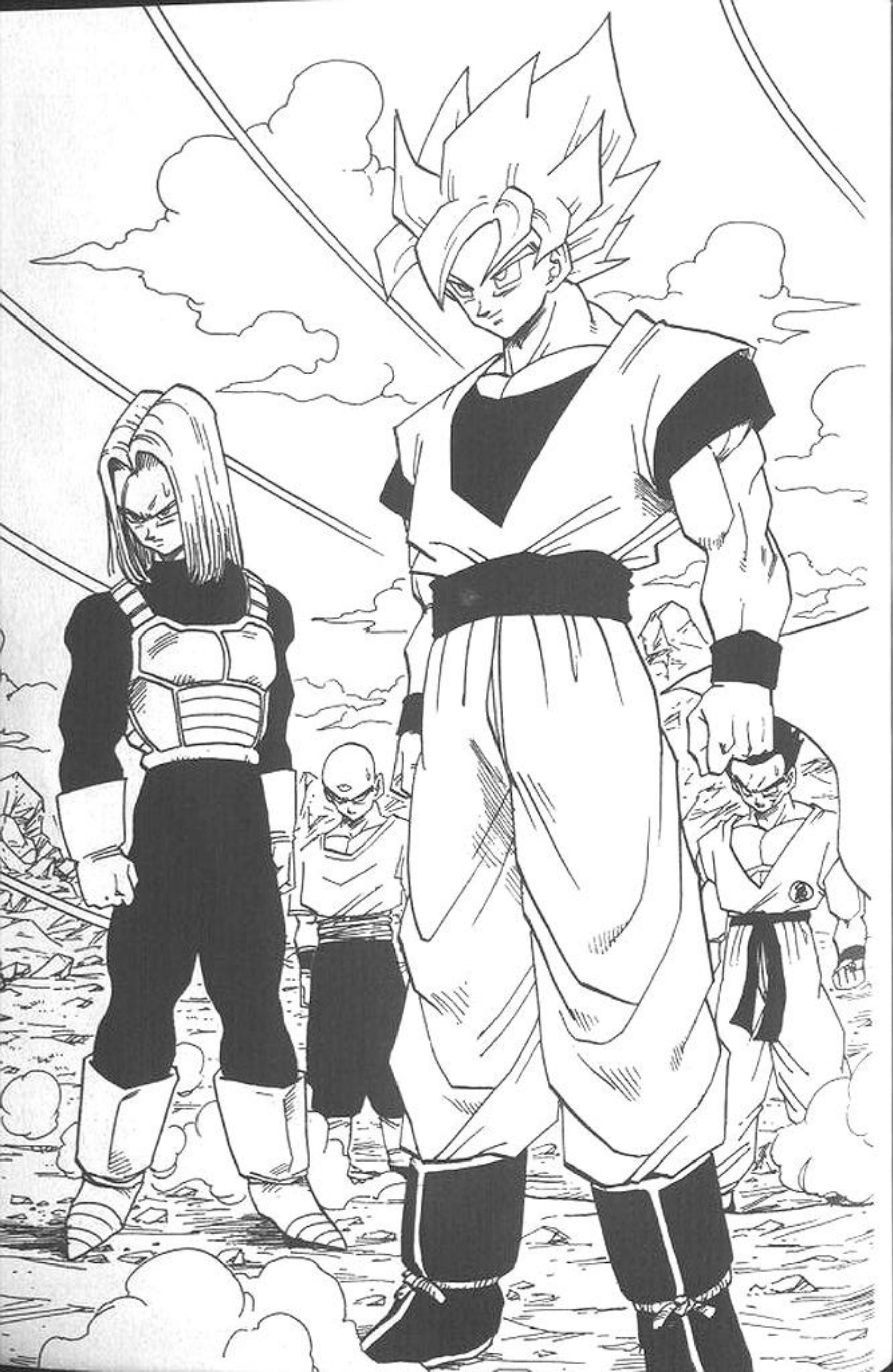

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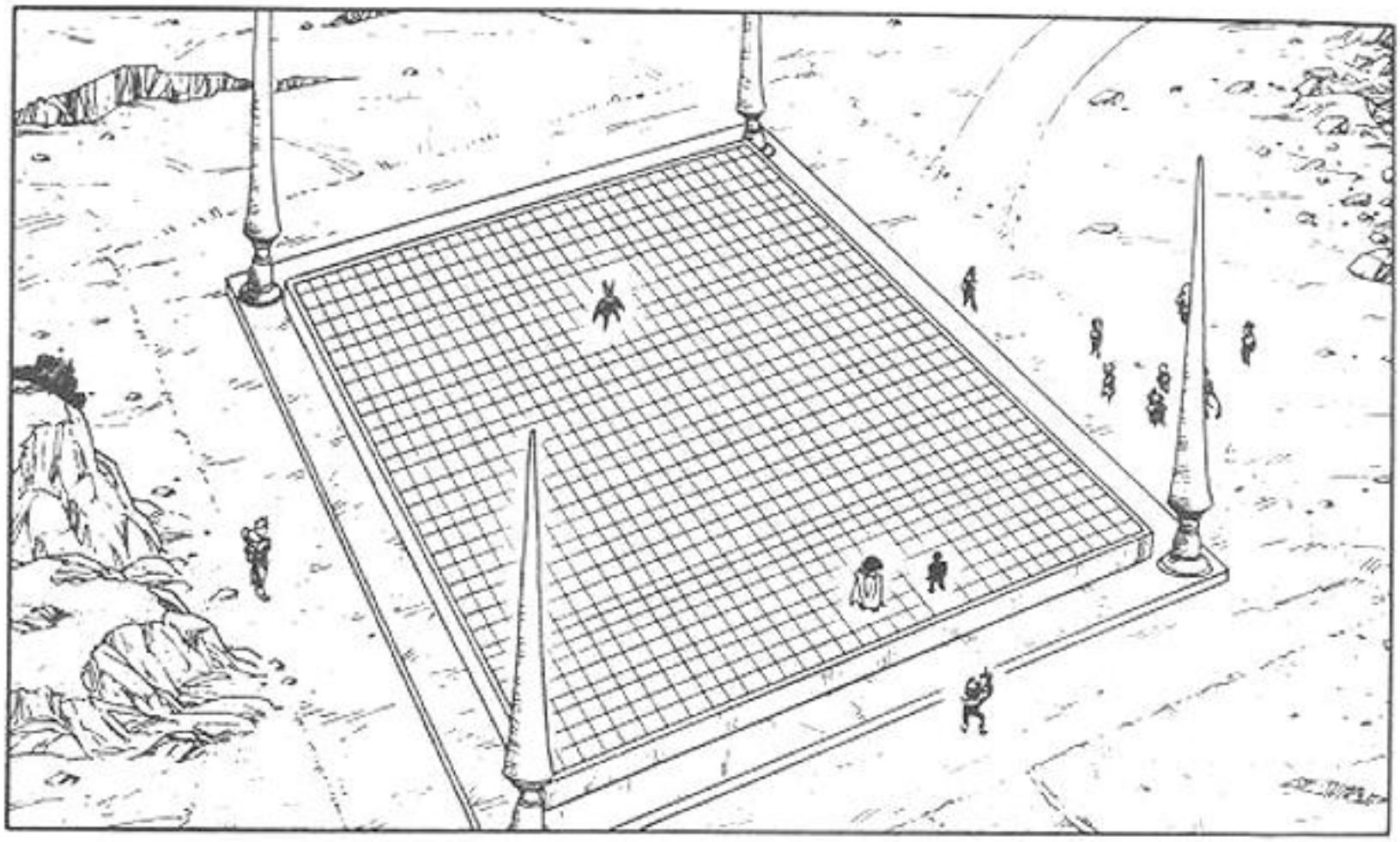
-잉


타닥
스슷


팟








오늘의
주연들이
다 모였군.


쳇….
쟤들은
뭐 하러
왔어….


저…. 전부
하늘을
날아왔습니다….
요… 요새
저런 사기가
유행인가….




아!
16호다.
저 녀석,
이젠 괜찮은 것
같은데!




서로
열심히
해보자,
16호!


하하하….
다행
이구나.


네 덕분에
이렇게
다 나있어.


내… 내가
너무
안 튀어…
……


기분
나쁜 녀석
인데….




그 사실을
잊지 마라,
손오공!

소…,
손오공 아저씨가
먼저 시작할
필요는 없잖아….

괜찮지,
베지터?

내가 먼저
싸워볼까!

그럼!

두둑

응!?

암마…!

너희
맘대로
순서
정하지 마!

……

어차피
녀석을
끝장낼 수
있는 건
나니까….

맘대로
해.

정신 못차리고 있는 건 바로 너야….

이건 장난이 아니란 말야!

쓸렁한 농담은 그만 좀 해라!

너희들!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 저기….

혹시 너희들, 이 셀게임에 출전할 생각이냐?

당근이지. 모두는 아니지만.

시간 됐다!

아직도 세계 최강의 사나이, 미스터 사탄을 잘 모르는 멍청한 촌닭들이 있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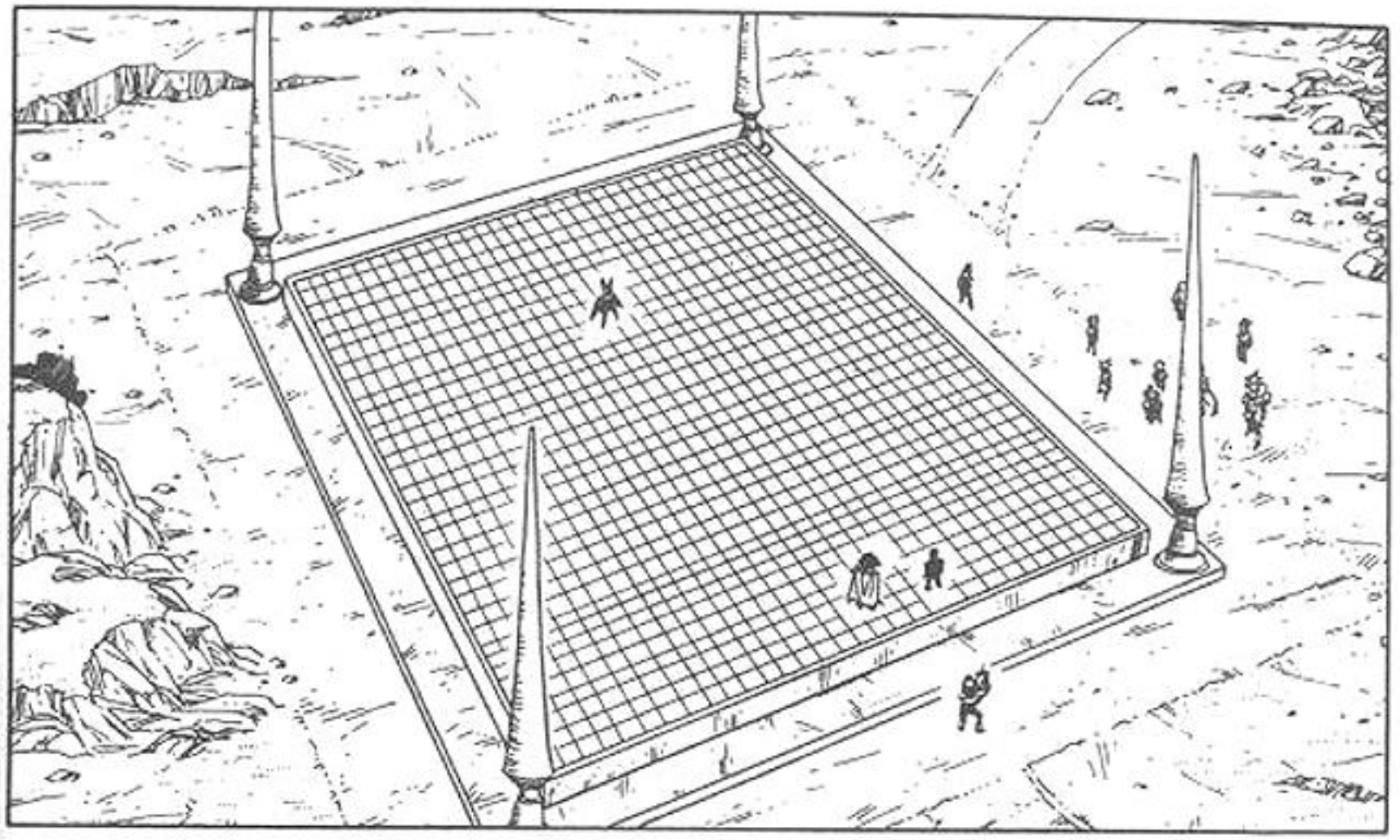
후후후…. 이거 놀라운걸….

조…, 좋은 생각이지만….

오공! 상관 말고 저 녀석을 먼저 싸우게 해보자.

이 사람은 세계 격투기 선수권 챔피언이란 말야!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고!

다음은, 제396화 셀게임의 훼방꾼!?




나 혼자 충분해!
당연히 내가 먼저다!
빨리 덤벼!
어떤 놈이라도 좋다!


넌
죽을지도
몰라.
왕따
안 시킬 테니까
구경이나 해.


이 봐!
카메라를
저 얼빠진
녀석들에게
잠깐 비춰봐.
예!


후우….


우리의 위대한
미스터 사탄에게
「넌 죽을지도 몰라.
왕따 안 시킬 테니까
구경이나 해!」라고
말했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스터 사탄을 향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 귀에는
전세계 국민들의
어이없는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와하하! 너야말로 저리 꺼져 있어!
우
우
국왕이 머무는 킹캐슬 ….
저러니까 시골뜨기 촌놈들이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토록 가르쳐 줬는데, 아직도 사탄의 위대함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귀찮은 녀석들 이군….
저런 녀석들에겐 매가 약이지….
저… 저 사람은 그 옛날 피콜로 대마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준 그 어린이와 모습이 비슷한데….
하… 하지만 이런 색깔의 눈과 머리가 아니었으니까 역시 아닌 것 같군….
그… 그렇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저… 저 사람은 분명 피콜로 대마왕인데 어떻게 해서….


하지만 당연한 일이겠죠. 그는 과연 목숨을 건진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 겨우 이해한 것 같군요!
그럼 할 수 없지….
글쎄….
죽으면 쟤는 드래곤 볼로 다시 살려내면 되잖아!
파
파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드디어 시합을 시작합니다!
정체
녀석들
방해를
짜증난
짓던
쭉…
영광스러운 챔피언 벨트도 풀어서 번쩍 치켜 들었습니다!
망토를 벗어던지고, 지금은….

지구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합이지만,
우리의 격투기 세계 챔피언
미스터 사탄은 너무나도
이 시합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시합 전에 믿음직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시작입니다!
드디어
셀게임이
시작됩니다!

캡슐에서
커다란
가방이
나왔습
니다!

앗!
가방
입니다!

캡슐
입니다!
캡슐을
꺼내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니,
미스터
사탄이…!


미스터 사탄, 정성들여 그 기왓장을 쌓고 있습니다!
터덕
기왓장입니다! 두꺼운 기왓장이 들어 있군요!
쒜—에
저 가방 무엇이


기왓장의 수는 1… 2… 3…, 모두 15장입니다!
15장의 기와가 아주 높게 쌓였습니다!
그것을 전부 쌓았습니다!
저런…, 후시 저 녀석…
어이구


여러분! 이제 조용히 지켜 봅시다….
휘이잉
그 다음엔 정신통일을 하는군요! 미스터 사탄이 힘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유우우우우
후후후…


뻔쩍
으랏차
차쵸쵸
…!!


푸우!
지끈 지끈 ·


하지만 대단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입니다!
앗-! 1장이 남아버렸군요!
14장! 14장의 기와가 먼지처럼 조각나 버렸습니다!!


우와와 와와-!!
죽이는 솜씨다-!!
사탄 만세!!


머——··엉


.....
잘 났어. 정말~!


셀!!
산산조각이 된
이 기와
조각을 봐라!!


이것이
바로 1분
후의….
네
모습이란
말야….


황홀한
장면입니다!
역시 위대한
영웅 사탄!!
전 지금
사탄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느꼈습
니다!!


사탄
만세!!
와아아-!!
잘한다,
사탄!!
멋쟁이!

됐다…!!
내 생각대로
멋지게 나가고
있어!!

낙낙 낙낙…

역시 비디오로
이 장면을
녹화해 놓길
잘 했다…!!

셀은 지금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엄청난 허풍을 떨던
셀도 지금 미스터 사탄의
파괴력을 보고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용서를 빌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전 세계 인류는 셀의
범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덤벼라!!

세계 격투기
선수권대회 우승자,
미스터 사탄 대 셀!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 셀에게
이제 정의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자-! 드디어
지구의 운명을 건
셀게임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미스터 사탄이
셀을 죽이고
승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당연한 희망일
것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이 링 밖으로 떨어지거나,
항복하면 패배입니다!
물론 죽어도 패배이지요!

사탄
만세!!

이겨라,
사탄!!

하아아앗—
!!


드디어 사탄 선수의 멋진 기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킥이 셀에게 작렬-!!
이미 승패는 결정난 것 같습니다!!
우와아-! 사탄 선수,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셀은 공격 한 번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격을 못합니다!
타탓
파밧
퍼퍽탁
대단한 파워입니다! 역시 챔피언 사탄답군요!
이야아압-!!
귀찮다!
팡


와장쌍
후우…
으윽…!
어이쿠…!
아야야!
아이고, 내 턱이야!
자식! 목숨 한 번 끈질긴데…
……
조용
리…, 링 밖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ZTV

누가 먼저
덤빌래?
역시 손오공,
너부터 할래?

자! 어
셀게임
시작하

이… 이걸로
지구의 운명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호…,
혹시….

내가
먼저다.

잘 생긴
내 얼굴….

아이고!

바…. 발을
잠시 헛디뎌서
그런 거야….

미…
미스터 사탄….
저… 저기…,
도대체 패한
이유가 뭐죠?

떨떨하기
세계챔피언
인가봐…!

저…
저 자식,
아직도
제 주제를
모르다니….

걱정 마….
잠깐 쉬고 나서
이번에는 진짜로
싸울 테니까….

제
나가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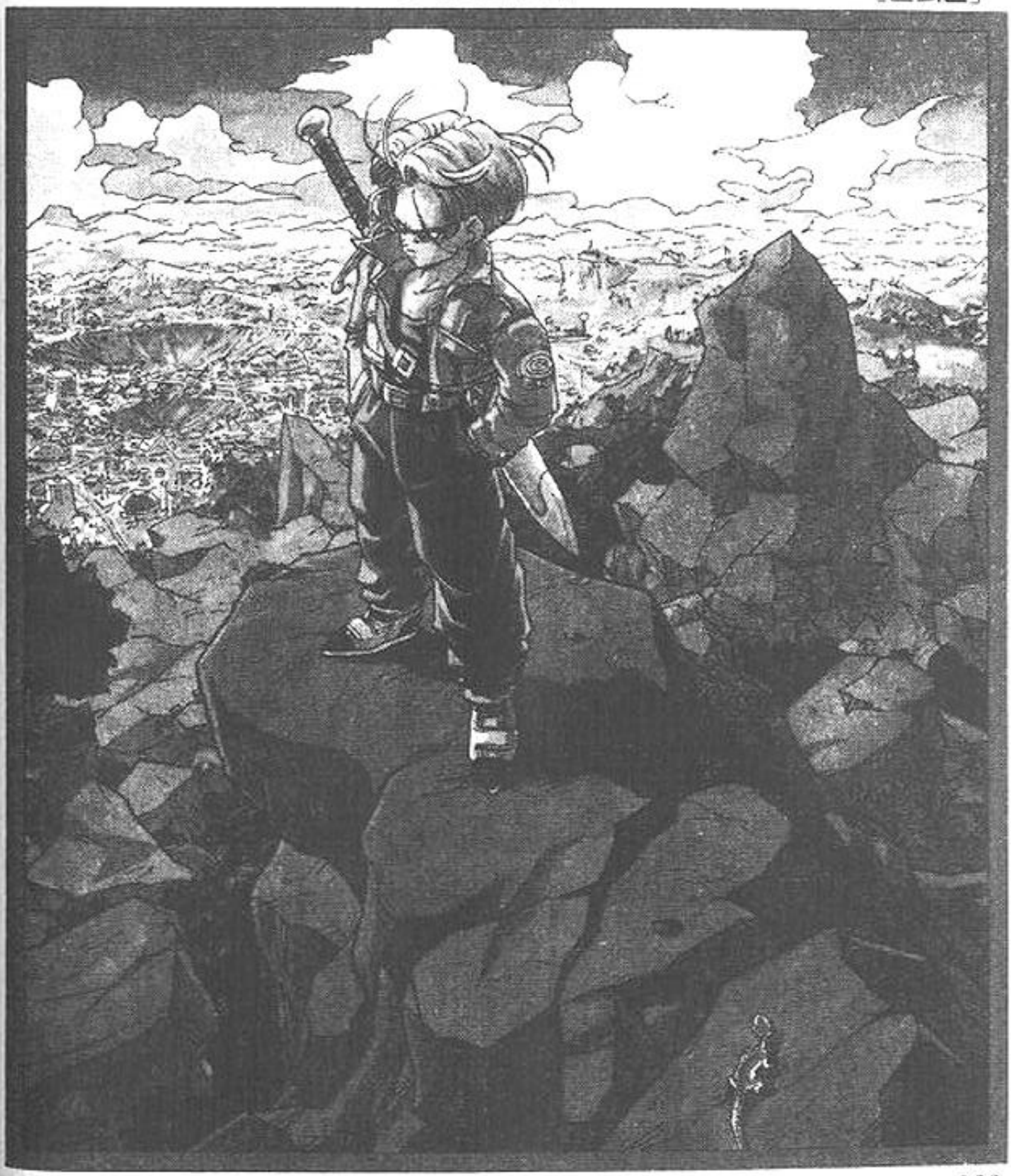
TRUNKS THE STORY

드래곤 볼/
트랭크스
더 스토리

鳥山明 BIRD STUDIO

-단 하나의 전사-

[번외편]



미래….

파박
퍼벅

하앗!!

얏!!

좋았어!
잘한다,
트랭크스!!

오늘은
여기까지다!

허억!

허억!

실력이 엄청 늘었다, 트랭크스.

하아

하아

앞으로 몇개월 정도 더 하면 나도 능가할 수 있을 것 같아.

선두만 있었어도 그 팔이 원래대로 돌아왔을 텐데.

옹… 하지만 이미 없어져 버린 걸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

그때 도망칠 수 있었던 것만도 천운이라고 생각 하는걸….

저기, 오반. 엄마가 말이지….

그 도복을 입고 있는 오반의 모습을 보면 손오공 아저씨랑 너무 닮아서 항상 깜짝깜짝 놀란대.

CAPSULE CORP.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죽은 아버지처럼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들어 입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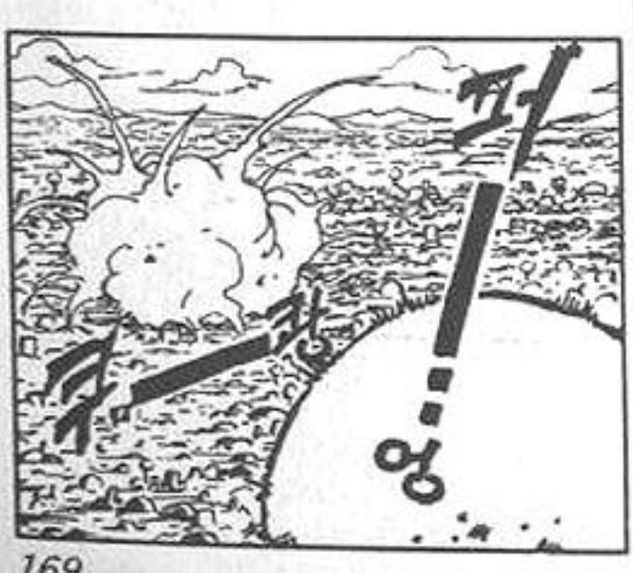
좀처럼 쉽게 강해질 수는 없는 것 같아.

하하….

구사령







더…
더이상
용서 못해… !!

제길….

콰르르릉

척

하앗 !!


오, 오반! 그 팔로는 …!!
트랭크스! 넌 여기 있어, 알겠지!?
싫어! 오반이 가면 나도 갈 거야!
나도 이미 꽤 강해졌다구!!
빠악
앗!
응!?
만약 너까지 죽어버린다면 지구를 지킬 전사는 아무도 없게 돼….
몇년 후 저 인조인간놈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던 최후의 전사가….


파밧


파


퍼—앙
쿠쿠쿠쿠쿠쿠


쿠콰——…쾅
그만둬, 17호. 여긴 이미 살아있는 인간이 없다구.
딴데 가자. 북쪽에 많은 인간들이 숨어있는 장소가 있을 거야.
쳇…, 한방에 쓸어버리면 될걸….
아… 아으으….
좀 천천히 즐기면서 하자. 너무 깨끗이 전멸시켜버리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없어져버리잖아.
그럼 다시 게임을 시작하자. 차 가지고 장난치기 게임을.
퍼엉
번쩍


얏
덜컥
덜컥..


하하하하…!


터억!!


난 이 옷이 맘에 들었어. 옷을 걸레로 만들면 진짜 엄청 열받지….
우리들 몸처럼 튼튼한 옷이 아니니까. 똑같은 게 이제 4벌밖에 안 남았지?


그렇게 당하고도 목숨이 붙어서 도망치셨군….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손오반….


이젠 너희들이 묵사발 당할 차례야!
이번엔 당하지 않게 수련을 했다….

뭐야… !?

!!

우리가 무너질
차례라구 ?
후후후….
널 실망시켜
미안하지만….

저승으로
보내주마 !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키득
….

지난 번
전투에서는
내 파워의 반도
사용 안 했는걸.

오반 … !?

오….

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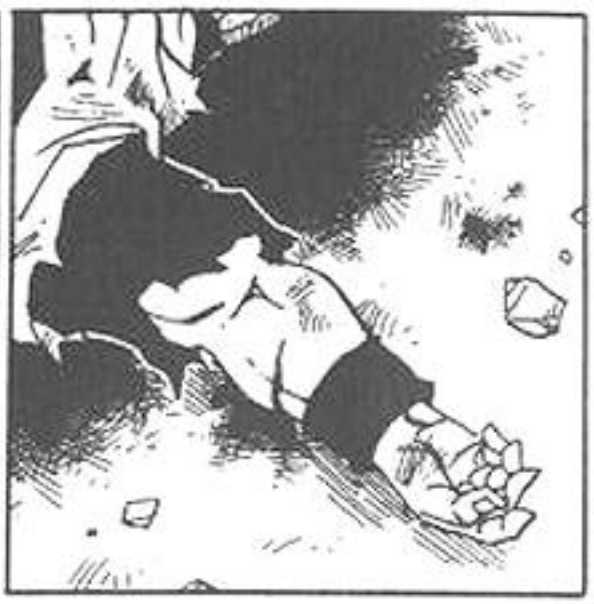
끄…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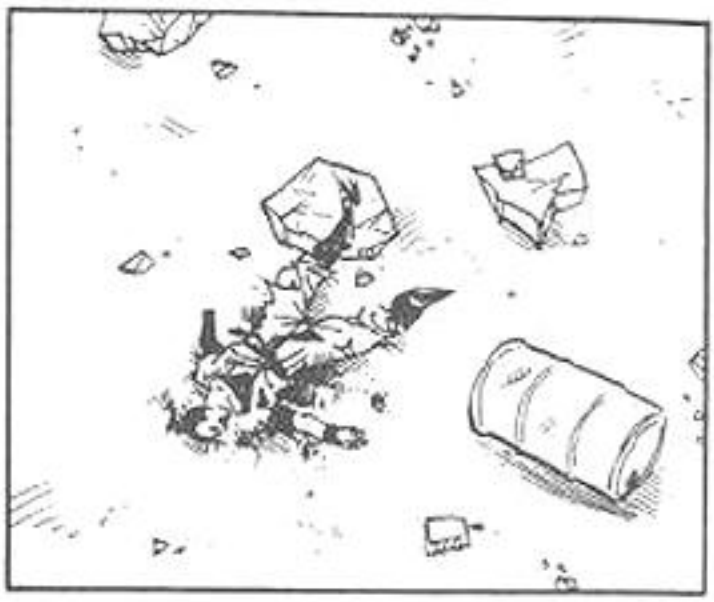
오반의 기가… !!

느… 느껴지질 않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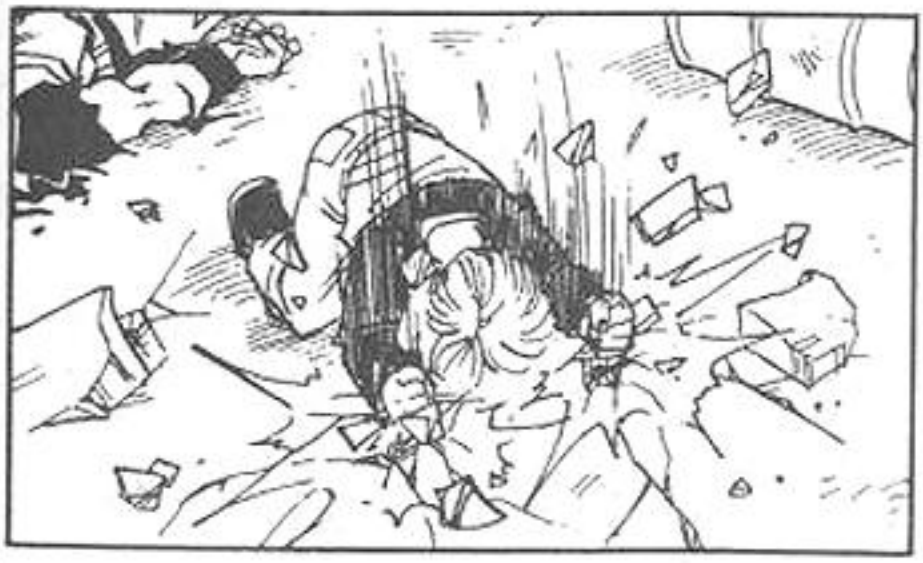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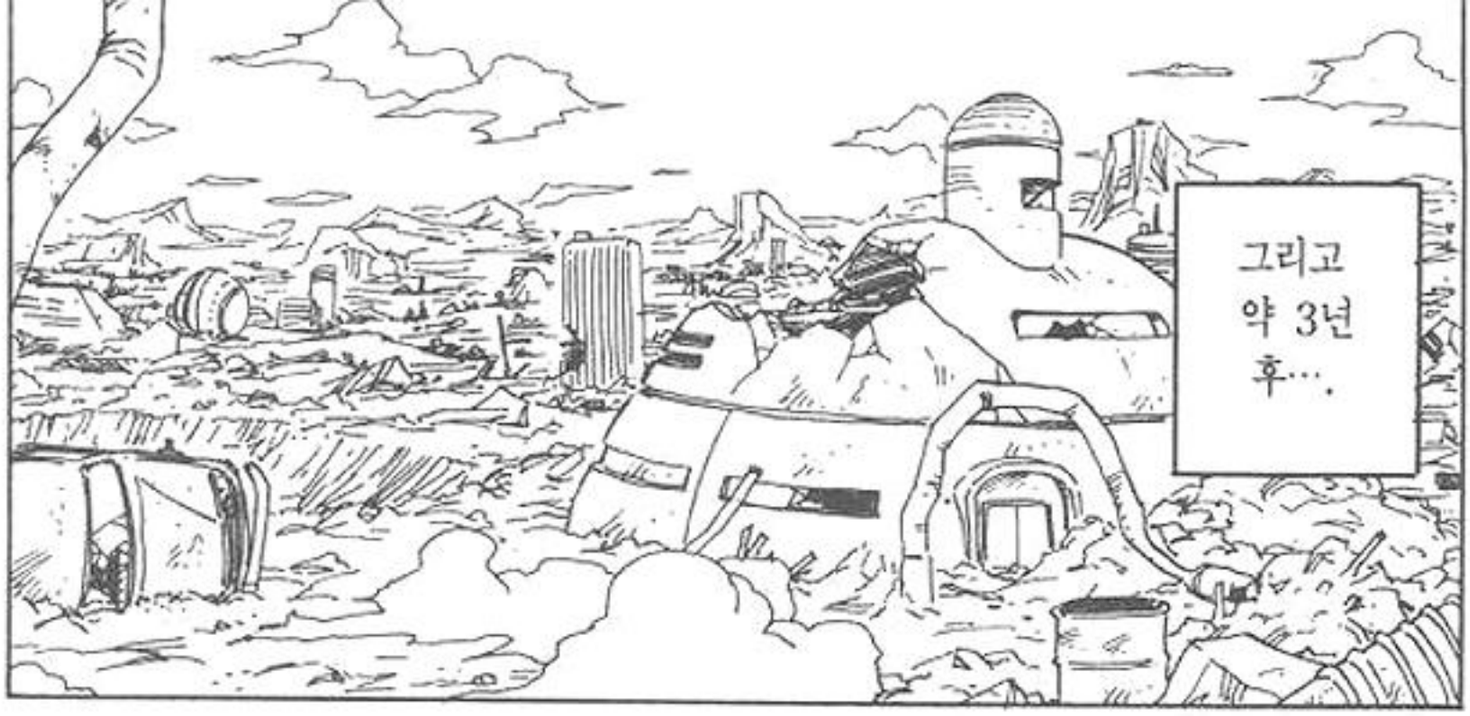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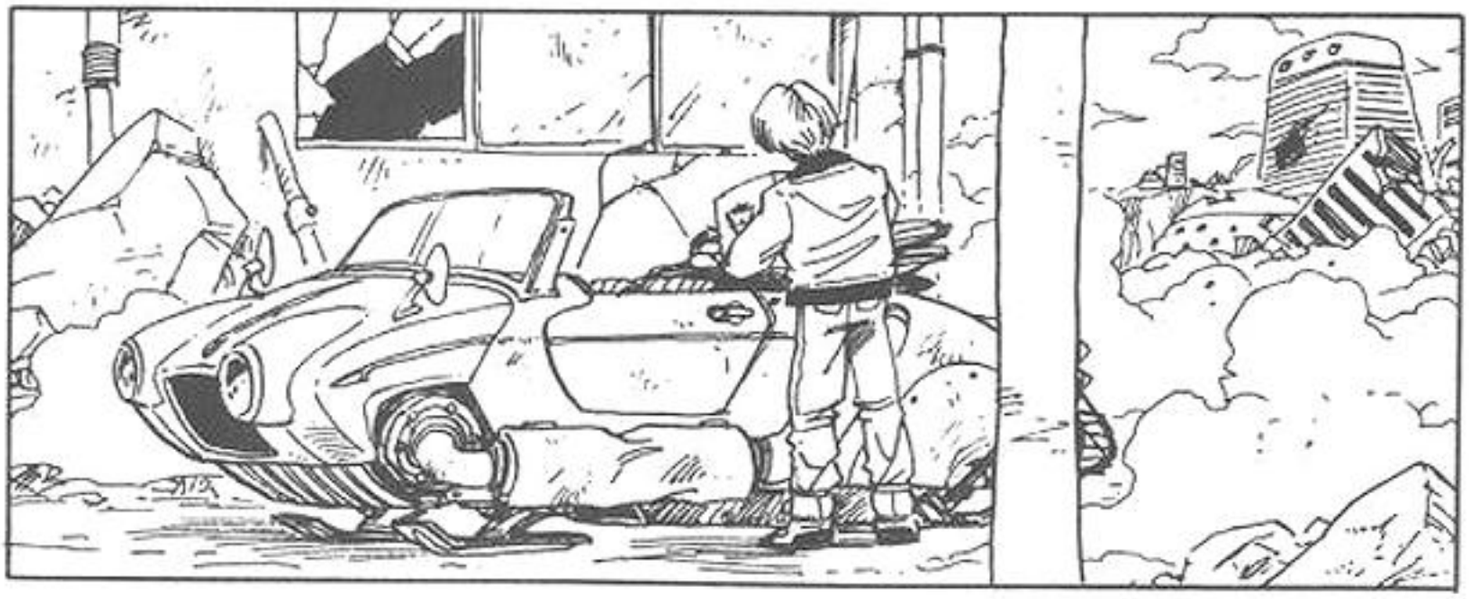

APSULE
CORP.








그리고
약 3년
후….




엄마,
다녀왔어.
끼
익
오늘은 좋은
음식 재료를
많이 구입할 수
있었는걸.
TAE
FOODS

뭐!

1
CAPSULE
CORP.

어서 와라, 트랭크스!

이것 좀 봐봐! 드디어 타임머신에 왕복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다 주입했단다!

꽉 채우는 데만 8개월 씩이나 걸려버려서 테스트도 못하겠는걸.

그치만 안전하게 갔다가 돌아올 수는 있을 거야.

……

연구소만 부서지지 않았어도 더 완벽한 걸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내 실력이라면 아마 인조인간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일부러 과거로 가서 연구해올 필요까진….


그때의 오반과
지금의 너랑은
별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은걸….
너 지금 너무
방심하는 거 아니니?
확실히 넌 엄청 강해지긴
했지만, 3년 전에 오반이 살해
당한 걸 잊은 건 아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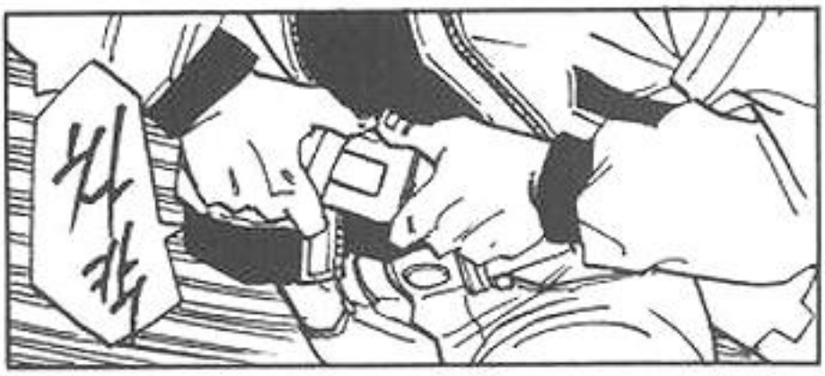

현재 습격
당하고 있는 곳은
서쪽 도시의
남방 300 킬로미터
지점의….
진행
도중입니다만,
인조인간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나 이번엔
너무 자신이
넘쳐!


잠깐만,
트랭크스!
거기 서!!
나
갔다올게!
반드시
이기고
오겠어!


……
자…,
잠깐만,
트랭크스.
너 설마….


……
바로
옆이네….


싹




기다려라, 인조인간…!
오늘이야말로 죽어간 모두의 원수를 갚아줄 거야!



5일 후,
서쪽도시
교외에 있는
작은 병원….

엄마….

왜?

엄마 말이
맞았어….
아직도 인조인간과의
파워 차이는
엄청 크던걸….

솔직히
살아 돌아온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

우선 17년 전으로 가서
손오반의 아빠한테
악을 건네주면…,
그걸로 모든 게
시작된단다.

오공만 그때
심장병으로
안 죽었어도 이런
비참한 세상은
안 왔을 텐데….

넌 이 엄마랑
똑같이 운이
좋은가봐.

부상이
다 나으면 빨리
타임머신을
타거라.

그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어?

분명
강하기도
했지만….

아무리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해도
반드시 어떻게든
해결해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들게
해주는 사람이야….

난 우리 아빠를 만난다는 게 너무 기대돼.

……

너무 기대 안 하는 게 좋을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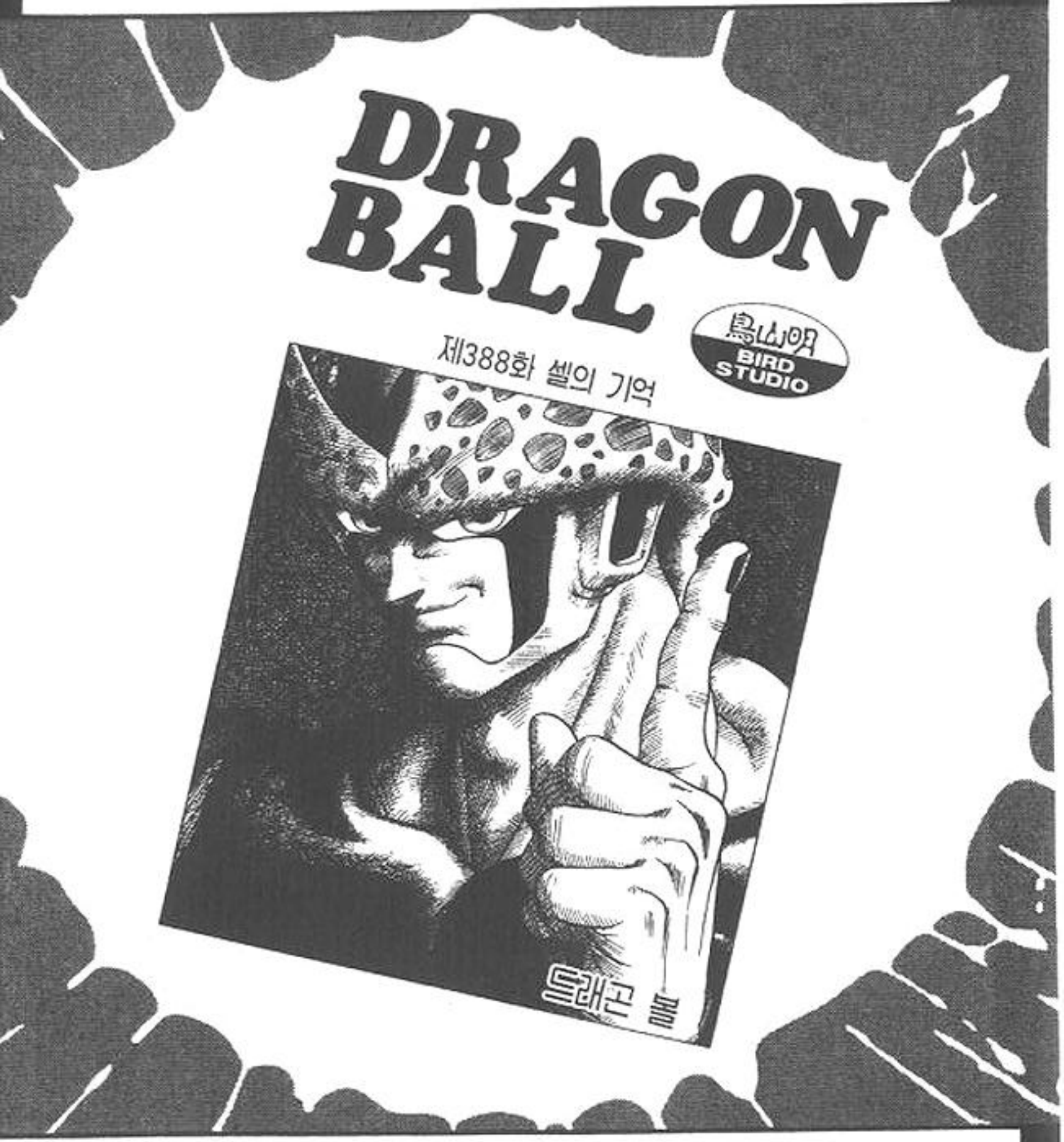
그럼 이게 손오공 악이고….

응, 엄마도 조심해.

부탁한다!

다녀 오겠습니다!!

표지 페이지 대특집XXX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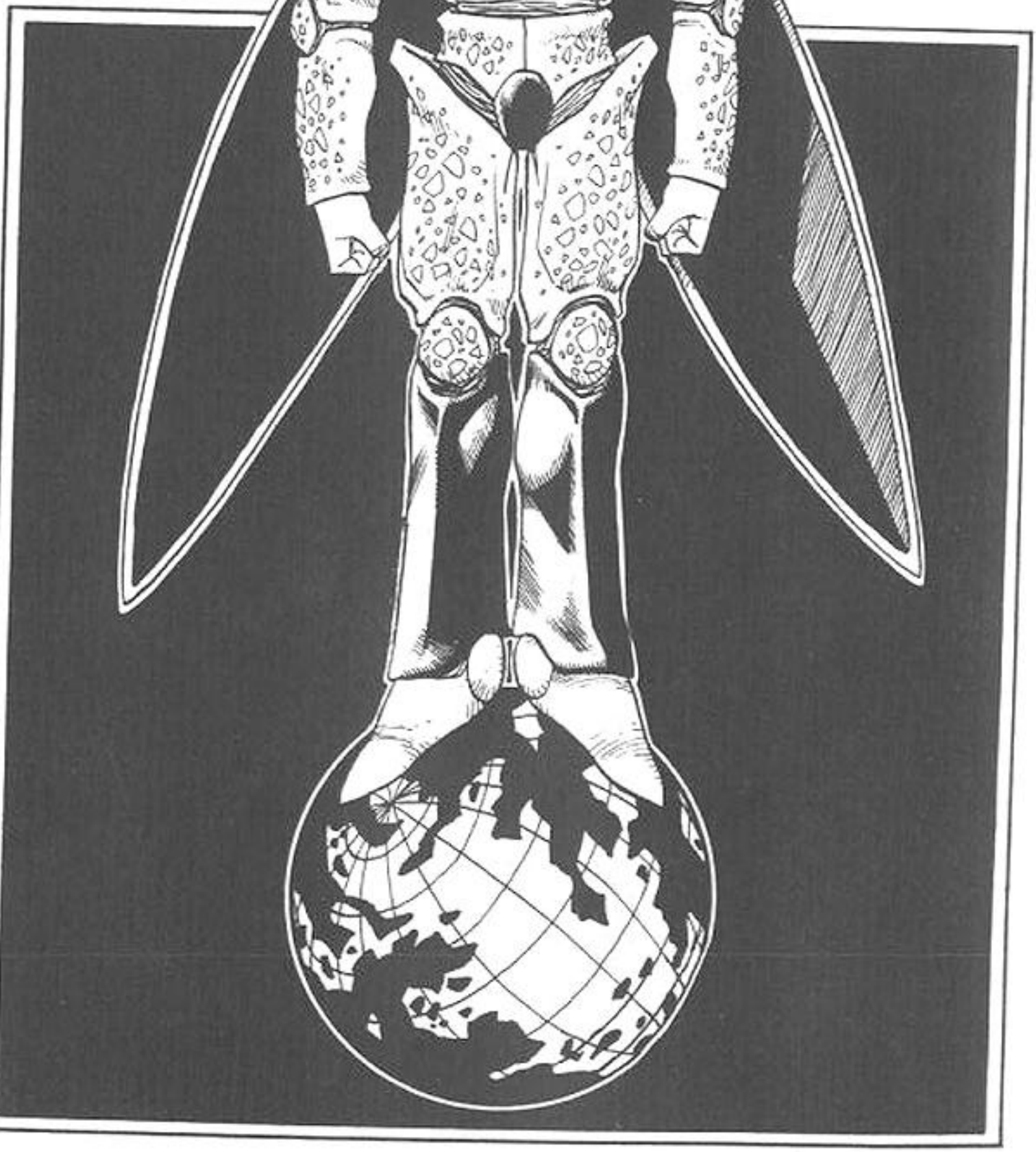
우와-앗!! 결국 미스터 사탄은 뭐 하는 놈이었냐!?
어쨌든 드디어 시작된 인류 최후의 대결전!!
주간 IQ점프에 실렸던 그대로의 표지 페이지
특집을 보면서 손오공들 슈퍼 전사와 셀의 사투를
기다려보시도록!!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390화
오공과 오반
등장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鳥山
BIRD STUD

제391화
대결전 전의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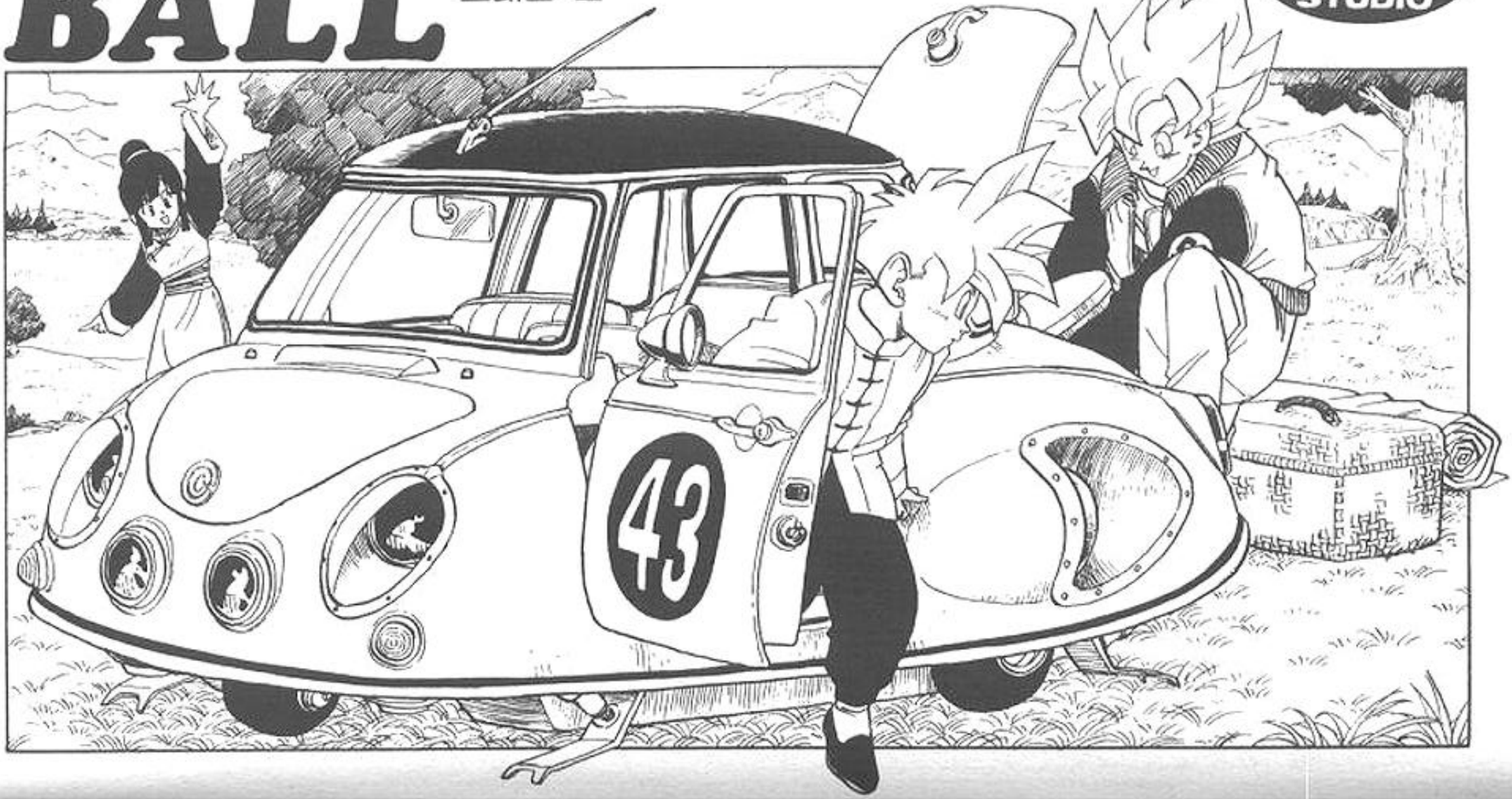
드래곤 볼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392화
왕립방위군의 저항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394화
셀게임 개막

鳥山明
BIRD STUDIO

scanned by raprnb

DRAGON BALL

드래곤 볼

鳥山明
BIRD STUDIO

제395화 전 멤버 집합!!



DRAGON BALL

드래곤 볼

鳥山明
BIRD STUDIO

제396화
셀게임의 훼방꾼!?

